



유리건판으로 보는 개성 宮闕과 陵墓

GAESEONG IN GELATIN DRY PLATES  
PALACE AND TUMULI



## 유리건판으로 보는 개성 - 宮闕과 陵墓

GAESEONG IN GELATIN DRY PLATES - PALACE AND TUMULI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 발 간 사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박물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열한 번째 사업으로 옛 고려의 수도 개성을 다룬 유리건판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조사 정리한 자료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은 고려가 개성을 수도로 정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해에 내는 이 자료집은 작년 우리 관이 연 특별전 “대고려 - 그 찬란한 도전”의 성과를 잇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국 1,000년을 맞이하던 고도故都의 여운이 유리건판에 박힌 채, 1,100주년이 된 이제야 고스란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개성의 풍경과 개성 출토 유물들을 촬영한 유리건판은 확인된 것만 1천 장을 넘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을 전부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그것이 왜 촬영되었는지 맥락을 알기 어려운 건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자료집에서는 개성의 고려 유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궁궐 터 만월대滿月臺와 고려 500년을 살다 간 사람들의 안식처인 능·묘墓 관련 유리건판을 우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초 개성의 능묘를 조사했던 문헌의 번역도 함께 실어, 당시에 이런 사진을 촬영했던 이유를 가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휴전선만 넘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 서울에서는 수원보다도 가까운 도시가 개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과 북의 허가를 받아야만 잠깐 발을 디딜 수 있는 머나먼 곳이 되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자유로이 개성의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요. 독자 여러분께서 이 유리건판자료집을 보시고, 100년 전의 개성과 1,100년 전의 개경을 조금이나마 꿈꾸고 거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Preface

Every yea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dits museum-related materials colle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ublishes them as sourcebooks. This year, as the 11th installment of this proje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presenting a sourcebook with the complied results of surveys and research conducted on gelatin dry plate photographs and documents featuring Gaeseong (formerly known as Gaegyeong), the capital of the Goryeo Dynasty. The year 2019 marks the 1100th anniversary of the designation of Gaeseong as Goryeo's capital. The sourcebook published in this meaningful year is one of the fruitful outcomes of the special exhibition *Goryeo: The Glory of Korea*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Memories of this former capital founded over a millennium ago lingers on the gelatin dry plate photographs, which are finally ready to be unveiled for the 1100th anniversary of the creation of this capital city.

More than 1,000 dry glass plate photos were produced of scenes of Gaeseong and artifacts unearthed the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troducing all of these photographs presents several challenge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some of the photos taken. This sourcebook features gelatin dry plate photographs of key Goryeo ruins in Gaeseong, including the Manwoldae royal palace site and tombs and mausoleums. It also contains translations of documents on the survey and research conducted on tombs and mausoleums in Gaeseong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offer explanations of the work done at the time.

Gaeseong is located remarkably close to Seoul, just ove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is more close to Seoul than Suwon, considered a neighbor within the Seoul/Gyeonggi-do region. Despite its geographic proximity, Gaeseong is now a somewhere distant that could only be accessed briefly and with permission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 When will we be able to freely visit the remains in Gaeseong? It is hoped that this sourcebook can offer readers an opportunity to journey to Gaeseong of 100 years ago, and even further on to Gaegyeong ten centuries in the past.



# 유리건판으로 보는 개성 – 宮闕과 陵墓

GAESEONG IN GELATIN DRY PLATES – PALACE AND TUMULI

**기획·편집** 강민경

**원고** 장상훈 강민경

**자료 정리** 강민경 정해진

**번역** 장통방(영문) 아라키 준(일문)

**교열·교정** 김동우 장상훈 강민경 김미경 유새롬 윤지연

**자문** 김영민(사진) 강경남(유물)

**디자인** 신혜미(디자인공방)

## 제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층 616호

02-2285-4132

**자료협조(국가순, 가나다순)**

국가기록원

진인진

## 표지 사진

앞면: 경기 개성 만월대 석용두石龍頭

건판23332

원판번호 無516-12

촬영 당시 개성보승회 소장

뒷면: 경기 개성 고려 공민왕 현릉 · 노국공주 정릉 근경

건판17490

원판번호 D390003

2019년 12월 24일 초판 발행

First Edition, December 24, 2019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2019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Using the contents of this book requires the permission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BN 978-89-8164-204-4

##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경기도 개성 일대의 고려 유적(궁궐, 능묘)을 촬영한 사진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2. 이 책에 수록된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표기하였다.
3. 연도를 표기할 때는 '서력기원 연도(국가, 국왕, 재위년 또는 연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4. 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판의 유물번호-원판번호-조사자-촬영연대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는 유물번호와 원판번호를 제외하고 생략하였다.
5. 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리건판의 정보는 유물번호-원판번호의 순서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조사자-촬영연대를 부기하였다.
6. 영문, 일문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7. 능묘를 촬영한 유리건판 중 촬영 당시 능묘의 지명이 적힌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 기재하였다.

# 목 차

발간사	2
I 머리말	6
II 사진에 남은 오백 년 도읍의 흔적	10
1. 궁궐 <small>宮闕</small>	12
가. 흥망이 유수 <small>有數</small> 하니 - 고려 궁궐 터의 옛 모습	14
나. 만월대도 추초 <small>秋草</small> 로다 - 고려 궁궐 터 출토 유물	30
2. 능묘 <small>陵墓</small>	54
가. 고려 사람의 마지막 쉼터 - 고려 능묘의 옛 모습	56
나. ‘도굴’, 그리고 ‘발굴’ - 파헤쳐진 고려 능묘	108
다. 햇빛을 본 유물들 - 능묘에서 나온 고려의 물건	128
III 논고	166
일제강점기의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	168
IV 부록	208
1. 제3장 제왕 <small>諸王</small> 및 족릉 <small>族陵</small> 의 구조 <small>構造</small>	210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 <small>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small> 』 수록 「고려제능묘조사보고서 <small>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small> 」, 제1편 제능묘개설 <small>諸陵墓概說</small> 중	
2. 유리건판 사진 목록	228
V 맺음말	234
초록	238
참고문헌	240





An aerial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likely a Hanok village, with a mountain in the background.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reddish-brown filter. The text "I. 머리말" is written in white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 I.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이백 년 전인 1819년(조선 순조 19) 가을, 개성유수부(開城留守府)에 발을 디딘 조선의 문인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7)는 옛 개경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한 권의 그림책 안에 도읍이 온전하건만      一卷圖經城市全  
책을 든 길손은 인적 드문 거리에 우두커니      携書過客弔荒烟  
가련하다 위봉루(威鳳樓) 앞의 돌맹이여      可憐威鳳樓前石  
서공(徐兢)이 사신 왔던 그 때를 보았으리니      猶見徐兢奉使年

서공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제題하다

서공이 남긴 책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백 년 전 고려 성대(盛代)의 모습은 간 데 없지만  
길가에 나뒹구는 저 돌은 그 시절 영화롭던 나날을 기억하리 ….

시인의 마음은 ‘개성’을 넘어 ‘개경(開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거닐었던 개성은 어떤 곳이였을까.  
갓을 쓴 자하가 전조(前朝) 고려의 역사를 느꼈던 개성의 유적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였을까.  
여기 소개하는 유리건판 사진 안에 그 유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려를 다스리던 왕의 공간 만월대,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삶을 갈무리하고 누웠던 무덤의 옛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다.







## II. 사진에 남은 오백 년 도읍의 흔적

1. 궁궐宮闕

2. 능묘陵墓

1 궁궐 宮闕





1

## 서북쪽에서 본 만월대滿月臺 전경

건판23333

원판번호 無516-13

옛 도읍에는 까마귀만 다투어 모여들고 故國鴉爭集  
텅 빈 성에는 학이 몇 번이나 맴돌았던가 空城鶴幾回  
봄바람 맞으면서 흐르는 물을 굽어보다 東風臨逝水  
황량한 누대 위 해질녘에야 올라왔구나 落日上荒臺  
뛰어난 지세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건만 形勝不曾改  
나라의 흥망을 있게 한 이 그 누구던가 興亡誰使哉  
예부터 역사의 발자취 많기도 하였으니 從來多古意  
떠나려다 다시금 발길 돌려 서성이련다 欲去更徘徊

최립崔岴 (1539~1612), 〈만월대에서 차운次韻 하다〉



## 가. 흥망이 유수<sup>有數</sup>하니 - 고려 궁궐 터의 옛 모습

---







2

## 경기 개성 만월대 京畿 開城 滿月臺

건판4332

원판번호 160152

1916년 촬영

태조太祖 왕건王建(재위 918~943)은 궁예弓裔(재위 901~918)의 도읍이었던 철원 포정전布政殿에서 왕위에 오르고 고려高麗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즉위 이듬해인 919년,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松岳으로 수도를 옮기고 송악산 아래 언덕에 궁궐을 세웠다. 이 궁궐이 고려의 왕들이 대를 이어 살았던 곳으로, 고려 시대에는 이 궁궐을 주로 본궐本闕이라고 불렀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江華로 천도했던 38년간을 제외하면 원의 간섭 아래에서도 이곳은 고려의 궁궐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공민왕恭愍王(재위 1351~1374) 10년(1361)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탄 뒤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다. 이후 언제부터인가 만월대滿月臺라는 이름이 붙었고, 주춧돌과 돌계단 틈에 잡초가 무성한데 보름달이 뜬 모습이 감회를 자아낸다 해서 지금까지도 만월대라는 이름이 통용되고 있다. 개성에는 만월대 말고도 이성계가 즉위했던 수창궁壽昌宮 등 많은 별궁이 있었지만, 지금은 텅텅이 사라지고 몇몇 석물石物만이 남았다.

3

## 경기 개성 고려 왕궁 터 王宮址 전경

건판64

원판번호 90075

1909년 촬영



## 경기 개성 고려 왕궁 터 앞

건판65

원판번호 90079

1909년 촬영



**만월대 뒤에서 본 서남쪽 토루土壘**

건판1098

원판번호 110629

1909년 촬영





## 서쪽에서 바라본 만월대 전경

건판17497

원판번호 D390010-1

1939년 촬영

‘송도’는 ‘개성’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뉴앙스’가 짙다. ‘송악’이 진 산嶽山 이겠지만, 서울의 ‘북악’처럼 우악스레 내리닥치지는 않았다. 좀 멀지감치 떨어져 있다. ... ‘송도’에서는 ‘만월대’가 ‘눈동자’랄까. 아무리 둔해도 ‘감회’없이 거닐 수 없는 궁궐터다. 일인日人들은 고적보존에 성실한 습성이 있다. 그래서 기와, 벽돌, 섬돌, 주춧돌 등등이 ‘파편의 황야’로 5백년을 잠자고 있었다.

김재준金在俊 (1901~1987), 〈송도松都〉, 『야화원여록野花園餘錄』

기사其四 (1936) 중에서





**만월대**

건판31250

원판번호 無180016 (격납상자제목: 大正七年[1918] 谷井)

1918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조사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880~1959)가 1918년 촬영한 만월대의 풍경이다. 1916년 일제 당국이 만월대를 정비한 이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만월대**

건판23221

원판번호 無499-21



**만월대 서남부**

건판23335

원판번호 無516-15





만월대 회경전會慶殿 터 전면 석단石壇과 돌계단

건판23334

원판번호 無516-14





회경전會慶殿은 창함문閭闔門 안에 있는데 전문殿門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규모가 매우 장대한데 그 터는 높이가 5길[丈] 남짓이다. 동서東西로 양  
쪽에 계단이 있으며, 난간을 붉게 옷칠한 데다 구리꽃[銅花]으로 꾸며서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여러 전각 가운데 으뜸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권5, 궁전宮殿 1 회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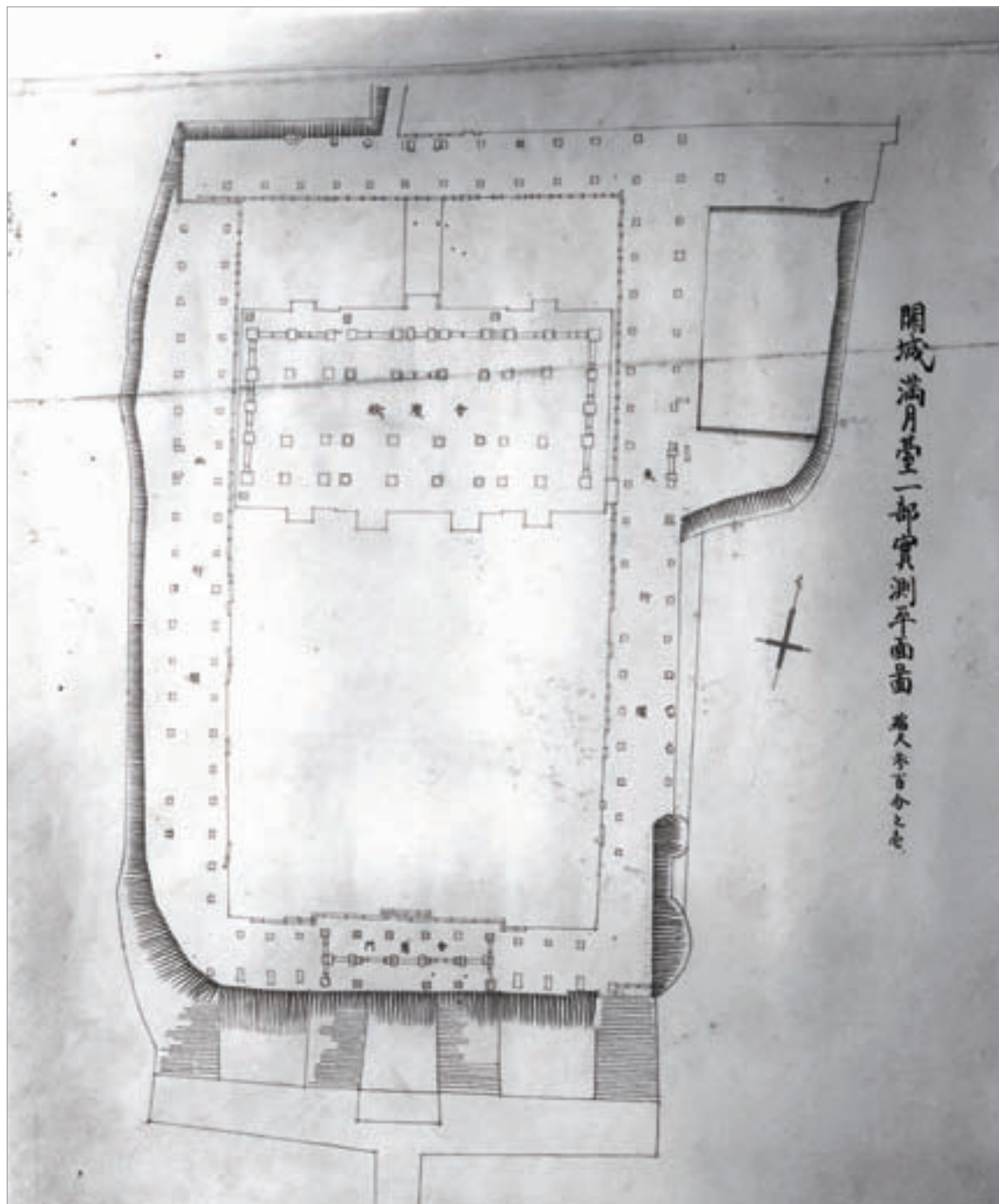
## 만월대 회경전 터 평면도

건판35527

원판번호 大72-6 (격납상자제목: 開城 滿月臺)

1909년 촬영

조선총독부 토목국土木局 영선과營繕課에서 실측해 만든 만월대 회경전의 평면도가 1918년 편찬된 『조선고적도보』 6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리건판 속 평면도는 그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범위가 넓어, 영선과에서 다양한 실측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옆장의 회경전 터·회경문 터 평면도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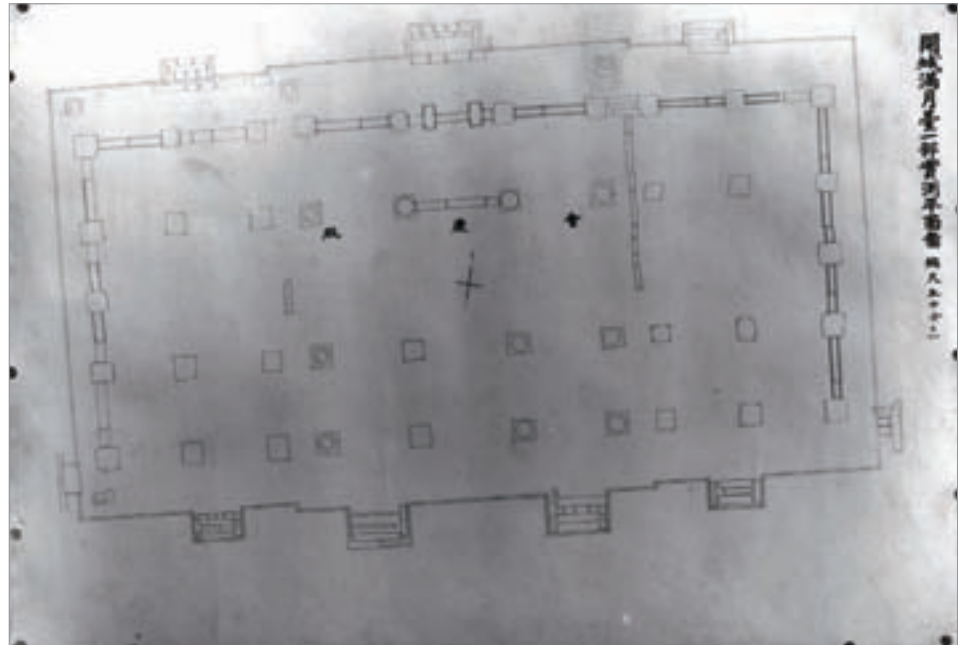


12

### 만월대 회경전 터 평면도

건판35528

원판번호 大72-7 (격납상자제목: 開城 滿月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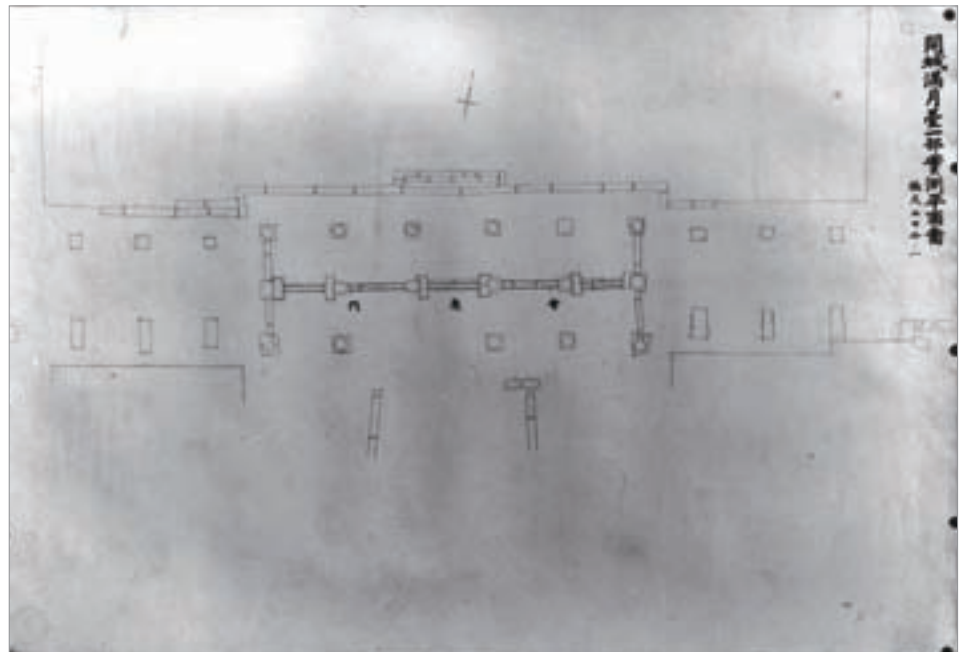


13

### 만월대 회경문會慶門 터 평면도

건판35529

원판번호 大72-8 (격납상자제목: 開城 滿月臺)



## 만월대 석등

건판27386

원판번호 無889-12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촬영 당시 개성보승회開城保勝會 소장

『조선고적도보』 7권에 3108번으로 실린 작품으로, 당시 개성 지역의 고적 보호를 임무로 삼았던 단체인 개성보승회가 소장하였다고 한다.

만월대는 궁전인데 궁전 내에 웬 불상·불등佛燈이 남아 있을까. 필시 어디에서 옮겨 온 것이겠군 하겠지마는, 고려의 내제석원內帝釋院이 이 속에 있었으리라고 보매 혹시 제석원의 유물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해본다.

고유섭高裕燮(1905~1944), 「송도 고적 순례」 중에서





## 경기 개성 수창궁 용두龍頭

건판36789

원판번호 無400-5 (격납상자제목: 없음)

현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

고려의 별궁別宮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가 즉위했던 수창궁壽昌宮  
자리에 있던 용머리 모양 석조물이다. 현재는 개성 고려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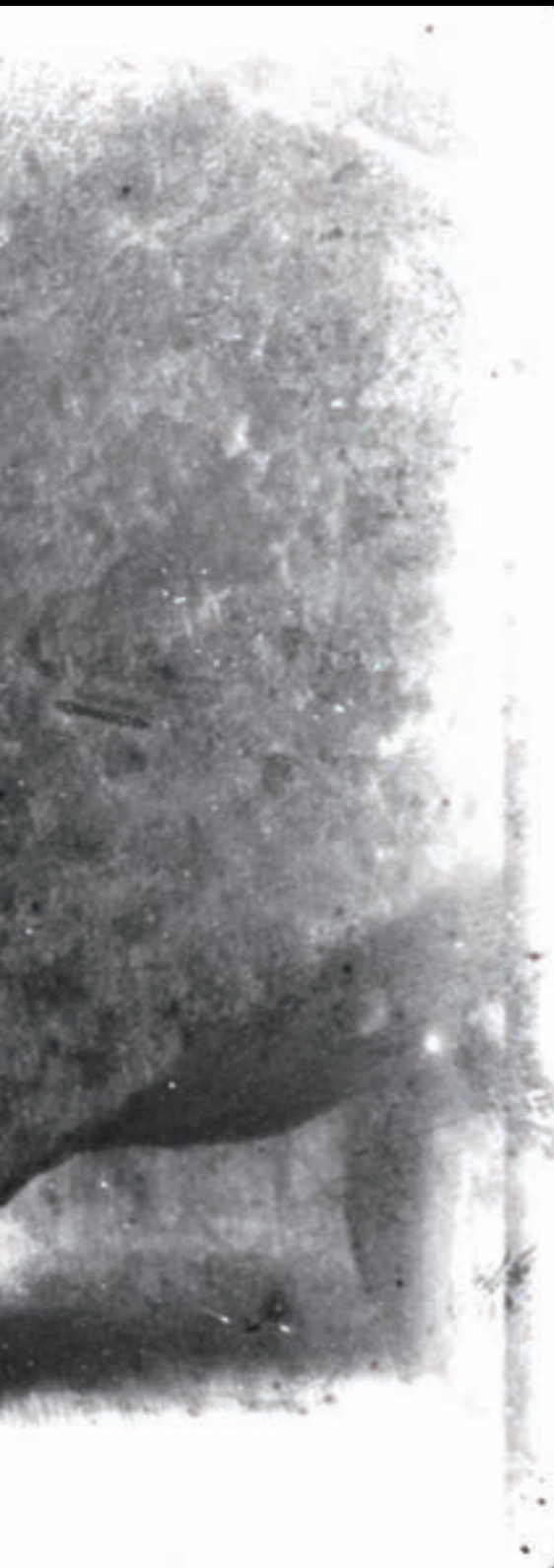




나.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고려 궁궐 터 출토 유물

---





16

## 만월대 발견 명문와편銘文瓦片

건판33828

원판번호 無450299(격납상자제목: 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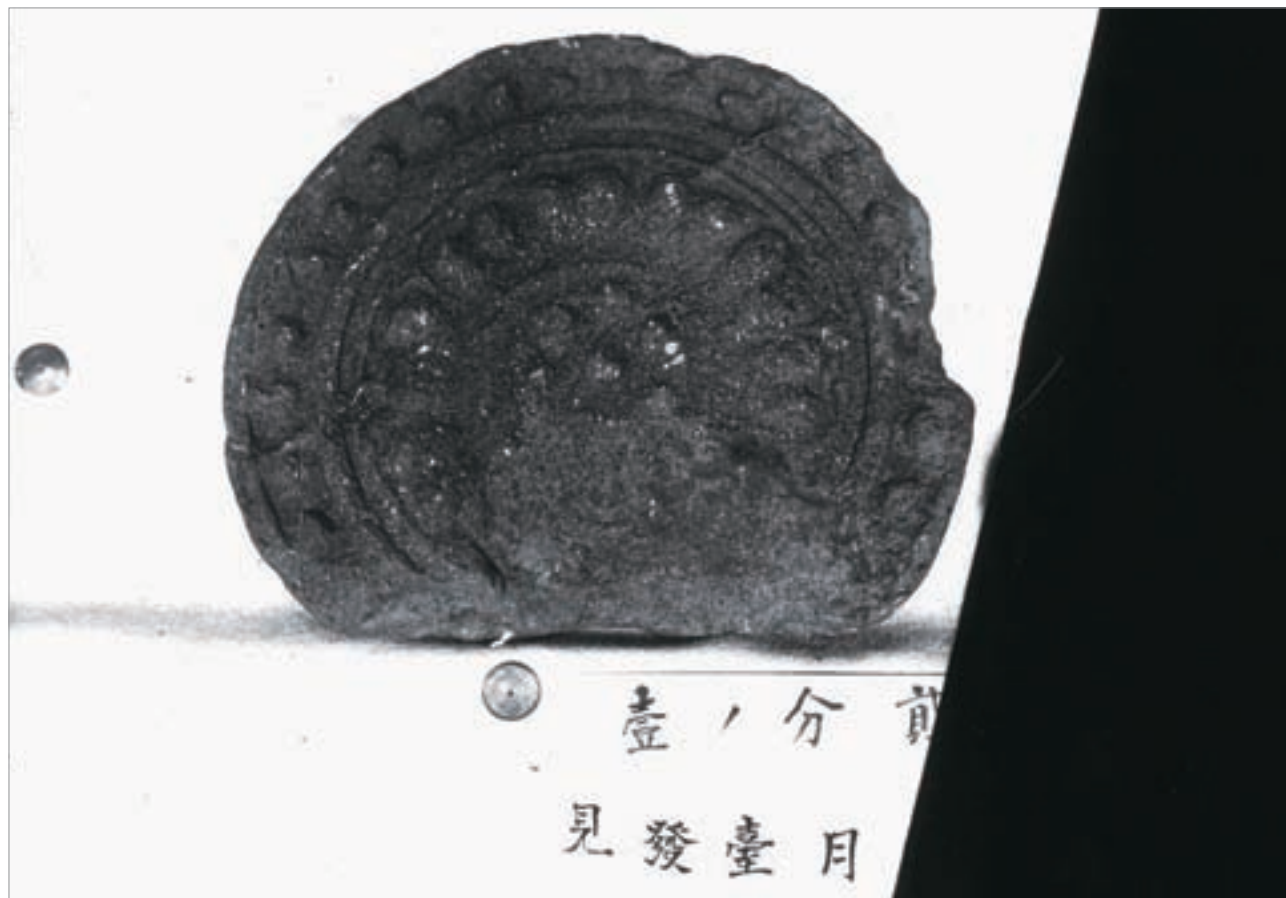
1804년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1806(?))가 그린 <기로세연계도>에서 보이듯, 만월대는 고려 멸망 이후에도 개성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개성의 유지有志들은 뜻을 모아 개성보승회開城保勝會를 조직하여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의 자취를 지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만월대는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만월대를 정식으로 발굴한 적은 없다. 하지만 1916년 구적舊蹟 보호를 명분으로 만월대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지표조사를 통해 회경전會慶殿 터를 비롯한 일부 건물터를 파악하면서 상당량의 유물을 수습했다. 그리고 1935년 고적 제15호 '개성만월대開城滿月臺'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 만월대 출토 연화문蓮華文 수막새편

건판23337

원판번호 無518-11

일제강점기 당시 만월대에서 수습된 고려시대의 연꽃무늬 수막새편이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에는 만월대에서 수습되었다는 기록이 붙은 기와, 도자기, 석물 등을 촬영한 것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는 『조선고적도보』 수록을 위해 윤곽선을 따라 칠을 해서 유물 자체를 강조한 유리건판도 있다.



## 만월대 출토 수막새편

건판24836

원판번호 無671-3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공과대학工科大学 소장





19

### 만월대 출토 연화문 수막새

건판23263

원판번호 無503-13

좌: 촬영 당시 개성보승회 소장

우상, 우하: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李王家博物館 소장



20

### 만월대 출토 연화문 수막새

건판23325

원판번호 無516-4

좌: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우: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21

**만월대 출토 당초문 唐草文  
암막새편**

건판24837

원판번호 無671-4



22

**만월대 출토 당초문 암막새편**

건판30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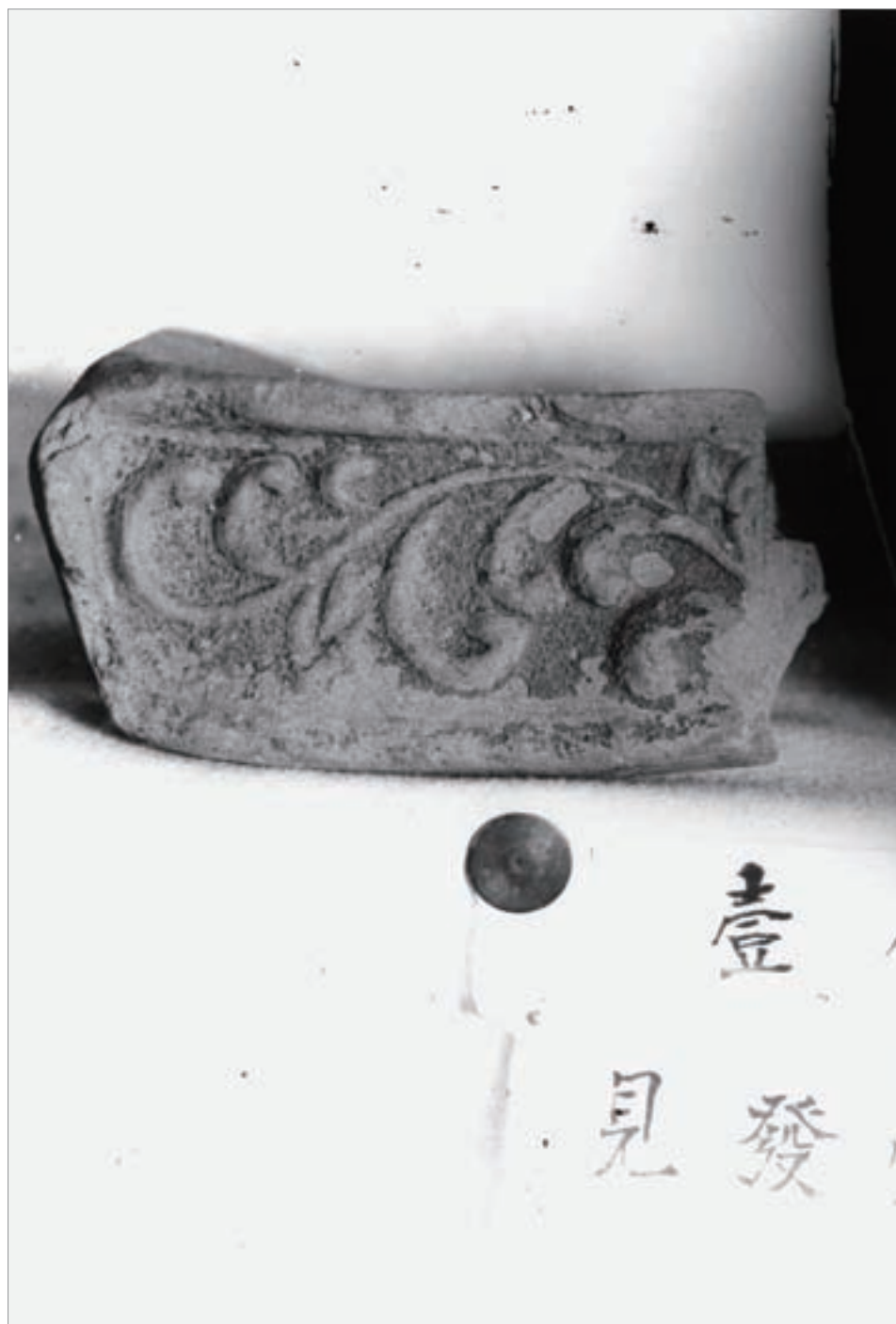
원판번호 無1146-13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  
調査 小半切)



# 만월대 출토 당초문 암막새편

건판37530

원판번호 無541-3 (격납상자제목: 없음)



24

**만월대 출토**  
**초화문草花文 암막새편**

건판23256

원판번호 無503-6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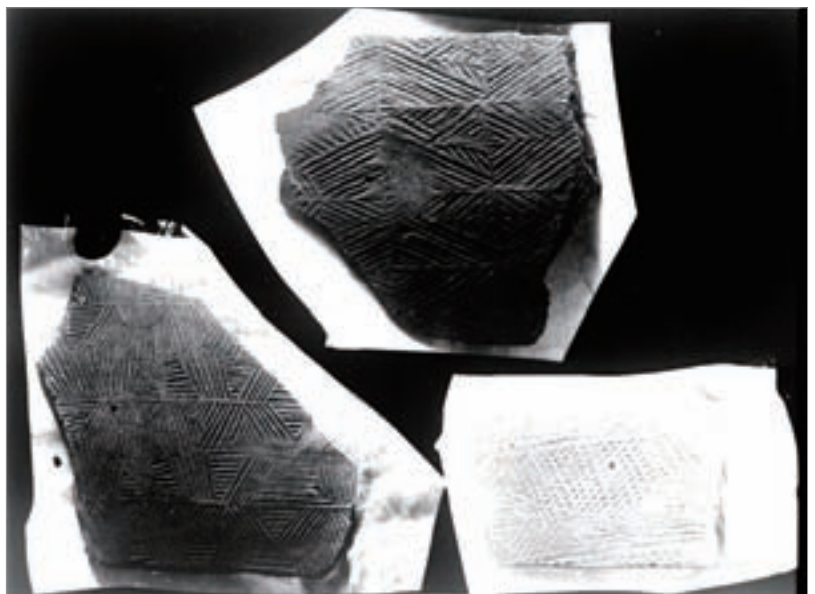
25

**만월대 출토 기와편**

건판23253

원판번호 無503-3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 소장





# 만월대 출토 초화문 기와편

건판25493

원판번호 無731-15

이 초화문, 곧 풀꽃무늬 기와 조각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속 많은 유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27

## 만월대 출토

### 귀목문 鬼目文 암막새

건판24838

원판번호 無671-5



28

## 만월대 출토 귀목문 수막새

건판24839

원판번호 無671-6

귀신의 눈 같다고 하여 귀목 鬼目 무늬, 또는 햇  
무리를 닮았다 하여 일훈 日暈 무늬라고도 하  
는 동그라미 무늬의 막새기와이다. 고려시대  
의 중요 건물터에서 많이 출토되어, 당시 유행  
했던 무늬 중 하나로 추정된다.



**만월대 출토 귀면문鬼面文 수막새**

건판24840

원판번호 無671-77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 만월대 출토 기와편

건판37098

원판번호 無505-4 (격납상자 제목: 없음)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용마루에서 추녀로 내려오는 지붕선 위에 얹히는 장식기와인 잡상雜像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물을 침범할지도 모를 잡귀를 막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다.



### 참고

## 만월대 출토 기와와 벽돌

고려

높이 20.5cm(왼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K977, K978)



©국립중앙박물관

**만월대 출토 치미鵝尾편**

건판24915

원판번호 無679-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기와지붕 위 용마루 끝에 얹히는 장식기와로  
'술개의 꼬리'라는 뜻이다.

궁궐이나 불교 사찰 같은 고급 건축에 주로 쓰였다.







**만월대 출토 벽돌**

건판24909

원판번호 無679-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 만월대 출토 벽돌

건판24910

원판번호 無679-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만월대 출토 벽돌**

건판24912

원판번호 無679-4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 만월대 출토 벽돌

건판24913

원판번호 無679-5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6

### 만월대 출토 철창鐵槍·철정鐵釘

건판24911

원판번호 無679-3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만월대에서는 기와나 전돌뿐만 아니라 철제 나비장이나 못, 경첩 같은 다양한 건축 자재도 발견되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고려 건축 연구에 귀한 자료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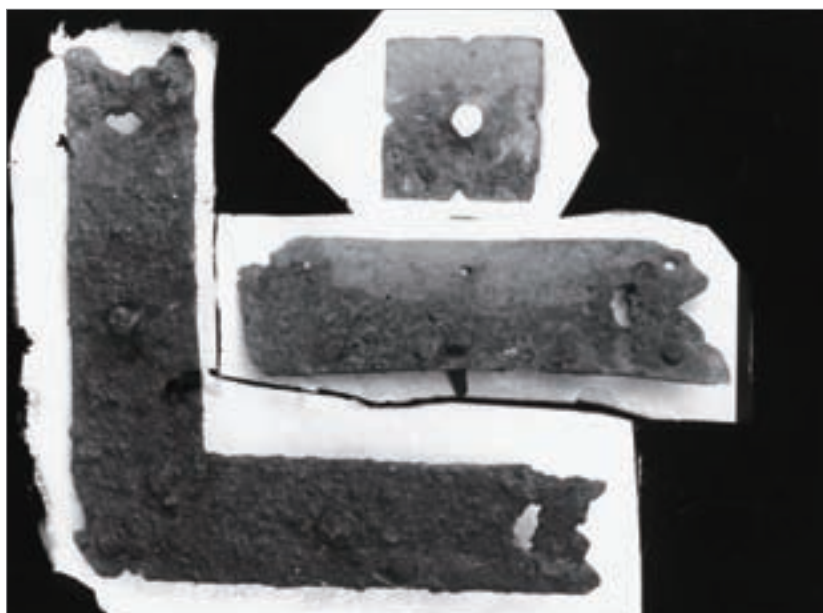
37

### 만월대 출토 철제 장식

건판24918

원판번호 無679-10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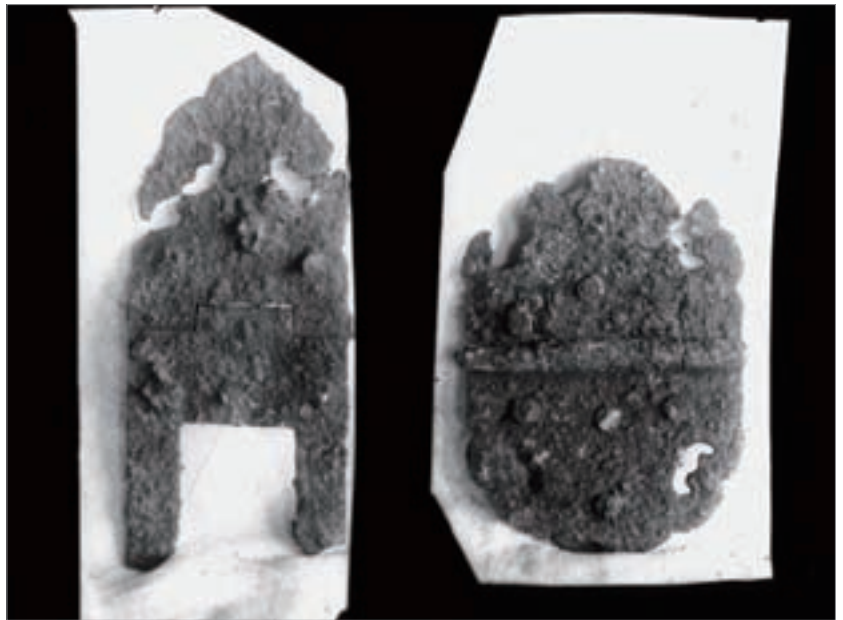
38

### 만월대 출토 철제 장식

건판24919

원판번호 無679-1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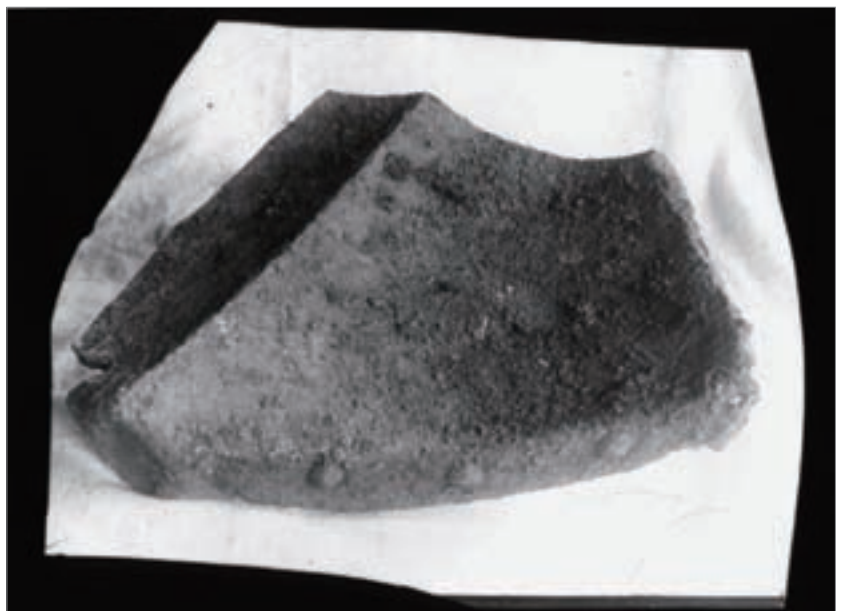
39

### 만월대 출토 철제 옥개屋蓋편

건판24920

원판번호 無679-1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 만월대 출토 청자상감 원숭이무늬 편호扁壺

건판37162

원판번호 無574-5 (격납상자제목: 없음)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開城府立博物館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106)

세조가 물기를, “금으로 그린 것은 그릇을 단단하게 하려는 것이 나?”라고 하자, <조인규> 대답하기를, “단지 채색을 베풀 것일 뿐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세조가 다시> 말하기를, “그 금은 다시 쓸 수 있더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자기는 깨지기 쉽고 금도 또한 허물어지니, 어찌 다시 쓸 수 있겠나이까?”라 하였다.

『고려사』 권 105, 열전列傳 18 조인규

1933년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13세기의 고려청자로, 상감한 무늬 주변에 금을 입혀 화려하게 장식한 화금書金 청자이다. 몸통의 편평한 부분에 마름꽃모양[菱花形]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두 손으로 복숭아를 받쳐 들고 나무 밑에 앉은 원숭이와 갈대 따위의 무늬를 백상감했다.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조인규趙仁規(1227~1308)라는 인물이 원元 세조 쿠빌라이(재위 1260~1294)에게 화금자기書金磁器를 바쳤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항아리는 그 기록을 증명하는 실물 자료다.



참고

**청자 상감 원숭이무늬 편호 靑磁象嵌樹下猿文金彩扁壺**

고려 13세기

현재 높이 2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106)



©국립중앙박물관

**만월대 출토 청자상감 원숭이무늬 편호편**

건판23984

원판번호 無600-1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106)





## 만월대 출토 항아리

건판24916

원판번호 無679-8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43

**고려 충렬왕비忠烈王妃 제국공주齊國公主 고릉高陵 전경**

건판4670

원판번호 160493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1916년 촬영

옛날 부소갑扶蘇岬을 유쾌히 한 번 올랐었는데	憶昔扶蘇快一登
백 년의 감개무량한 마음 누굴 위해 더하였던지	百年感慨爲誰增
격구 치던 터에 지는 해는 단풍나무에 묻히고	毬庭日落埋紅樹
임금 지나던 길엔 봄이 와 등나무 길게도 자랐네	輦路春回長碧藤
낡은 집엔 사람 없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더니	老屋無人陰是鬼
여러 왕릉은 불타서 스님의 머리처럼 반들대네	諸陵有燒禿於僧
장단長湍의 물로도 고려의 한을 씻을 수 없나니	長湍不洗前朝恨
술동이 앞에 두고 술이나 끝없이 마셔야겠네	須借樽前酒似澆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송경松京에서 옛일을 생각하면서 영천경永川卿을 보내다〉



## 가. 고려 사람의 마지막 쉼터 - 고려 능묘의 옛 모습

---







44

## 고려 명종明宗 지릉智陵 원경

건판4655

원판번호 160478

경기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1916년 촬영

고려시대, 왕실과 관료계층을 포함한 지배층들은 죽고 나서 대개 수도 개경 주변에 묻혔다. 이들은 개경 주변의 산하에 묻히면서, 죽은 뒤의 삶이 평안하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의 무덤은 황폐해져갔고,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의 것이었는지조차 차츰 잊혀져갔다. 고려를 다스렸던 국왕의 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 촬영한 개성의 고려시대 능과 묘들은 그렇듯 허물어져갔던 옛 왕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고려 세조世祖 창릉昌陵 전경

건판30330

원판번호 無1130-1 (격납상자제목: 大正 年度)

경기 개성군 하남면 창릉리

191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 조사

고려 태조의 아버지인 세조 왕릉王隆 또는 龍建의 능이다. 고려 왕실은 국난國難이 일어날 때마다 태조의 재궁梓宮(관)과 함께 세조의 재궁을 모시고 피난을 갈 정도로 이 능을 중하게 여겼다.





## 고려 태조太祖 현릉顯陵 전경

건판37552

원판번호 無1160-2 (격납상자제목: 없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王建(재위 918~943)과 그의 왕비 신혜왕후 神惠王后 유씨柳氏가 묻힌 능이다. 현재의 능은 1993년 북한 정권에 의해 개건改建되었는데, 재실齋室 마당에서 담 너머의 정자각 丁字閣과 비각, 능상陵上을 촬영한 이 유리건판 사진은 그 이전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재실 기둥에 걸린 주련柱聯 속 '동토대방삼한통합東土大方三韓統合' 곧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삼한三韓을 통합하였다는 글귀가 이채롭다.



**고려 태조 현릉의 장명등長明燈과 혼유석魂遊石**

건판4330

원판번호 160150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태조 현릉 전경

건판27245

원판번호 無880-16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태조께서는 아랫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여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힘을 다하였고, 사람들에게 성심으로 대접하여 멀든 가깝든 모두가 그를 따랐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덕은 천성에서 나왔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 왕업을 처음 창건하여 모든 것을 고쳐 시작하였으니 비록 예악(禮樂)은 미처 제정하지 못했으나, 그 큰 규모와 원대한 제책이며 깊은 인덕과 후한 은택은 진실로 이미 500년의 국맥(國脈)을 배양하였던 것이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 태조 현릉 호석護石 십이지상(말午)**

건판30332

원판번호 無1130-3 (격납상자제목: 大正 年度)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 고려 태조 현릉 호석 십이지상(원숭이申)

건판30331

원판번호 無1130-2 (격납상자제목: 大正 年度)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 고려 신성왕후神聖王后 정릉貞陵 전경

건판4703

원판번호 160524

경기 개성군 상도면 상도리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의 사촌 누이이자, 고려 태조의 다섯 번째 왕후인 신성왕후 김씨의 능이다. 고려 초의 왕위 계승전을 마무리짓고 중기 왕실을 연 현종顯宗(재위 1009~1031)이 신성왕후의 손자이다.





## 고려 신성왕후 정릉 귀부 龜趺

건판4705

원판번호 160525-2

경기 개성군 상도면 상도리

저 이끼 낀 귀부에는 분명 신성왕후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꽃혀 있었을 것이다.



# 전傳 고려 혜종惠宗 순릉順陵

건판27244

원판번호 無880-15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송도면

고려 2대 왕인 혜종惠宗(재위 943~945)이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능이다. 혜종은 고려 태조의 큰아들로 성은 왕포, 이름은 무궤이다. 943년 왕위에 올라 2년간 재위하였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만드셨으니	天造我家
혹시라도 조정에 오시지 않으랴	或不來庭
태조를 옆에서 도우시어	左右太祖
궁시 <sub>弓矢</sub> 를 경영하셨네	弓矢經營
종묘에서 덕을 살펴보니	觀德在廟
영령 <sub>英靈</sub> 께서는 늠름하시도다	凜然英靈
전쟁을 평정하고 태평을 여셨으니	濟屯開泰
영원히 황제의 성명 <sub>聖明</sub> 을 우리르리	永仰皇明

『고려사』 권70, 악지樂志1, 아악雅樂, 태묘악장太廟樂章, 혜종 제2실





## 고려 정종定宗 안릉安陵

건판27312

원판번호 無885-2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청교면

고려 3대 왕인 정종(재위 945~949)이 묻힌 능이다. 정종은 고려 태조의 아들이자 혜종의 이복동생으로, 혜종 말기의 왕위계승전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올랐지만 서경西京 천도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재위 4년 만에 사망하였다.





## 고려 대종戴宗 태릉泰陵

건판34319

원판번호 中38-5 (격납상자제목: 古墳群)

대종은 고려 태조의 아들이자 6대 성종成宗(재위 981~997)의 아버지로, 성은 왕포, 이름은 옥旭이다. 둘째 아들 개령군開寧君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왕으로 추존追尊되고 선경宣慶이란 시호를 받았다.



## 고려 대종 태릉 십이지상(쥐子)

건판4681

원판번호 160503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광종光宗 헌릉憲陵

건판27314

원판번호 無885-4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영남면 심천리

고려 4대 왕인 광종(재위 949~975)의 능인 헌릉이다. 광종은 혜종과 정종의 아우로, 26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광덕光德, 준풍峻豐 등의 연호를 사용하고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실시, 과거제 도입 등의 업적을 남겼지만, 재위 말기에는 왕권 강화에 집착해 왕족과 개국공신 세력을 대거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펼쳤다.





## 고려 경종景宗 영릉榮陵

건판27315

원판번호 無885-5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진봉면 탄동리

고려 5대 왕인 경종(재위 975~981)이 묻힌 능 영릉이다. 경종은 4대 광종과 대목왕후大穆王后 황보씨皇甫氏의 맏아들이다. 고려 특유의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를 처음 제정하였으나, 광종 말기의 숙청을 보복하도록 허용하여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말년에는 놀이에 빠져 지냈다.



## 고려 경종 영릉 호석과 석란石欄, 석수石獸

건판27316

원판번호 無885-6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진봉면 탄동리





# 고려 경종 영릉 석인石人

건판4708

원판번호 160528

경기 개성군 진봉면 탄동리





## 고려 현종顯宗 선릉宣陵

건판27317

원판번호 無885-7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재위 1009~1031)의 능이다. 현종의 이름은 순詢, 자는 안세安世이며, 아버지는 태조太祖의 여덟번째 아들인 안종安宗 왕욱王郁, 어머니는 경종의 비 효숙왕후 황보씨孝肅王后 皇甫氏이다. 처음에는 승려가 되어 고초를 겪다가 강조康兆의 정변으로 목종穆宗이 폐위된 뒤 1009년 2월에 왕위에 올랐다. 재위 중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까지 파천播遷하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고려 현종 선릉 석인

건판27319

원판번호 無885-9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七陵群 제1릉

건판4693

원판번호 160514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고려 멸망 이후 개성의 고려 왕릉들은 돌보는 손길을 잃어갔다. 급기야는 그 주인마저 알 수 없게 된 능들이 조선 초기부터 생겨났다. 1665년(조선 현종 6)에는 예조좌랑을 개성에 보내 고려 왕릉을 봉심奉審하게 하였는데, 당시 고려 왕릉 근처에 밋대로 논밭을 만들거나 명당을 노려 투장偷葬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릉급으로 추정되지만 누구의 능인지 알 수 없게 된 능들은 주로 동네 이름을 따거나(냉정동冷井洞, 월로동月老洞 등) 모여 있는 무덤의 숫자를 따서(칠릉七陵 등) 일컫게 되었다.





**경기 개성 칠릉동七陵洞 고려 왕릉 제2릉 앞 석물**

건판37565

원판번호 無1160-15 (격납상자제목: 없음)



65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3릉 전경**

건판37572

원판번호 無1160-22 (격납상자제목: 없음)



66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4릉 후경**

건판37559

원판번호 無1160-9 (격납상자제목: 없음)



67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제5릉과 제6릉**

건판4692

원판번호 160513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위에 있는 무덤이 제5릉, 아래에 있는  
무덤이 제6릉이다.



68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근경**

건판4689

원판번호 160510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석인

건판30345

원판번호 無1131-4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調査)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장명등

건판30348

원판번호 無1131-7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調査)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 고려 숙종肅宗 영릉英陵 전경

건판4659

원판번호 160482

경기 장단군 진서면 판문리

고려 15대 왕 숙종(재위 1095~1105)의 능이다. 초명은 희熙이나 뒤에 옹顓으로 고쳤으며, 자는 천상天常이다. 문종文宗의 3남이며 순종順宗·선종宣宗의 동복 아우이다. 비妃는 유홍柳洪의 딸 명의태후明懿太后 유씨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과단성이 있었고, 오경五經·제자서諸子書·사서史書 등에 해박하였다. 문종의 큰 기대를 받아 “뒷날에 왕실을 부흥시킬 자는 너로구나.”라는 평을 받았다. 1065년(문종 19) 2월 계림공鷄林公에 봉해졌다. 친조카인 헌종獻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 지 1년 뒤에 일어난 이자의李資儀의 난을 진압하며 왕위를 넘겨받아, 1095년에 즉위하였다. 해동통보海東通寶의 주전鑄錢, 별무반別武班 창설 등의 업적을 남겼다.





**고려 숙종 영릉 석수**

건판4660

원판번호 160483

경기 장단군 진서면 판문리



## 고려 명종明宗 지릉智陵 근경

건판4654

원판번호 160477

경기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고려 19대 임금인 명종(재위 1170~1197)의 능이다. 명종의 이름은 호흠이며, 자는 지단<sub>지트</sub>이고, 인종<sub>인종</sub>의 셋째 아들이며 의종<sub>의종</sub>의 친동생이다. 1170년(의종 24) 일어난 무신정변으로 즉위해 27년간 왕위에 있었다. 1197년(명종 27) 최충헌<sub>최충헌</sub>에 의해 폐위된 뒤 1202년(신종 5) 사망하여 여기 묻혔다. 『고려사』에 따르면 1255년(고종 42)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 지릉이 파손되자 판사<sub>판사</sub>천사<sub>천사</sub> 안방열<sub>안방열</sub>을 보내 수리하였다고 한다.





74

**경기 개성 월로동月老洞**

**제1릉 전경**

건판4699

원판번호 160520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75

**경기 개성 월로동 제1릉 석인**

건판4700

원판번호 160521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경기 개성 월로동 제2릉 전경

건판4696

원판번호 160517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경기 개성 월로동 제2릉 석인

건판4697

원판번호 160518



## 고려 원종元宗 소릉韶陵 전경

건판30336

원판번호 無1130-7 (격납상자제목: 大正 年度)

경기 개성군 영남면 소릉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내가 부족한 덕으로 외람되어 종묘를 지킨 지 15년이 되었는데, 책임이 막중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병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더 이상 직무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국왕의 자리는 잠시도 비울 수 없으며, 나의 원자元子(충렬왕)는 지극한 인덕으로 인망을 모았고 현철한 성품은 하늘에서 타고났다. 지금 입조入朝를 위하여 원[上國]에 가 있어서 아직 직접 책봉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너희 신민臣民은 사왕嗣王의 명령을 받들어 선왕의 위업을 훼손하지 마라. 상복喪服은 달[月]로 바꾸어 계산하는 복服으로 계산하여 3일만 입고 벗을 것이며, 산릉山陵의 규모와 시설은 검소하게

고려 24대 임금인 원종(재위 1260~1274)의 능이다. 자는 일신日新이며, 휘諱는 정禧이다. 고려 23대 고종高宗의 큰아들이다. 몽골과 화친을 이루어내어 39년간의 강화江華 천도를 끝내고 개경 환도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삼별초三別抄의 항쟁, 일본 원정 준비, 결혼도감 설치 등으로 인해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하도록 힘쓰라. 전국의 진鎮·번藩·주州·목牧의 관리는 주관하는 지역을 넘어서지 말며, 원元 조정에서 정한 상례 제도[哀制]를 준수하고 과거科擧를 보거나 혼인하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시행하라. 아아! 그대들 재상과 대신 및 모든 관리들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여 몸을 상하지 말 것이며, 오로지 한 마음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도록 하라.”

『고려사』 권27, 세가世家 27 원종15년 6월





## 고려 원종 소릉 석인

건판30337

원판번호 無1130-8 (격납상자제목: 大正 年度)

경기 개성군 영남면 소릉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 고려 충렬왕비 忠烈王妃 제국공주 齊國公主 고릉 高陵 좌측면

건판27258

원판번호 無881-13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고려 제25대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 齊國大長公主의 능이다. 제국대장공주는 1259년에 원 세조 쿠빌라이의 딸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홀도로게리미실 忽都魯揭里迷失이다. 1274년(원종 15) 5월에 충렬왕과 혼인하여 함께 고려에 들어왔다. 1275년 원성공주 元成公主로 봉해졌고, 1276년(충렬왕 2) 9월에 충선왕 忠宣王을 출산하였다. 1294년(충렬왕 20)에 원 성종 成宗이 안평공주 安平公主로 봉하였고, 1297년(충렬왕 22) 5월에 원에서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현성사 賢聖寺에서 39세로 사망하였다.



## 고려 충렬왕비 제국공주 고릉 석인

건판34322

원판번호 中38-8 (격납상자제목: 古墳群)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고려 충렬왕비 제국공주 고릉 십이지상(말午)**

건판4671

원판번호 160494-1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 전傳 고려 충혜왕忠惠王 영릉永陵 전경

건판4710

원판번호 160530

경기 개성군 진봉면 봉동리

고려 28대 임금 충혜왕(재위 1330~1332; 1339~1344)의 능이라고 전하는 무덤이다. 충혜왕의 이름은 정楨이며, 몽골 이름은 보탑실리寶塔失里이다. 고려 27대 임금 충숙왕忠肅王과 명덕태후明德太后 홍씨洪氏의 장남이며, 고려 31대 임금 공민왕恭愍王의 형이다.

사신史臣은 찬贊하노라.

“충혜왕은 영리한 재능을 좋지 않은 데에 썼으며, 악소배惡小輩들을 가까이하고 주색에 빠졌고,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하며 방자하였다. 안으로는 부왕父王에게 꾸짖음을 당하였고, 위로는 천자天子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수의 몸으로 유배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은 것도 마땅하다. 비록 늙은 신하 이조년李兆年 한 명만이 간곡하게 충언忠言을 올렸지만, 그마저 듣지 않았으니 어찌 하겠는가?”

『고려사』 권36, 세가世家 36 충혜왕



## 경기 개성 명릉동明陵洞 고려 왕릉 제1릉 충목왕忠穆王 명릉明陵

건판34239

원판번호 中27-7 (격납상자제목: 古墳)

고려 제29대 임금인 충목왕(재위 1344~1348)의 능이다. 충목왕의 이름은 혼昕이며, 몽골 이름은 팔사파타아지八思麻剌兒只이다. 고려 28대 충혜왕忠惠王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덕녕공주德寧公主이다. 어려서 볼모로 원나라에 가 있다가 1344년 충혜왕이 죽자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왕위에 오른 뒤 그의 어머니 덕녕공주가 섭정으로 국정을 도왔는데, 충혜왕의 측근 폐신廢臣들을 숙청하고 정치도감整治都監과 진휼도감賑恤都監을 설치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 경기 개성 고려 충목왕 명릉군明陵群 제2릉

건판27260

원판번호 無881-15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 경기 개성 고려 충목왕 명릉군 제3릉

건판4673

원판번호 160495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고려 공민왕비恭愍王妃 노국공주魯國公主**  
**정릉正陵·공민왕恭愍王 현릉玄陵 전경**

건판4677

원판번호 160499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고려 31대 왕 공민왕恭愍王(재위 1351~1374)과 그의 비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1365)의 능이다. 공민왕은 원의 수도 대도大都에 오래 있으면서 원의 쇠퇴를 목격하고, 고려의 왕이 되자 변발과 호복胡服을 금지하고 기철奇轍 등의 친원과親元派를 숙청하는 등 과감한 개혁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잦은 반란과 홍건적紅巾賊·왜구倭寇의 침입 등으로 민생이 파탄되었으며, 재위 후 반기에 등용한 신돈辛旽의 실각 등으로 정국이 혼미해진 끝에 1374년 측근에 의해 시해되었다. 노국대장공주는 원 황실의 공주로, 이름은 보탑실리寶塔失里이다. 1349년(충정왕 1)에 원에서 숙위宿衛하던 공민왕과 혼인하여 승의공주承懿公主로 책봉되었고, 공민왕이 즉위하자 함께 고려로 돌아왔다. 성품이 조용하고 단아하였으며, 15년 동안 고려의 왕비로 있으면서 다른 몽골 출신 왕비와는 달리 고려 왕비로의 책무를 다하였으며 공민왕의 개혁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1365년(공민왕 14) 2월에 난산難産으로 사망하였다.





## 고려 공민왕 현릉

건판27246

원판번호 無881-1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공민왕은 크게 슬퍼하며 능과 영전影殿을 크게 지을 것을 명하였고, 손수 공주의 영정을 그려 제를 지냈다. 나아가 공주의 능 옆에 자신의 능도 미리 만들어놓고 두 능의 현실玄室 사이에 혼이 드나들 구멍을 뚫도록 하였다. 이러한 쌍릉雙陵은 고려 왕릉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동으로 10리쯤 나가 북으로 돌아서 봉명산鳳鳴山에 들어가 현릉玄陵과 정릉正陵을 찾으니, 두 능이 한 언덕에 서로 우뚝한데... 맨 처음 광중廣中을 만들 적에 주루珠襦와 옥갑玉匣, 금오리金烏와 은기러기銀鴈 같은 물건으로 꾸며 제작함이 한 시절의 묘妙를 다하였으니, 비록 여산驪山에서 진시황릉을 쌓던 역사役事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으리라.

유호인俞好仁(1445~1494), 「유송도록遊松都錄」 중에서



## 고려 공민왕 현릉 호석의 문양조각

건판27254

원판번호 無881-9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공민왕 현릉 호석의 문양조각

건판27255

원판번호 無881-10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공민왕 현릉 장명등

건판28273

원판번호 無957-8 (격납상자제목: 遺蹟 王陵)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문석인 文石人

건판28274

원판번호 無957-9 (격납상자제목: 遺蹟 王陵)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무석인 武石人

건판28269

원판번호 無957-4 (격납상자제목: 遺蹟 王陵)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경기 개성 두문동杜門洞 고려 분묘 제1호분 전경

건판30353

원판번호 無1131-12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調査)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3호분**

건판4684

원판번호 160506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경기 개성 수락암동水落岩洞 제1호분**

건판34256

원판번호 中29-8 (격납상자제목: 石物·墓誌銘·古墳·壁書)





## 경기 장단 법당방<sub>法堂坊</sub> 고분군 전경

건판23099

원판번호 無488-9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강필운<sub>康弼雲</sub> 발견

이홍직<sub>李弘植</sub>·김원용<sub>金元龍</sub> 조사

이건중<sub>李健中</sub> 촬영

해방 이후 국립박물관이 처음으로 발굴조사에 나선 고려 고분군으로, 8기의 고분 중 2호분 안에서 십이지상<sub>十二支像</sub>과 천문도<sub>天文圖</sub> 벽화가 발견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대체로 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에서 사진촬영을 담당했던 이건중(1916~1979)은 국립박물관 사진기사로 경주 호우총 발굴(1946) 등에 참여해 중요한 기록사진을 많이 남겼으며, 국전 사진분과 심사위원·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사진작가였다.



## 나. ‘도굴’, 그리고 ‘발굴’ - 파헤쳐진 고려 능묘

---

98

###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3호분

건판4685

원판번호 160507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기름진 전답과 오래 된 무덤들도 군용지軍用地 라 일컬으며  
땀을 흘리고 파헤쳐놓아 화가 백골白骨 에까지 미쳤으니...  
膏沃田畝 古舊墳墓 稱託軍用地 播標拔掘 禍及白骨

안중근安重根 (1879~1910), 『안응칠역사安應七歷史』 중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의 숭한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고려청자에 눈을 들었다. 이미 개화기부터 일본인들이 청자를 노리고 개성의 고려 왕릉을 도굴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안중근 의사가 증언하듯 특히 러일전쟁(1904~1905) 시기 일본 군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옛 무덤을 도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1916년 「보물 및 고적보존규칙(寶物及古蹟保存規則)」 등을 제정한 뒤에도 무덤을 파헤치는 이들은 별로 줄지 않았다. 여기 소개하는 유리건판 사진은 별집을 꾸셔놓은 듯 도굴꾼이 건드리고 갔던 고려시대 무덤의 참상, 그리고 그렇게 도굴된 능묘를 조사하며 사진에 남긴 고고학자들의 시선을 생생히 보여준다.





## 고려 명종 지릉 정면 도굴盜掘구덩이

건판4657

원판번호 160480

경기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 고려 명종 지릉 뒷면 도굴구덩이

건판4658

원판번호 160481

경기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1호분**

건판4682

원판번호 160504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2호분

건판4683

원판번호 160505

경기 개성군 중서면 여릉리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제7릉 내부**

건판4691

원판번호 160512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 경기 개성 전 고려 충혜왕 영릉 도굴구덩이

건판4711

원판번호 160531

경기 개성군 진봉면 봉동리





##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玄室 왼쪽 벽과 입구

건판27436

원판번호 無892-19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경기 개성군 청교면



#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 정벽正壁 십이지상(취子)

건판27433

원판번호 無892-16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경기 개성군 청교면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 정벽**

건판27426

원판번호 無892-9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경기 개성군 청교면





108

##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도굴구덩이 재발굴

건판30350

원판번호 無1131-9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調査)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당시 경기도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에 위치하고  
있던 칠릉동 고려왕릉 제7릉 조사를 위해 도굴  
꾼이 판 구덩이를 다시 발굴하는 광경이다.



109

##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도굴 후 복구상황

건판30349

원판번호 無1131-8 (격납상자제목: 其他 一般調査)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1916년 이마니시 류 조사

도굴당했던 칠릉동의 제7릉을 복구한 상태에  
서 촬영한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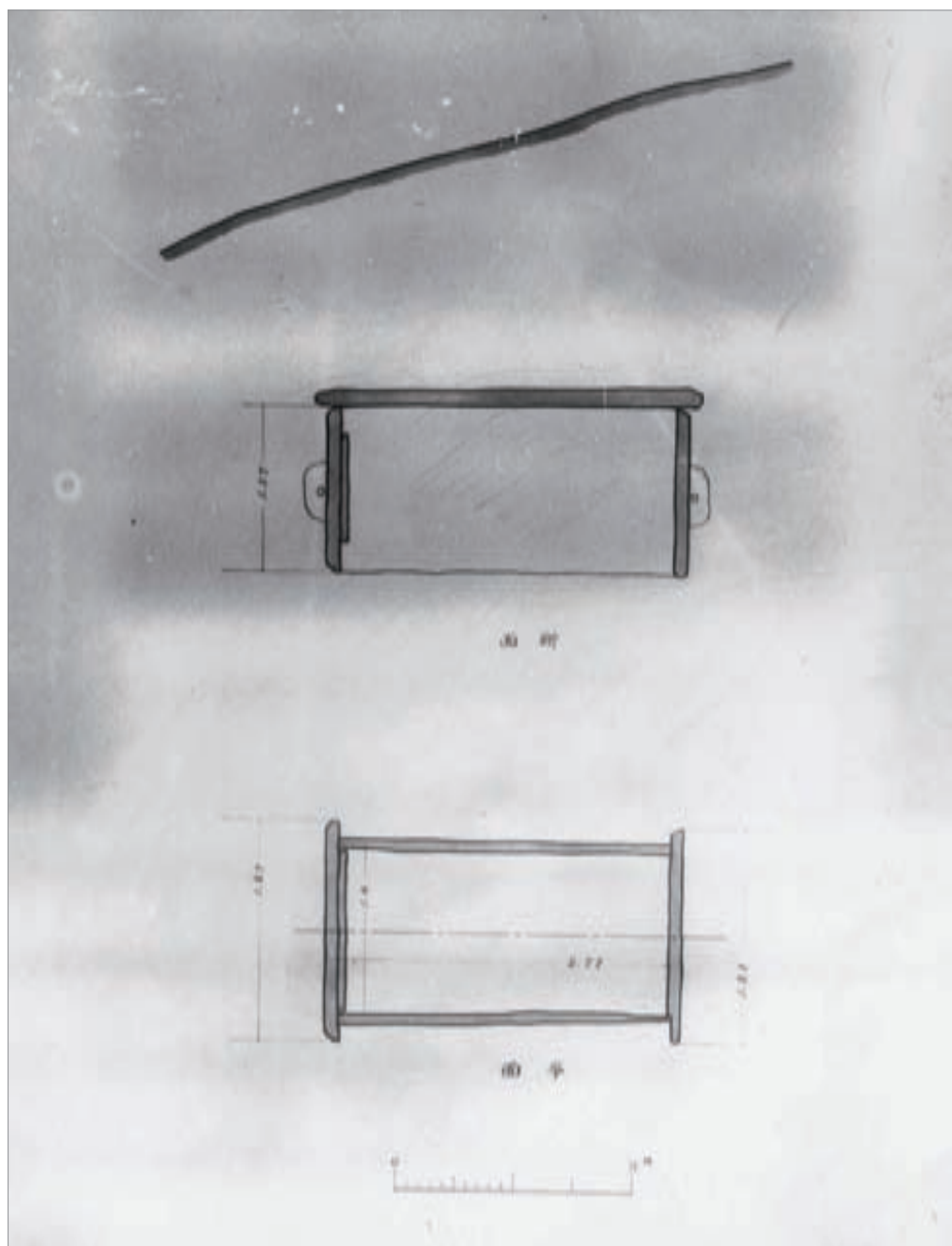
## 경기 개성 송자청묘宋子淸墓 석관 실측도

건판28067

원판번호 無940-12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第七 石棺 및 誌石)

경기 개성군 영북면

1916년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 월고리 궁녀동宮女洞에 있던 고려 후기의 무신 송자청(?~1198)의 무덤에서 나온 석관의 현장 실측도이다. 이 무덤은 야쓰이 세이이쓰, 바바 세이치로(馬場是一郎) 등이 발굴한 것으로, 고려 관료의 무덤 중에서 매우 드물게 정식 고고考古 조사를 거쳤다. 이 석관 안에서는 청자 소문素文 잔 盞·백자 소문 병·백자 정병淨瓶·청동 숟가락·중국 동전 등이 발견되었다.



**경기 개성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호석 붕괴상태**

건판36763

원판번호 無287-19 (격납상자제목: 없음)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남벽南壁**

건판23095

원판번호 無488-5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북벽北壁

건판23093

원판번호 無488-3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114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소丑)**

건판23098

원판번호 無488-8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115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동벽  
십이지상(용辰)**

건판23097

원판번호 無488-7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양未)**

건판23094

원판번호 無488-4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개戊)**

건판23092

원판번호 無488-2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흥직, 김원용 조사

이건중 촬영





##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뚜껑돌 천문도天文圖 모사도

건판23123

원판번호 無4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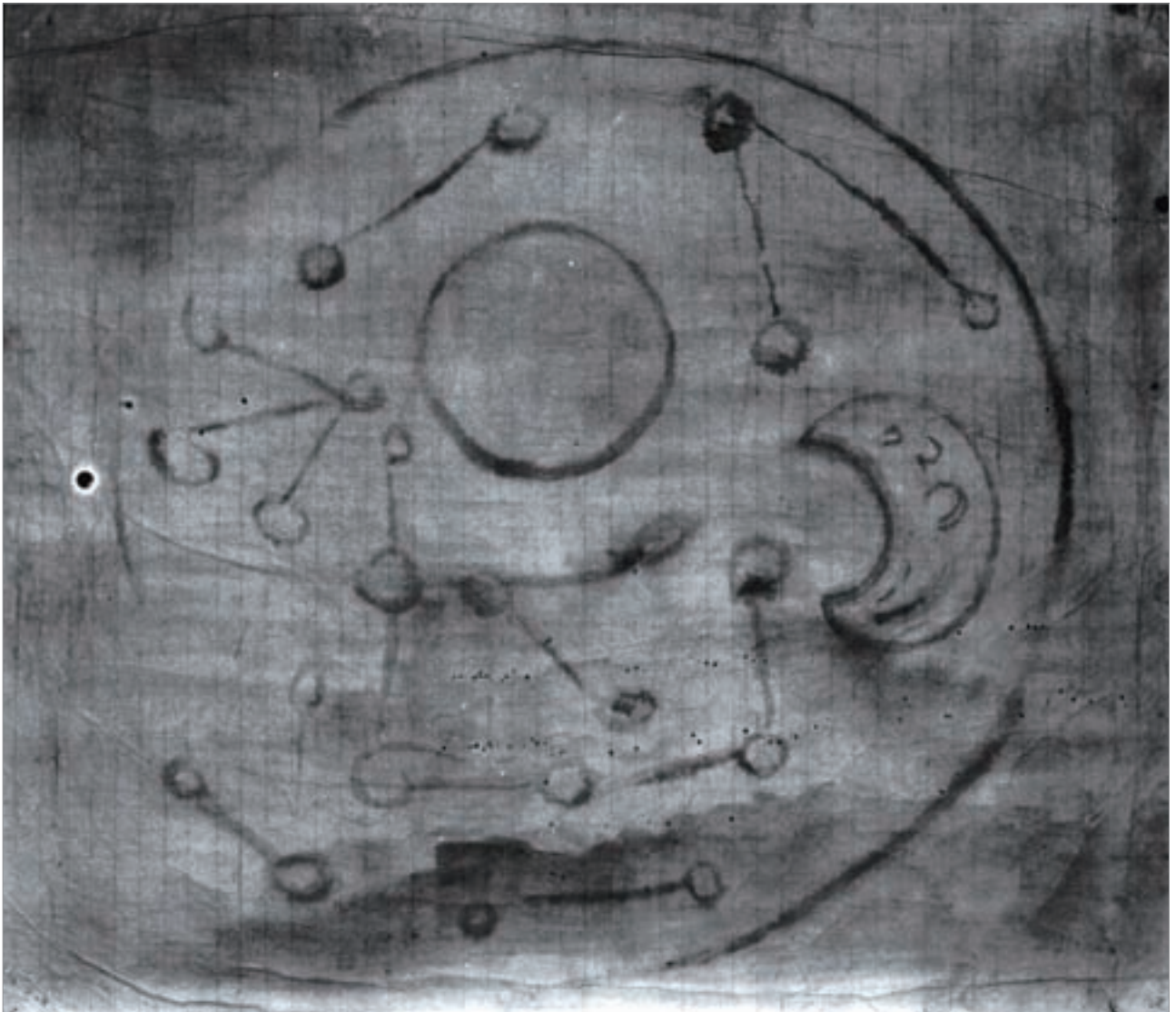
경기 장단군 진서면

1947년 이홍직, 김원용 조사

임천林泉 모사

이건중 촬영

임천(1908~1965)은 일제강점기 이래 다양한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여 복원·보수·실측 등을 도맡았던 이로, 특히 실측과 모사에 뛰어났다. 해방 이후에도 국립박물관에 소속되어 경주 호우총 발굴, 개성 벽화고분 조사, 경천사터 십층석탑 복원 등에 참여하였다.





다. 햇빛을 본 유물들 - 능묘에서 나온 고려의 물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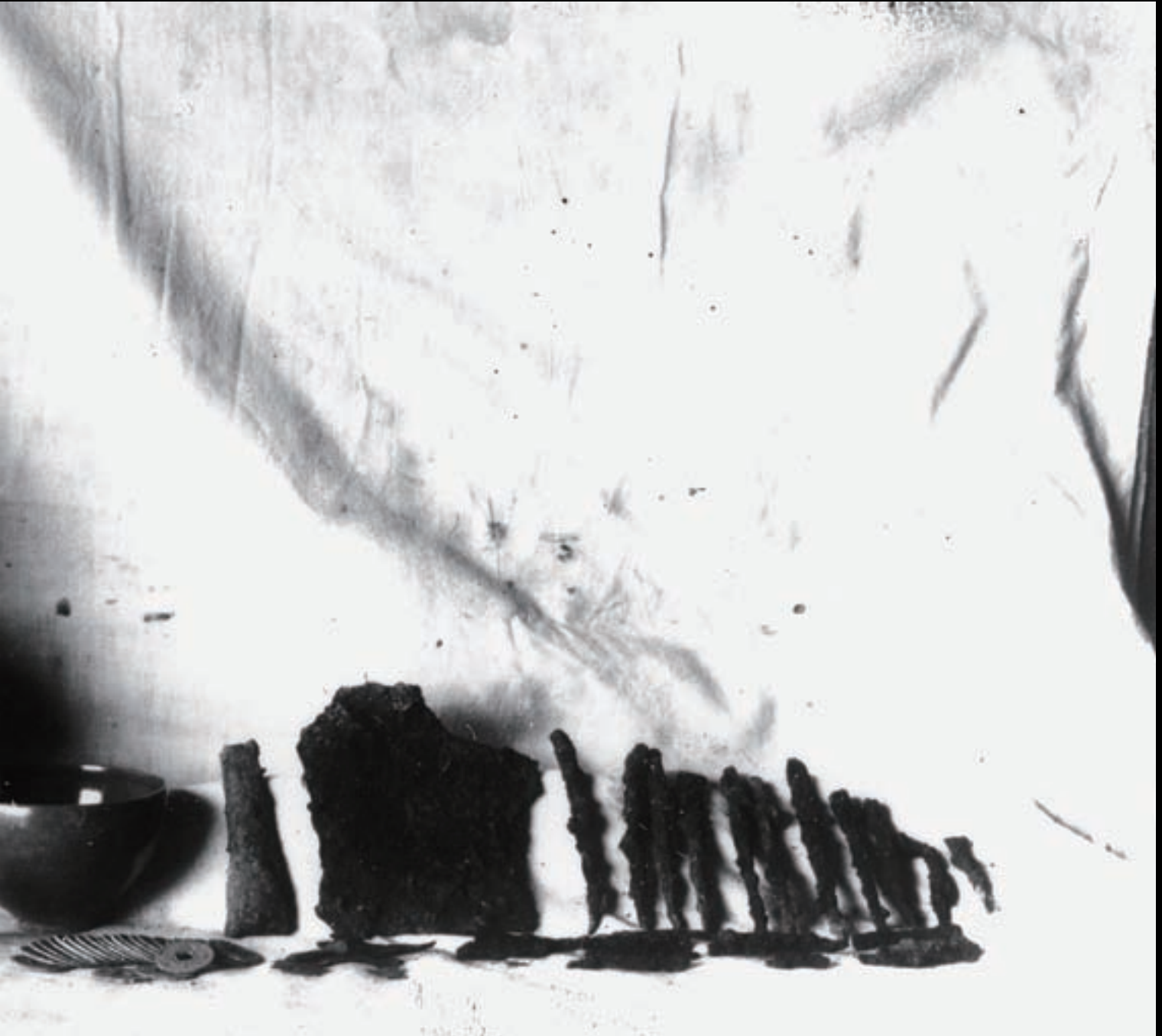
경기 개풍 궁녀동宮女洞 고분  
승안삼년명承安三年銘 석관 출토 유물

건판19677

원판번호 無175-4

1916년 야쓰이 세이이쓰·바바 세이치로 조사

도굴은 필연적으로 수백 년간 땅 속 깊이 묻혀 있던 유물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그렇게 세상과 다시 만난 유물들은 현실을 지배하는 이들의 손에, 그리고 '박물관'이란 낯선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이들은 사진기라는, 알지 못했던 존재 앞에 자신의 민낯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개성 출토"라는 이름이 붙어 유리건판 속에 남은 고려의 유물들을 만나보자.



## 고려 인종仁宗 장릉長陵 출토

### 청자과형병靑磁瓜形瓶

건판27434

원판번호 無892-17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4)

고려청자의 절정기인 12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고려 17대 임금 인종(재위 1122~1146)의 무덤인 장릉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참외모양의 몸체 아래로 받침이 치마처럼 펼쳐졌고, 높이 쪽 솟은 목 위로 입이 나팔꽃처럼 벌어졌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는 중국 송대宋代에도 나타나지만, 이 작품은 그것보다 훨씬 단정한



## 참고

### 전 인종 장릉 출토 청자 참외모양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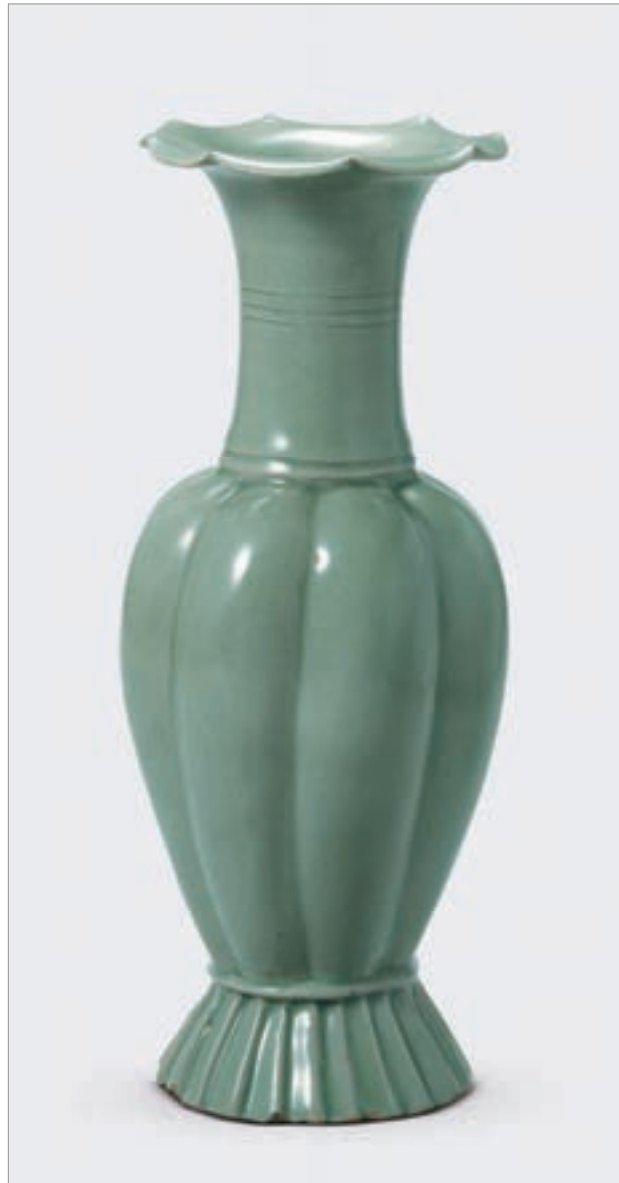
고려 12세기

높이 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4)

국보 제94호

모습을 보인다. 옅은 녹색이 감도는 유약이 균일하게 발려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따르면 당시 고급 청자의 색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翡色이라 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유색釉色 같은 색을 이르는 말이 아닐까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 전 인종 장릉 출토 동제인 銅製印

건판27435

원판번호 無892-18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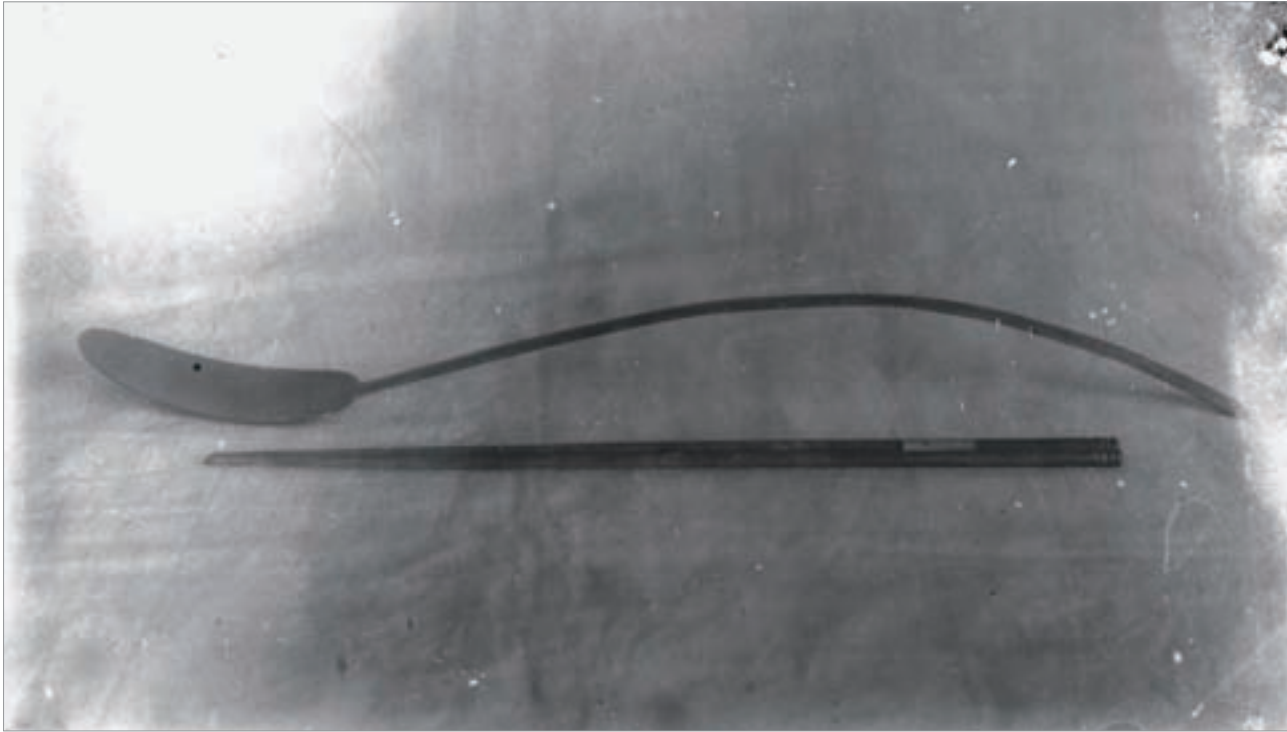
## 전 인종 장릉 출토 은젓가락과 은숟가락

건판27424

원판번호 無892-7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2)



참고

## 전 인종 장릉 출토 은젓가락과 은숟가락

고려 12세기

길이 24.2cm(젓가락), 34.1cm(숟가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2)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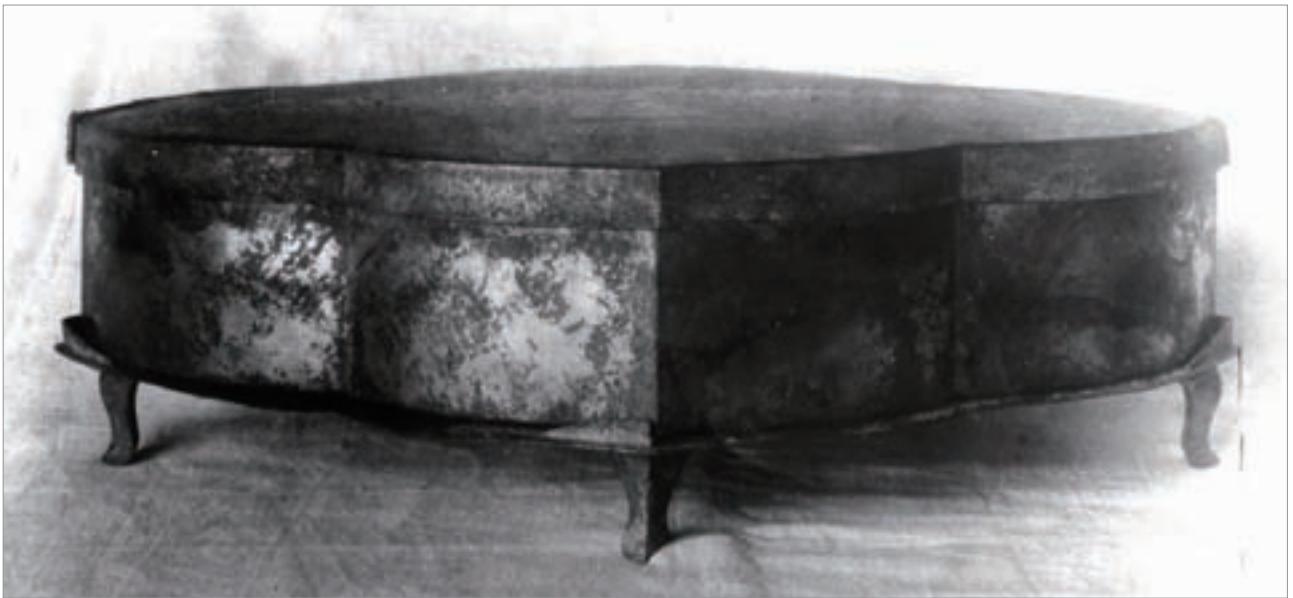
## 전 인종 장릉 출토 동관銅棺과 석함石函

건판35156

원판번호 大28-7 (격납상자제목: 古墳 및 石棺, 墓誌銘)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3)





## 명종 지릉 출토 청자발 靑磁鉢

건판36250

원판번호 無566-11 (격납상자제목: 瓦當)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5)



참고

## 명종 지릉 출토 청자 음각 연꽃잎무늬 완 盥

고려 12~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5)



©국립중앙박물관

125, 126

## 명종 지릉 출토

### 청자상감여지녕쿨무늬대접 靑磁象嵌荔枝唐草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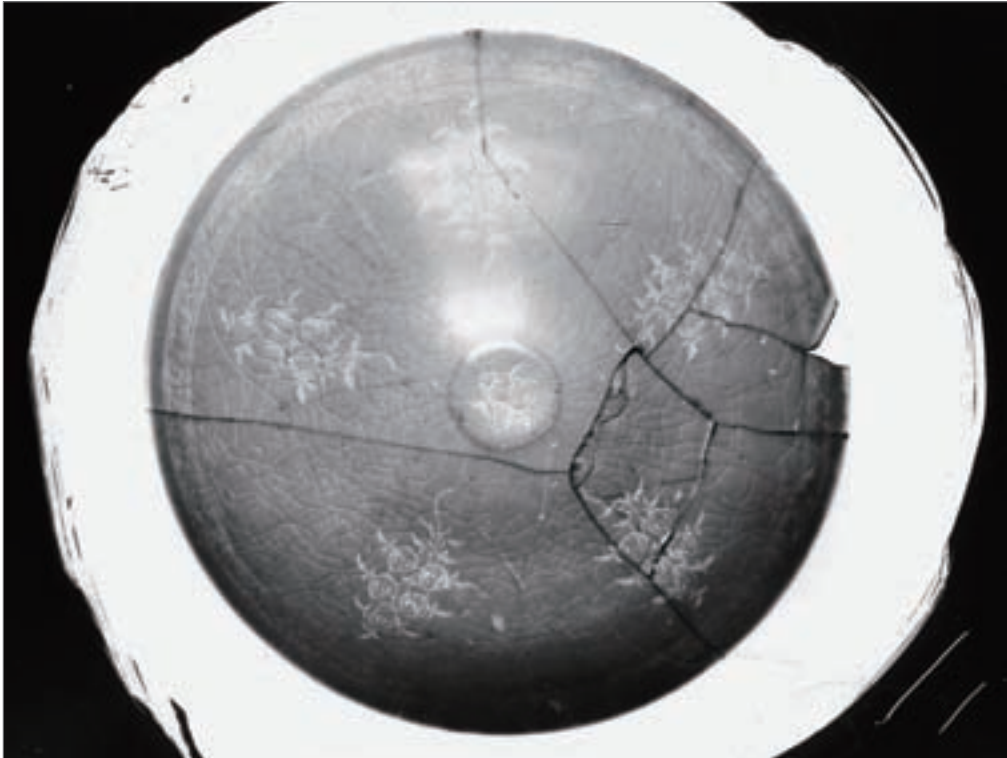
건판23552, 23553

원판번호 無559-7, 無559-8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8)

고려 명종의 지릉에서 출토된 청자 대접이다. 지릉이 1202년에 축조되고 1255년 수리되었으므로, 하한연대가 1255년임이 분명하여 고려청자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된다.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청자보다 색이 탁하지만 백상감으로 녕쿨과 여지荔枝를 새긴 기법이 능숙하여, 상감청자의 발생 시기를 짐작하게 한다.



127, 128

**명종 지릉 출토 청자타호 靑磁唾壺**

건판23710, 34800

원판번호 無571-5, 中90-7 (격납상자제목: 陶磁器)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4)





##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중 제7릉과 명종 지릉 출토 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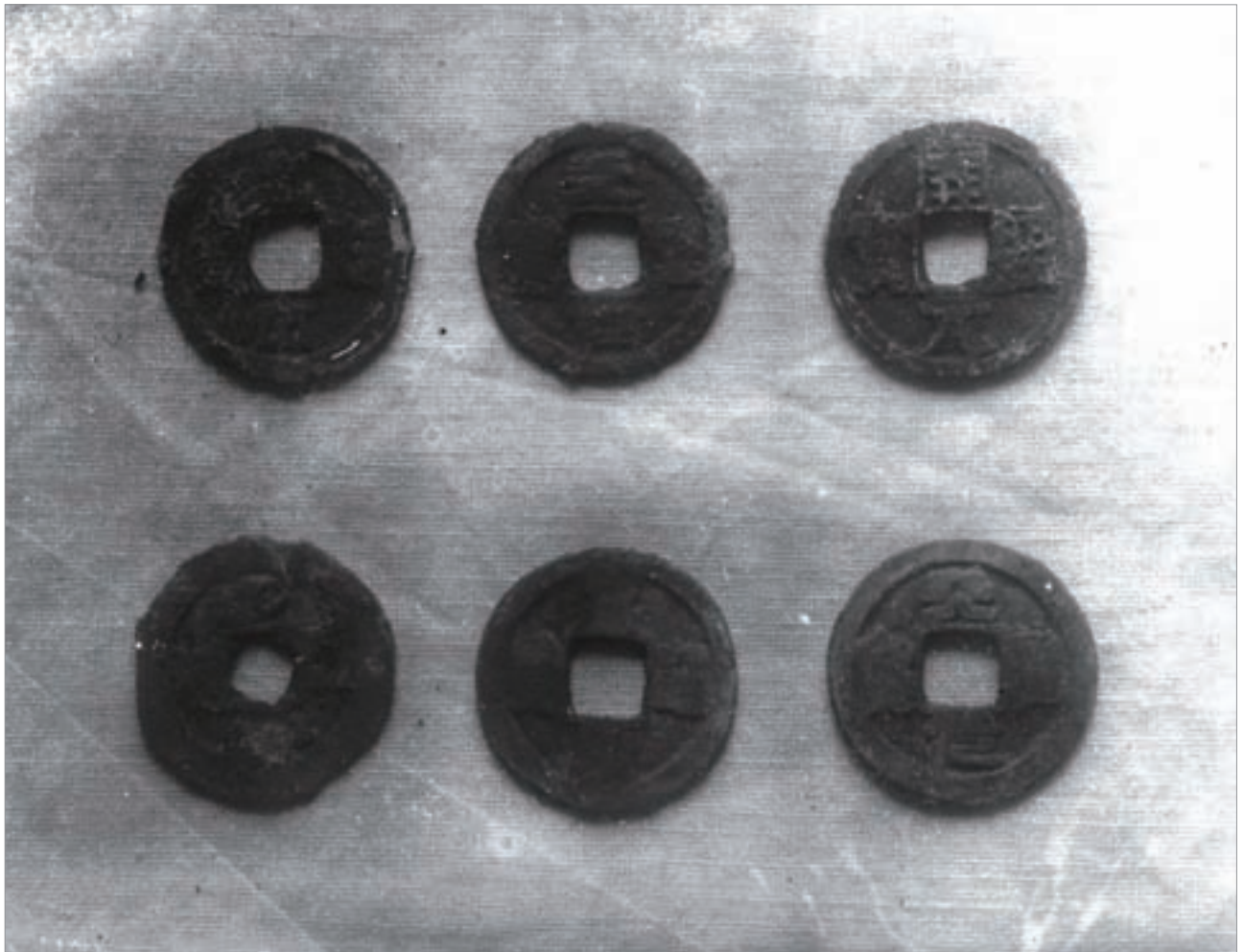
건판27427

원판번호 無892-10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경기 개성군 중서면 곡령리 고려 제7릉군 제7릉 출토

경기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명종 지릉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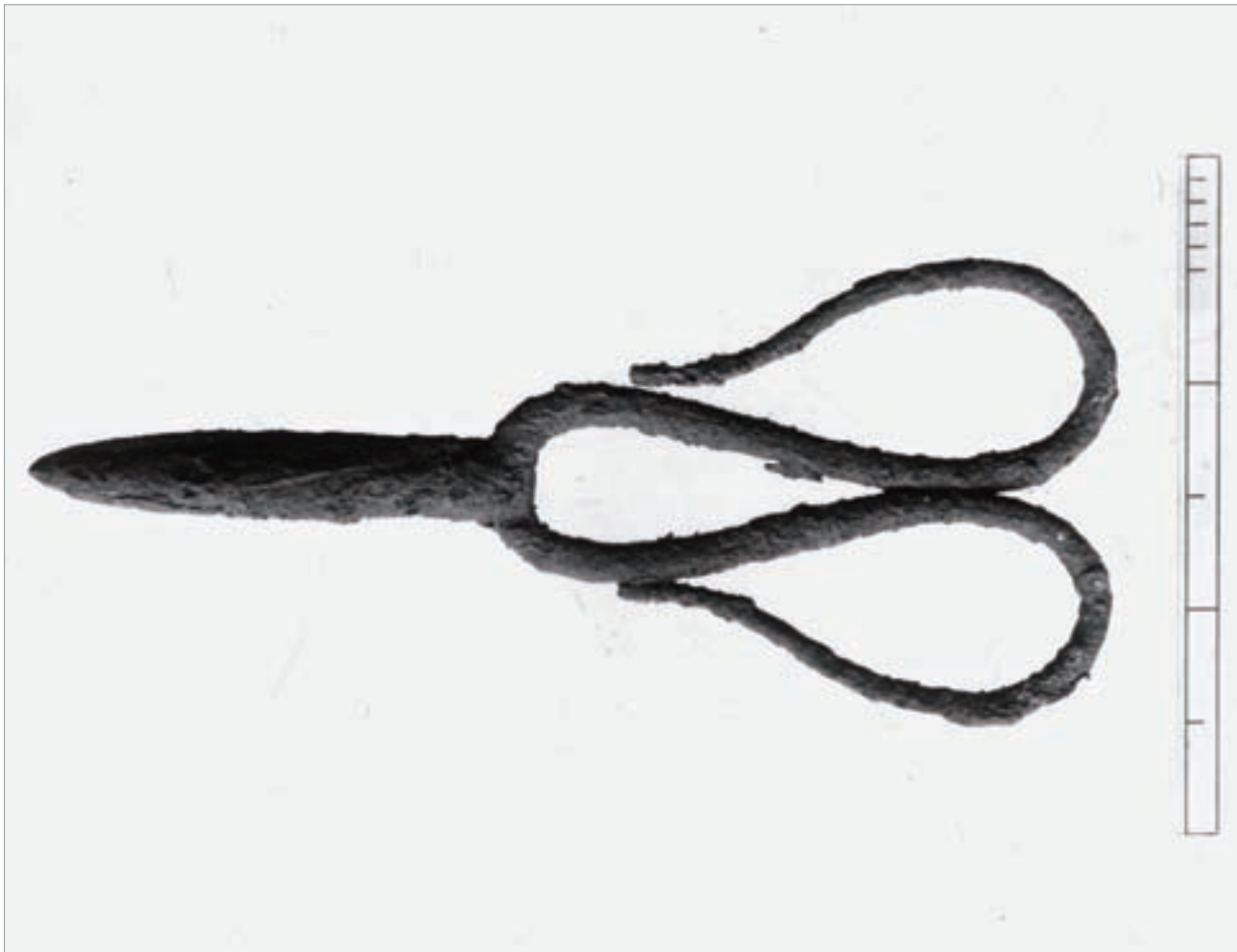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고려 공민왕 현릉 출토 철제 가위**

건판29701

원판번호 無1077-7 (격납상자제목: 其他 銅錢 및 各鐘遺物)



131,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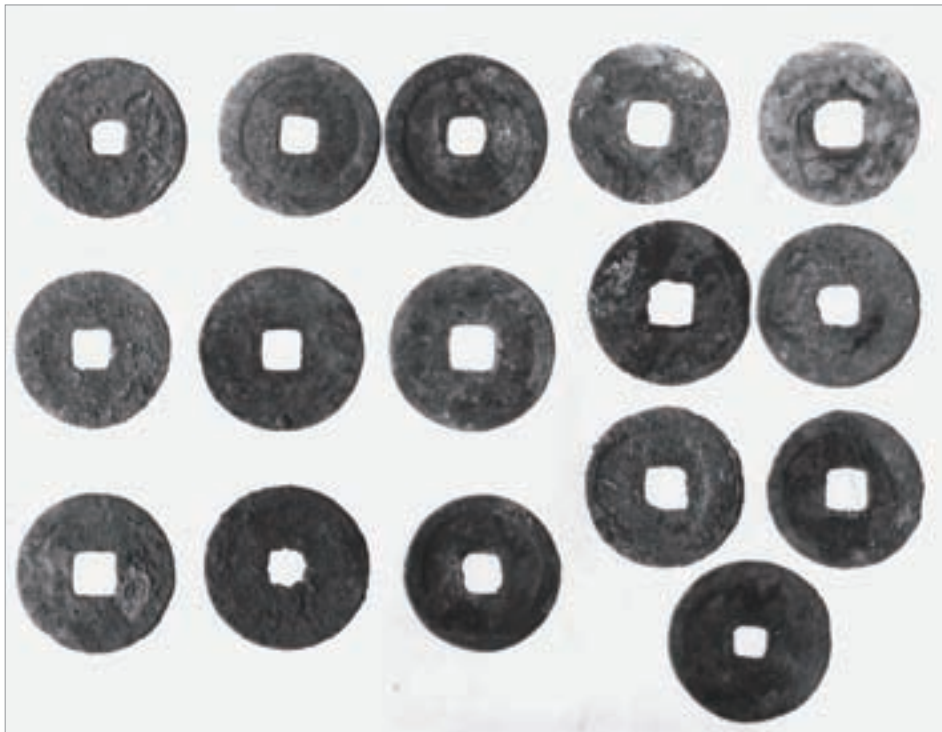
## 고려 공민왕 현릉 출토 동전(앞·뒤)

건판29699, 29697

원판번호 無1077-5, 無1077-3 (격납상자제목: 其他 銅錢 및 各鐘遺物)

희녕원보熙寧元寶, 경덕원보景德元寶, 정화통보政和通寶 같은 중국

송대宋代의 동전들이 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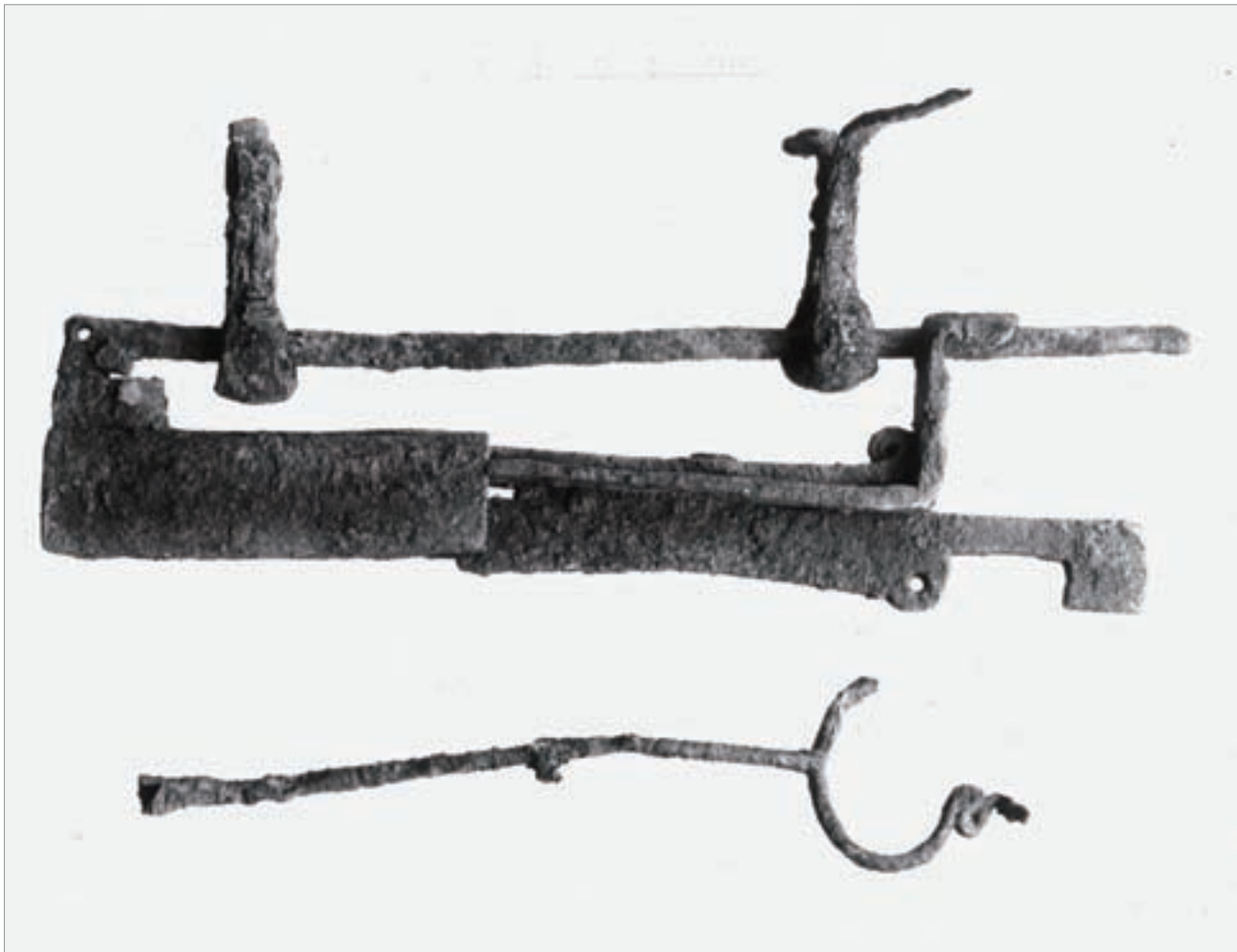




**공민왕릉 출토 자물쇠와 열쇠**

건판28180

원판번호 無949-1 (격납상자제목: 遺蹟 昭和六年[1931])



134

# 경기 개성 출토 청자어룡형주자靑磁魚龍形注子

건판13812

원판번호 390213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2)

국보 제61호

참고

# 청자 어룡 모양 주전자

고려 12세기

높이 24.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 2)

국보 제61호



©국립중앙박물관

135

## 경기 개풍 궁녀동 고분 출토 백자정병

건판23466

원판번호 無546-1

1916년 야쓰이 세이이쓰·바바 세이치로 조사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 전 개성 출토

### 청자상감모란문쌍이호靑磁象嵌牡丹文雙耳壺

건판15033

원판번호 中270078

촬영 당시 森辰男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8)

국보 제98호

굵지막한 모란 한 송이를 대담하게 상감한 청자 항아리이다. 고려시대에 흔히 보이는 동기銅器의 생김새를 모방한 것으로, 중부 지역에서 ‘방구리’라고 불리는 질그릇과 비슷하여 고려시대에도 물이나 음료를 담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 청자 흑백상감

### 모란무늬 항아리

고려 13세기

높이 19.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8)

국보 제98호



©국립중앙박물관

137, 138

**경기 개성 발견 청자철화모란문병** 靑磁鐵畫牡丹文瓶

건판8592, 8593

원판번호 280590, 280591

촬영 당시 森辰男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9)



참고

**청자 철화 모란무늬 병**

고려 12~13세기

높이 10.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9)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 개성 발견

## 청자상감모란문과형주자 靑磁象模牡丹文瓜形注子

건판8505

원판번호 280502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717)





140

## 경기 개성 출토

### 청자상감모란문합 靑磁象嵌牡丹文盒

건판23542

원판번호 無558-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099)



참고

### 청자 상감 모란무늬 향합 靑磁香盒

고려 13세기

높이 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099)



©국립중앙박물관

141

# 경기 개성 발견 청자 잉어모양 연적硯滴

건판8455

원판번호 280452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118)



**경기 개성 출토 청자철채백화당초문병** 靑磁鐵彩白花唐草文瓶

건판37181

원판번호 無596-18 (격납상자제목: 없음)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3934)





143

**봉명산鳳鳴山 칠묘七墓(칠릉) 부근 출토  
청자 상감 국화 모란무늬 모자합母子盒**

건판24697

원판번호 無660-1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481)



참고

**청자 상감 국화 모란무늬 모자합**

고려 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481)



©국립중앙박물관

144

**도기호**陶器壺·개성 출토 도기병陶器瓶

건판25486

원판번호 無731-7

병: 이왕가박물관 소장(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96))



참고

**도기병**

고려

높이 40.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96)



©국립중앙박물관

145, 146

## 중국도자 경기 개성 발견

### 청자양각모란당초문접시 靑瓷壓出陽刻牡丹唐草文花形

건판23615, 23618

원판번호 無564-10, 無564-13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978)

개성의 고려 유적에서는 고려청자나 도기뿐만 아니라 중국 송·요·요·금·원·요의 자기들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는 고려시대 활발했던 대외교역을 통해 고려 사람들이 직접 입수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접시는 북송(北宋, 960~1127)의 요주요(耀州窯)에서 만든 것으로, 틀로 찍어내는 압출양각(壓出陽刻) 기법으로 무늬를 새겼다.





## 박물관진열품 博物館陳列品 고려 금·금동 장식

건판241

원판번호 90320

1909년 촬영

촬영 당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53, 덕수855 등)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의 유물 진열·격납 방식을 짐작케 하는 사진이다. 오른쪽에 줄자를 핀으로 꽂아놓은 것이 이채롭다.



참고

## 금으로 된 꾸미개

고려

너비 2.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855)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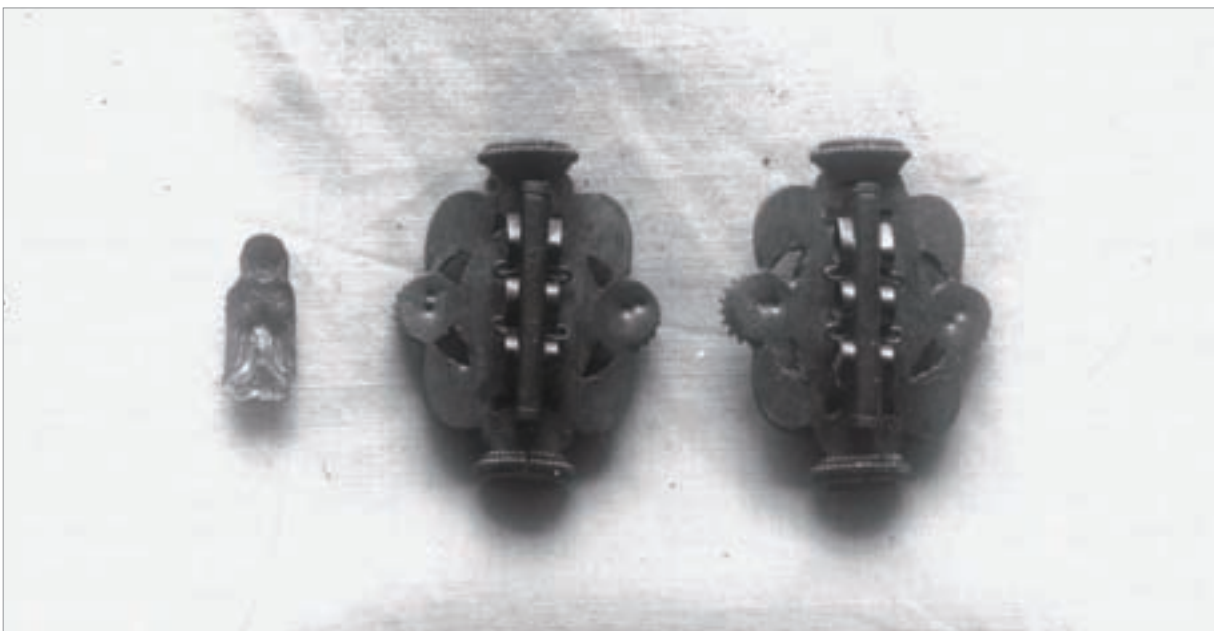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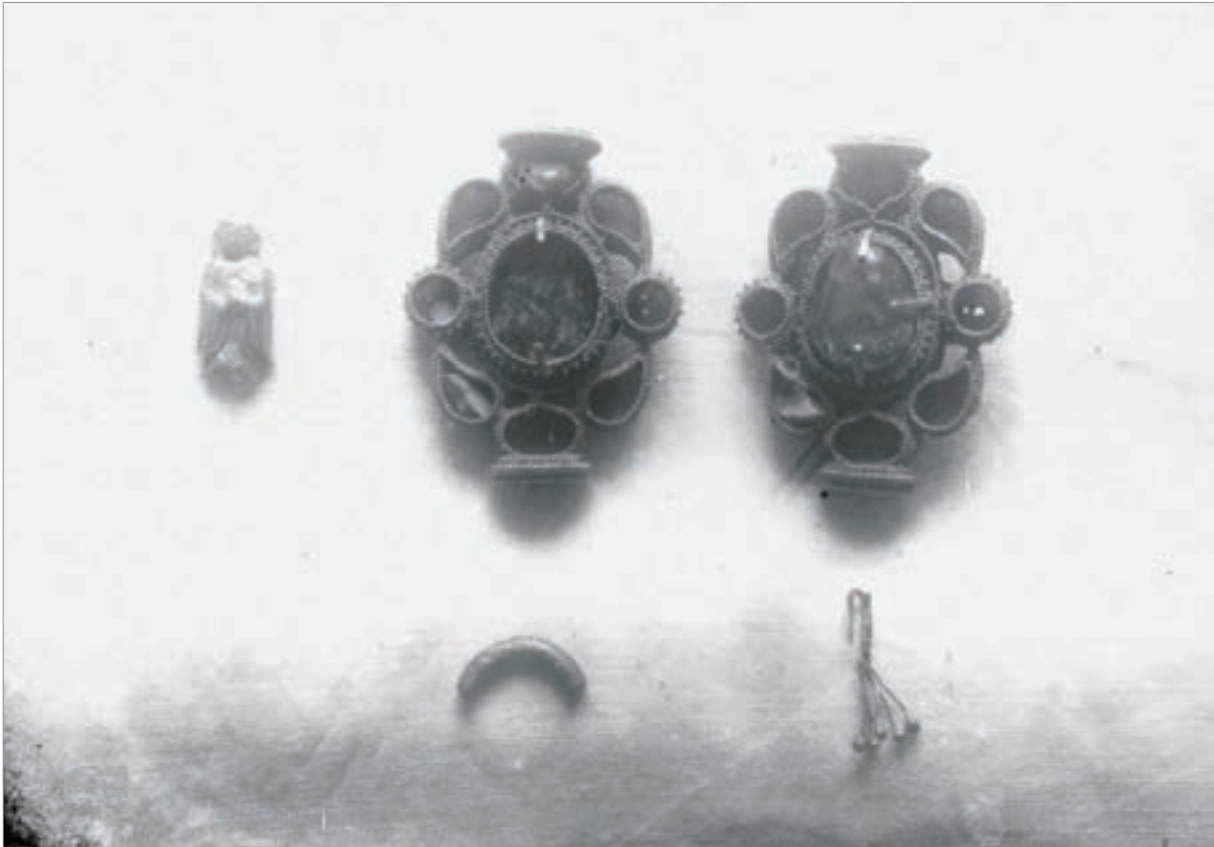
148, 149

## 경기 개성 고려7릉 출토 금동장식과 불상

건판27429, 27428

원판번호 無892-12, 無892-11 (격납상자제목: 遺蹟 古蹟圖譜十八)

개성 칠릉동에 있던 고려 왕릉급 무덤 중 제7릉에서 수습된 작품들로, 고려 왕실 금속공예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오른쪽의 금제 장식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번호 K161로 소장되어 있다.



전 경기 개성 부근 고분 출토  
채화비천문 彩畫飛天文 동판 銅版

건판17326

원판번호 D33009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21)





## 경기 개성 출토

## 도해대선문渡海大船文 팔릉경八稜鏡

건판25658

원판번호 無748-9

촬영 당시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덴리참고관天理參考館 소장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넘나드는 배를 새긴 거울로, 배 위에 전서篆書로 새긴 ‘황비창천명황조창天’이란 글자 때문에 ‘황비창천명 거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유달리 고려시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어 고려 사람들이 아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개성 출토 사유서조경四紐瑞鳥鏡・

서화원앙문팔릉경瑞花鴛鴦文八稜鏡

건판24841

원판번호 無671-8

촬영 당시 일본 교토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 소장



# 경기 개성 출토 천추만세방형경千秋万歳方形鏡

건판24827

원판번호 無670-5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09)





**경기 개성 출토 쌍앵무경 雙鸚鵡鏡**

건판25155

원판번호 無698-4

촬영 당시 세키노 타다시 關野貞 소장



155

## 경기 개성 고분 출토

###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

건판25772

원판번호 無756-7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426)

국보 제92호



참고

## 청동 은입사 물가 풍경 무늬 정병

고려

높이 3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426)

국보 제92호



©국립중앙박물관

## 최보순崔甫淳 묘지명

건판35385

원판번호 大55-8 (격납상자제목: 墓誌 및 石棺)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문과대학文科大學 소장

고려 전기의 문신 최보순(1162~1229)의 묘지명으로, 일본 도쿄 제국대학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관동대지진(1923)으로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최보순 묘지명>의 실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진은 그 판독과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다. 최보순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예부상서에 추증된 최균崔均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한 뒤 이부시랑吏部侍郎,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수태사守太師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に 이르렀다.

사진이 반전反轉되어 있는데, 책에 수록하기 위해 건판의 감광제感光劑를 떼어 판형에 붙였다가 다시 건판에 붙이거나, 건판을 여러 장 복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여럿 있다.





## 이공수李公壽 묘지명

건판34364

원판번호 中44-7 (격납상자제목: 碑文 및 瓦當)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고려 중기의 문신 이공수(?~1137)의 묘지명이다. 이공수의 자는 원로元老, 첫 이름은 수壽였으나 재상이 된 뒤 공公을 붙였다. 고려의 문벌 인주仁州 이씨 출신으로 일찍이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고 지공거知貢舉도 몇 차례 역임하였다. 6촌 사이인 이자겸李資謙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겨, 인종을 도와 끝내 이자겸을 숙청하였으며, 1128년(인종 6) 3월 문하시중이 되고 1131년 동덕공신同德功臣으로써 치사致仕하였다.





古今史記卷之九  
而留今之為分司大府試水故曰長用而品監起宗年歲  
春以病終于革鳴乎哀哉以公術良恭儉之德也博放該通  
之才也且將可以大用而卒不遂不違官豈非命乎公要  
無泥先濟之安而生五男五女封為縣果賜君先公十三歲卒  
長子不幸未十歲而終故次曰伯散其子令史次子幼而物故  
次曰傳嚴文粹郎衛尉公季曰存其子為屠氏之教長女  
適公庫都監判官金存曾適將仕郎李用文次適良嗣  
今而正朴惟播次未終物故女適國子進士五年卒諡昭毅  
不幸短公而宛  
銘曰  
謂公有德而不壽乎年幾七十而卒公之不幸也  
品雖以公之德也公之才也直女樂斯違官而及他  
於青社之祿吾不足謂之官也



## 유극해 兪克諧 묘지명

건판22466

원판번호 無431-3



고려 후기의 문신 유극해(?~1301)의 묘지명으로, 현재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극해는 1258년(고종 45) 과거에 급제한 뒤 의주판관義州判官, 남북면도감판관南北面都監判官, 구복원판관句覆院判官, 애수진장隘守鎭將, 내원서령內園署令, 중상서령中尙署令, 분사대부시승分司大府試丞 등의 관직을 맡아보았던 행정 관료였다. 1301년(충렬왕 27)에 70세에 가까운 나이로 사망하였다.



**경기 개성 출토 유극해 석관**石棺

건판24951

원판번호 無682-6



## 석관

건판24686

원판번호 無660-1

점판암을 다듬어 판석으로 만든 뒤 조립하여 만드는 상자 모양의 석관이다. 고려시대의 왕족·관료계층 인물이 사망하면 불교식으로 화장火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화장한 유골을 항아리나 나무상자, 청자 합 같은 그릇에 넣은 뒤 이러한 석관에 담아 땅에 묻게 된다. 대체로 평균 길이는 1m 남짓, 폭은 45cm 안팎의 직육면체 모양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석관의 바깥면에는 사신四神이나 십이지신을, 안에는 꽃이나 새 같은 자연풍경 등을 새겼으며, 뚜껑에는 비천飛天이나 별자리를 새기곤 한다.









### III. 논고

# 일제강점기의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 개성 지역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그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876년의 개항 이래 구미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끊임없는 침탈 시도에 노출된 조선왕조는 ‘이국적이고 값진’ 것을 찾는 이들의 탐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고려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개성 일대의 고분에 묻혀 있는 고려자기들은 이들의 집중적인 도굴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00년대가 이른바 ‘고려청자광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 지역 일대의 고분에 대한 도굴은 참혹할 만큼 극성이었다.

이처럼 바깥으로부터 세찬 시련이 몰아치자, 한국인들은 점차 “옛 무덤 속의 도자기와 草野의 옛 탑과 비를 비롯한 古物”들이 이 나라의 빛나는 과거를 증명하는 값진 ‘보물’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sup>1</sup>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는 1900년대에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민족 언론은 이제까지 한국인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무덤 속의 도자기나 초야의 불상과 불탑이 일제에 의해 침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대한제국도 일본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조선총독부로 일컬어지는 식민지 정부는 이른바 문명개화의 명분으로 한국 강점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이른바 무단통치시기로 불리는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는 강압과 회유라는 양날의 칼로 한국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노골적인 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일본과 한국 두 민족의 조화로운 同化를 식민지 통치의 전면에 내세워 식민지 지배의 안정성을 조기에 획득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화 정책, 특히 문화재 정책은 이른바 동화의 논리를 찾아내고 또한 동화의 진정성을 설득하는 주효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 지역에는 일제의 강점 직후인 1912년 지역 단위의 명승고적 보존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開城保勝會가 발족되었으며,<sup>2</sup> 1931년에는 府制 실시 1주년을 기념하여 開城府立博物館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견 고려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이 지역의 문화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근대 도시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던 개성의 지역성이 부여하는 여러 맥락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12년 개성보승회가 발족한 배경과 이후 활동의 내용과 추이, 이후 20여 년 뒤 府制 실시 1년 기념으로 1931년 개성부립박물관이 발족한 배경과 활동을 개성이라는 도시의 운영에 관여한 여러 주체들의 상호 작용과

1 『大韓每日申報』 1910.4.12. “나라사 보비의 업서지느 훈”

2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에 대한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경문화사, 2001; 이순자, 「일제강점기 지방 고적보존회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개성보승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09; 김울림, 「개성부립박물관」, 『한국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2009; 임나래, 「일제강점기 개성 평양부립박물관의 설립과 의의」,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5.

연관지어 살피고자 한다. 고려의 옛 수도였던 역사 도시로서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개성의 지역 유지들은 인삼 사업을 기반으로 식민지 근대 산업도시로의 성장을 모색하면서, 그 한 방법으로 관광 도시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었다.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의 설립과 활동은 식민지 권력과 개성 지역 유지, 그리고 개성의 산업에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 간의 상호 관계, 또한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제국의 학문 체계 속에 편입하려는 일제의 의도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특색을 모색하려는 한국인 미술사학자 사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 II 고도 개성의 명승고적과 개성보승회

고려왕조의 옛 도읍지로 유명한 개성에는 滿月臺와 善竹橋 등 고려왕조의 고적과 더불어 朴淵瀑布, 太宗臺 등의 경승지가 있어서 조선시대에도 사대부들의 중요한 유람 장소 중 하나였다. 1477년 蔡壽(1449~1515)와 兪好仁(1445~1494)은 개성을 돌아보고 『遊松都錄』이라는 글을 남겼고, 이들의 견문이 『東國輿地勝覽』의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sup>3</sup> 이러한 유람은 조선 후기에도 이어졌다. 李廷龜(1564~1635)의 『月沙集』에 실린 「遊朴淵記」, 金昌協(1651~1708)의 『農巖集』에 실린 「遊松京記」<sup>4</sup>나 朴長遠(1612~1671)의 『久堂集』에 실린 「遊朴淵記」<sup>5</sup>, 吳瑗(1700~1740)의 「西遊日記」(1729) 같은 기행 기록이나, 姜世晃(1713~1791)이 1757년 개성유수 吳遂采(1692~1759)의 청을 받아 그렸다는 《松都紀行帖》<sup>6</sup> 등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개성 유람 기록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sup>7</sup>

하지만 개항 이후 개성 지역이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래 주목받은 유적이거나 경승지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려왕조의 왕릉을 비롯한 고려시대 고분에서 도자기가 출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으로 온 일본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도자기의 도굴이나 수집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옛 무덤을 파헤쳐 그 속의 부장품을 훔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인륜에 반하는 일로 절대적인 금기였지만, 외국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본인 범죄자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초기 이왕직의 차관을 지냈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는 “고려자기가 발굴된 수는 다수로서 그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수만으로 헤아릴 수 있겠다”고 회고할 정도였고,<sup>8</sup> 1906년 통감부 법무원에 부임해 온 미야케 초사쿠(三宅長策)은 “고분 도굴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며 따라서 개성, 강화도, 해주 방면에서 도굴된 고분의 수는 놀랄만한 것”이어서 이른바 “高麗靑磁狂 時代”가 출현했다고 표현했다.<sup>9</sup> 실제로 1905년부터 1909

3 장지연, 「조선시기 고려 법궁에 대한 지식의 변천」, 『규장각』 39, 2011, pp.11~18.

4 김창협, 『농암집』 권23 記. 또한 권6에는 개성 일대의 명승고적에 대한 시가 여러 수 수록되어 있는데, 善竹橋, 朴淵, 大興洞, 觀音窟, 太宗臺, 靈通寺, 崧陽書院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고전종합DB 참조).

5 朴長遠, 『久堂集』 권15 (한국고전종합DB 참조).

6 《松都紀行帖》에는 16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송악산, 오관산, 천마산, 성거산 등 네 지역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송악산 방면은 개성읍치, 오관산 방면은 화담, 백석담, 백화담, 영통동구, 천마산 방면은 태안창, 낙월봉, 만경대, 태안절벽, 성거산 방면은 대흥사, 청심담, 산성남초, 대승당, 마담, 태종대, 박연이 묘사되었다(송희경, 「송도기행첩」, 네이버캐스트 한국미술산책 참조).

7 이정귀, 『月沙集』 권38 記下 (한국고전종합DB 참조).

8 小宮三保松, 「緒言」,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 1917.

9 三宅長策, 「그 당시의 추억—고려고분 발굴시대」(황수영, 『일제기문화재피해자료』, 『고고미술』 제22집, 1973, pp.127~128).



년까지 고려자기 도굴로 처벌된 일본인의 거주지는 개성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범죄 대상 지역도 개성 일대에 집중되었다.<sup>10</sup>

심지어 개성 주위의 豊德郡에 있던 경천사지 십층석탑도 일본의 宮内大臣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의 약탈 대상이 되었다. 그는 1907년 3월 서울에서 골동상을 운영하던 곤도 사고로(近藤佐五郎)를 시켜 경천사지 석탑을 강제로 반출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sup>11</sup> 풍덕 군수의 반대와 주민의 저항을, 高宗이 일본정부에 선물로 주었다는 거짓말과 무력으로 제압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탐욕은 고분을 도굴하여 부장품을 탈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사지에 있던 아름다운 탑과 부도를 공공연히 반출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천사탑이 반출되는 1907년부터 점차 본격화되어 1910년 일제의 한국 병합 시점 이후까지 지속되었고,<sup>12</sup> 1911년 가을에는 원주 법천사지의 지광국사 현묘탑이 반출되어 서울로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반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범죄에 최소한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가 이를 일정한 사회문제로 파악하면서부터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 주체로서 관할 지역에 대한 권한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은 식민지를 관할하는 그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일뿐더러, 식민지 통치의 명분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sup>13</sup> 더구나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취임 초기부터 식민지 고적의 조사와 보호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비춰지기를 원했다.<sup>14</sup>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19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세 차례 ‘古物 保存’에 대한 기사와 논설을 실은 것은 古碑, 石塔, 石佛 등의 보존을 위한 식민지 정부의 조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sup>15</sup> 이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姦猾한 자의 유혹’과 ‘몰지각한 鮮人’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는 것이 조선총독부 당국자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즉 옛 비석과 탑, 불상 등을 ‘고대로부터 전래하는 역사의 고증 혹은 미술의 모범으로 영구 보존할 국가 貴重의 보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인 도굴꾼에게 동원되거나 회유된 한국인들을 몰지각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천사탑을 비롯하여, 개성 일대에 산재한 매장 문화재에 대한 도굴과 약탈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었던 개성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고적 보호 활동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고물 보존 방침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성 지역의 명승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관민 합동의 단체인 開城保勝會가 조직된 것은 위와 같은 총독부의 방침이 하달된지 2개월여 만인 1912년 2월 3일이었고,<sup>16</sup> 이는 다른 지역의 움직임에 비해 가장 빨랐다. 조선총독부가 전국 각지의 지역 고적 보존 단체를 조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개성보승회는 지역 단위 고적 보존 단체로는 가장 먼저

10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pp.22-24 참조.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7일, “田中子爵及一塔”

12 장상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대형 석조문화재 수집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재』,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제27집, 2017, pp.25-26.

13 장상훈, 2017, 위의 글.

14 『毎日申報』 1910.9.29. 1면, “古代의 建築物”

15 『매일신보』 1911.11.30. 2면, “古物保存의 通牒”; 『매일신보』 1911.12.1. 1면, “論說: 古物保存의 通牒”; 『매일신보』 1911.12.3. 2면 “古碑古塔等 取締”

16 『매일신보』 1912.2.7. 2면, “開城保勝會設立”

발족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이날 개성군수 朴宇鉉과 개성경찰서장 사이토 가네스케(齋藤金祐), 그리고 개성의 지역 유지들은 郡衙에서 발기인 회를 열고 개성보승회의 설치를 결의했다. 이들은 개성보승회의 설치 목적을 명승사적지의 保存, 植樹, 道路 改築 등으로 삼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당해년부터 3년간 만월대, 선죽교 등지에 앵두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심고 기타 遊覽者에게 대 해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sup>18</sup> 개성보승회의 발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첫째 개성 군수와 경찰서장이 그 중심에 있는 관 주도의 단체였음에도 지역 유지의 참여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승고적의 보존이라는 사안이 식 민지(지방) 정부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지역 엘리트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 동원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으로 관에서 마련해야 할 예산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민간으로부터 확보 할 수 있는 점도 식민지 지방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효한 측면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집중적인 도굴 피해를 입었던 고려 고분 등 고적과 매장 유물의 보호보다는 유람객에게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한 유명 명승사적의 정비에 개성보승회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개성보승회의 회칙은 적어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sup>19</sup> 개성군이 개성부로 승격한 1930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開城保勝會規則〉에 따르면, 이 단 체의 설립 목적은 ‘개성부내 및 개풍군 내에 현존하는 명승고적지를 정리 보존’하는 데 있었고 ‘아울러 널리 이를 사회에 소개’하는 데 있었다.<sup>20</sup>

명승고적의 ‘보존’이 명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이를 널리 사회에 ‘소개’하는 쪽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 규칙에서 언급한 명승고적은 현실적으로는 유람객의 발길이 닿는 유명 장소였다. 실제로 발족 직 후인 5월 개성보승회가 벌인 사업은 철도 觀桃 열차 유람객을 위해 彩霞洞, 선죽교, 만월대 등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들 을 접대하는 일이었다.<sup>21</sup> 또한 같은 달에 진행된 ‘고적의 수리’도 선죽교와 만월대 각 고적의 비석 울타리와 부근 도로, 교 랑을 수리하고 나무 천여 주를 심는 일이었다.<sup>22</sup>

한편 조선총독부 당국이 1911년 11월 말에 각급 행정 및 경찰 조직에 하달한 문화재 보존 조치 지시에 대해, 불과 2개월여만에 관민 합동의 보존 단체를 조직해 화답한 개성군은 『매일신보』의 큰 찬사를 받았다. 즉 1912년 5월 10일자 『매일신보』는 제1면 2단의 사설란에 ‘保勝會의 美舉’라는 제하에 다음 기사를 실었다.

開城郡 人士는 該郡 各勝地를 보호할 목적으로 保勝會를 조직하였는데, 먼저 善竹橋 石柱가 年久頽圯함을 悶鬱하여 수리  
보완케 한다하니 과연 文明人民의 美舉라 말할지로다. 자기의 지방 부근에 在한 古塔 및 各物을 破傷 또는 偷賣하는 자는  
족히 人類로 責할 바가 없거니와 一般 同胞는 반드시 保勝會를 模範하여 각기 名勝 保護에 주의할지이다.<sup>23</sup>

17 전남 여수의 이순신 장군 관련 향사 단체 두 곳(각각 1909년과 1911년 설립)은 단위 지역 전체의 고적 보존이라는 취지를 갖는 단체가 아니어서 성 격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 『各道古蹟保存會文書綴』 및 이순자, 앞의 책, 2009, pp.377-395 참조.

18 『매일신보』 1912.2.7. 2면, “開城保勝會設立”

19 1912년 설립 직후의 ‘규칙’이 『매일신보』 1913.8.21.자에 실려 있고, 1916년 9월과 1930년 이후에 각각 작성된 규칙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총독부박물관 문서철 속에 수록되어 있다. 3종의 규칙을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20 『開城保勝會規則』, 『各道古蹟保存會文書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21 『매일신보』 1912.5.1. 2면, “開城保勝會의 設備”

22 『매일신보』 1912.5.30. 1면, “開城雜信: 古蹟의 修理”

23 『매일신보』 1912.5.10. 1면, “保勝會의 美舉”

이 기사는 먼저 개성보승회의 활동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개성군의 모범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속히 따를 것을 독려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에서도 명승고적의 보호라는 과제를 개성보승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해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주체를 ‘일반 동포’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1911년 11월, 조선총독부는 고물 보존에 대한 지시를 지방 행정 및 경찰 조직에 하달할 때, “수백 천 년 국가의 귀중한 古物을 파괴하여 如何時의 건립과 如何人의 사업을 竝히 無據에 歸케 함은 人民 風化上에 大關係가 있다”고 규정하면서,<sup>24</sup> ‘물지각한 한국인’들의 책임을 물었다. 이는 ‘고물’의 파괴가 민심의 향배에 관련이 깊음을 인식한 일제 식민 당국이 한국의 명승고적을 애호한다는 명분을 선점하고,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인 지역 엘리트들의 각성과 참여,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음을 뜻한다. 이러한 식민지 정부 당국의 요구에 대해 개성의 유지들이 개성의 지역의 행정 및 경찰 관료의 주도에 따라 관민 합동의 명승고적 보존 단체 설립에 참여한 것이었다. 1912년 평양에 平壤名勝舊蹟保存會<sup>25</sup>가, 1913년 경주에 新羅古蹟保存會가 관민 합동의 단체로 발족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흥미로운 점은 개성의 지역 유지들이 이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 내용과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식민지 정부 당국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다. 먼저 그들이 인식하는 개성의 명승고적은 만월대와 선죽교 등 전통적인 명소 위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명소에 대한 보존 사업도 유력한 유람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개성 지역 유지들의 관계망을 한국은 물론 그 너머의 일본제국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2년 5월 28일 일본 오카야마현의 관광단 9명이 경의선 열차로 평양으로 가는 길에 개성을 방문하자, 개성보승회는 북산 채하동에 다과를 마련하고 그들을 환영했다.<sup>27</sup> 또한 같은 달,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주최한 개성관광단으로 “京城-龍山 간의 官民有志 千여 명”이 개성을 방문하자, 개성보승회는 “금화 100원을 들여 절차를 준비하고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처럼 융숭한 접대를 받은 관광단은 일정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같은 금액을 개성보승회에 기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형식을 취했다.<sup>28</sup>

『매일신보』가 일종의 미담으로 소개한 이 일은 발기인이었던 박우현 군수를 비롯한 개성 지역의 ‘관민유지’들이 개성보승회의 설립과 그 사업을 통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시사한다. 고려왕조의 고도에 뿌리내려 살면서 이 지역 명승고적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이러한 명승고적이 식민지 중앙정부 관료를 비롯한 관민 유력자들과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인삼을 경작하고 판매해서 개성을 대표하는 자산가로 성장하여, 1909년에는 개성군수에까지 오른 박우현이 개성보승회의 발기인이었던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제국은 홍삼에 대한 전매제도를 마련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계승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인삼 재배를 허가제로 바꿈에 따라 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성 상인들은 전매 품목이 아닌 백삼의 상품화와 판로 확대에 주력했고 성공을 거두었다.<sup>29</sup>

결국 개성의 蔘業을 주도하는 지역 유지들이 주도한 개성보승회의 명승고적 보존 활동은 고려왕조의 고도라는 역

24 『매일신보』 1911.12.1. 1면, “論說: 古物保存의 通牒”

25 『매일신보』 1912.7.17. 2면, “名蹟保存會”

26 『매일신보』 1912.5.15. 1면, “新羅古蹟保存會”

27 『매일신보』 1912.5.30. 1면, “開城雜信: 岡山縣觀光團通過”

28 『매일신보』 1912.6.2. 2면, “保勝會에 寄附”

29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214-236.



사성을 바탕으로 개성 지역 상인 엘리트들이 조선총독부의 고적 보존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식민지 지배 권력의 호의를 얻는 동시에, 유력 방문자들과의 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중추인 삼업을 알리고 나아가 그 사업 여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성보승회의 1913년 사업 계획은 『매일신보』에 두 차례나 게재되었다.<sup>30</sup> 이는 개성보승회의 선도적인 활동이 조선총독부의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뜻하며, 이러한 활동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 해의 사업계획 중에는 만월대 등 각 명승지로 통하는 도로의 개수와 일종의 표지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표의 건설, 나무 심기, 휴게소와 의자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유람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명승지의 경관을 개선하며, 관람자의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자기의 진열장을 만월대에 設”하는 일이었다.<sup>31</sup>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고유섭이 1936년에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1916년 전후의 일로 보인다. 그는 이 일을 일컬어 일반 호사가의 濫古欲을 채워준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개성보승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전한다.<sup>32</sup>

개성보승회의 부활을 계기로 쓴 이 글에서 고유섭은 1916년 이후 개성보승회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진열장의 유물도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만월대는 방치되었으며 석조문화재의 파괴와 절도, 능묘의 도굴 등이 처참한 지경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1917년의 개성보승회 수지예산표를 살펴보면 총 지출 예산이 770원에 불과하며 이 중 본격적인 사업예산은 명승고적의 제초 및 수리비 200원에 불과하다.<sup>33</sup>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1926년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고적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개성 지역의 명승고적이 방치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sup>34</sup>

개성 인사들아! 개성 인사는 이 광영의 역사를 받들고 있으며 세상에 자기 祖先이 위대하였든 바를 自誇할 자격이 있다. 이 자격이 있는 이만치 그 반면에는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느껴야할 것이다. 즉 그 광휘 있고 찬란한 역사로 하여금 더욱 광채스럽게 하며 영구한 보존을 하기에 노력함이 그 위대하였든 선조를 추모하는 후예로서의 당연할 책임일 것이며 이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있든 후예야 비로소 후예된 영광을 자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요사이 고적과 명승을 차저 단이는 이는 다가지 그 시설과 고적 그 물건까지 황폐하여짐을 의식하였을 것이다. … 송도의 유지로 자처하는 인사들아! 반성함이 있스라! 뉘우침이 있거든 곳 실행하라! 조선의 위대한 넷 유적을 보존함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함과 갓치 떳떳한 일이요 또 회피치 못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기자는 1912년 일본인인 사이토가 개성경찰서장으로서 개성보승회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그의 전근 이후 보승회의 활동이 휴식 상태에 놓이고 전날의 시설이 황폐해졌으며 소중한 고적도 퇴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들

30 『매일신보』 1913.3.2, 3면, “開城保勝會의 計劃”

31 『매일신보』 1913.3.16, 1면, “開城通信: 保勝會計劃”

32 高裕燮, “高麗 舊都 開城의 古蹟－開城保勝會 復活에 즈음하여”, 『朝鮮日報』 1936.9.29. 및 9.30.;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제7권, 열화당, 2007, pp.345-350에 재수록.

33 「大正6年度 收支豫算表」, 『各道古蹟保存會文書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34 『東亞日報』 1926.7.29, 4면, “고적을 보존하라-개성 일기자”

이 자신들의 고적 명승에 소홀함을 지적하여 한국인들의 민족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성군의 주도 하에 개성 유지들이 협력하는 半官半民의 형식으로 설립된 개성보승회가 최초의 참여 당사자들로부터 차츰 외면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선조에 대한 추모 의식이나 역사 의식만으로 명승고적을 보호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의 계기가 생긴 것은 근대적인 산업도시로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개성 유지들과 개성부 당국의 기대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백삼의 생산과 유통으로 삼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개성의 유지들은 점차 현대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설정했고, 이 속에 박물관 건립을 중심으로 한 ‘유람도시’ 건설의 비전이 있었다.

### Ⅲ 고도 개성의 현대도시 비전과 박물관의 건립

1930년 10월 1일 開城郡 松都面이 開城府로 승격했다.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1913년까지 부로 지정된 도시 13곳 가운데 조선왕조의 전통도시였던 곳은 서울, 평양, 대구뿐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성이 새로 부의 위치에 오를 수 있던 것은 식민당국이 근대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蓼業을 중심으로 개성을 근대적인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 유지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였다.

개성군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부로의 승격을 추진했다. 1922년 4월의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개성은 “인구 4만 5천인으로서 인구로는 현 府制 시행지인 경성, 평양, 부산, 대구에 次 하여 인천, 목포, 군산 등의 上에 在하고 산업 상에도 自來 고려인삼의 聲價가 高하고 … 조선의 유일한 大商業地”로서, 지난 도지사 회의 시에는 실패를 했지만 “불원간 개최할 道知事 회의에 一問題”가 될 만한 도시였다.<sup>35</sup> 실제로 같은 해 4월 25일 道評議員, 面協議員, 學校組合評議員 등 개성의 유지들은 부제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6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孫鳳祥, 孔聖學 등의 개성 유지들은 이 대회에서 개성이 인구나 실력 등에서 이미 부제가 실시되는 곳에 손색이 없으며, 개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어느 곳보다 먼저 개성을 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sup>36</sup>

마침내 1928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지방 도시의 부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대상이었던 개성, 함흥, 대전, 전주, 광주 중 개성과 함흥의 승격이 결정되었다.<sup>37</sup> 1920년대 삼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부를 확대시켜 오던 개성의 유력자들은 그에 걸맞는 도시의 위상을 요구했고 마침내 뜻을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부제의 시행을 바탕으로 개성을 조선 내의 유력한 근대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성의 유지들이 떠올린 사업 중 하나가 박물관 건립이었음은 매우 흥미롭다.

부제의 시행 이전인 1930년 1월 17일 개성군 송도면 협의회는 개성박물관 설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sup>38</sup> 같은 해

35 『동아일보』 1922.4.18, 2면, “開城府政問題－道知事會議에 附議乎”

36 『동아일보』 1922.4.28, 3면, “府制를 速히 實施하라, 개성시민의 격렬한 부르짖음, 25일에 시민대회를 열어”

37 『동아일보』 1928.12.31, 2면, “開城咸興 兩郡을 府로 昇格 決定, 明年 6月에는 實現”

38 博物館事業促進會, “朝鮮開城博物館”, 『博物館研究』 제3권 제3호, 1930, p.13.

4월에는 1930년도 예산 속에 박물관 건립 예산을 편성했다.<sup>39</sup> 이는 일본의 三井物産會社가 개성에 박물관 건립을 제안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인삼 관계로 인하여 개성시민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자본법인 미쓰이물산회사에 서는 개성시민에 대하여 일종의 사은적 의미 아래 … 찬연하던 고려시대의 문화를 천하에 자랑시킬 만한 박물관을 하나 건축하여 보겠다고 송도면 당국에 교섭”을 해온 것이다.<sup>40</sup> 당시의 교섭 내용에 따르면, 미쓰이물산회사가 건축비 1천원, 기타 유지들이 1만 4천원을 기부하며, 부족액은 송도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박물관 건축비와 기타 설비비로 총 예산을 37,500원으로 잡았다. 또한 미쓰이물산회사는 전시품 확보를 담당하여 약 4만원 상당의 고려자기와 기타 미술공예품 1,700점을 제공하기로 했다.<sup>41</sup> 이러한 당초 교섭 내용은 이후 조정되어, 미쓰이물산회사가 건축비로 1만원을 기부하고, 개성 유지들이 1만 8천원을 기부해서 2만 8천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개성부의 부비 2천원, 지방보조비 4천원을 더해 총 건립 비용은 3만 4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sup>42</sup>

비록 송도면의 폐지로 박물관 건립 사업이 중지될 위기도 있었지만, 부제의 시행 이후 1931년 3월에 처음 열린 개성부협의회는 상수도 공사와 박물관 건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결정했다. 개성부의 첫 예산은 개성군 송도면 마지막 해 예산의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위의 상수도 공사 15만원과 박물관 건설 3만 4천원이 편성된 결과였다.<sup>43</sup> 이처럼 박물관 사업이 부로 승격한 개성의 대표적인 첫 사업이 된 것은 “유람도시”로의 발전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송도면의 1930년도 예산 속에는 이미 “장차 유람도시로의 발전성을 고려한 박연폭포 직행 유람도로 건설 사업”이 들어 있었다.<sup>44</sup>

부제 시행 이후 개성부의 첫 신규 사업들을 자세히 소개한 『동아일보』 1931년 4월 23일자 기사에 따르면, 당시의 박물관 건립 사업이 “인구, 산업, 경제 방면에서는 다른 府에 손색이 없지만 제반 도시 시설 면에서는 비견할 처지가 못 되는 개성을 신진 현대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新施設 구축 작업”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sup>45</sup>

첫째로 상수도의 설비가 … 도합 45만원의 예산으로써 3년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로 개성부는 고려시대의 5백년 왕도로 시내에는 역사상에 유수한 고적이 만흔 뿐 아니라 더욱이 고려시대의 산물인 高麗磁器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노른 珍品임으로 이가튼 고려시대의 찬연한 예술품을 다수히 수집하여서 오늘날 연멸된 고대문화의 一片鱗이나마 보존하고 또 외래객에게 考古學上 참고의 재료를 제공하고자 경주의 박물관을 본떠서 개성에도 박물관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는 현부윤 金泰稔 씨가 부담하는 벽두에 개성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遊覽都市로써 목표를 세우고 도시계획을 형성하여야 나가야 된다는 포부를 발표한 후 그 실현 계획을 준비하고 있든 중 제1차의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3만 4천원의 예산으로 먼저 건물부터 고려시대의 정취가 있도록 순조선식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방금 총독부 종교과와 타합을 하면서 전문가의 손에 의하여 도본을 제작 중인데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곧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10월 1일 즉 부제실시기념일에는 開館하도록

39 『동아일보』 1930.4.2. 3면, “松都面 豫算”

40 『중외일보』 1930.4.4. 2면, “松都에 博物館, 今年부터 設置, 三井物産에서 기부하여 高麗美術品 陳列”

41 위의 글.

42 『매일신보』 1931.3.8. 6면, “施設과 熱情, 千年古都 開城에 博物館을 新建設, 今番에 府制 實施를 記念코자 有志의 寄附金 還至”; 『매일신보』 1931.5.7. 7면, “開城博物館 建設基金 滿額, 總 2萬 8千圓을 府內 篤志가 寄附”; 『朝鮮新聞』 1931.11.3. 7면, “博物館開館に際し, 金開城府尹語る”

43 『동아일보』 1931.3.24. 7면, “開城 最初の 府協議會 經過, 新事業은 上水道, 博物館”

44 『동아일보』 1930.10.2. 7면, “面廢止 同時 中止될 諸事業”

45 『동아일보』 1931.4.23. 7면, “上水道 施設, 大博物館 建設, 고적 연락 유람도로도 설계, 開城의 今年度 施設”



하리라 한다. 그런데 건축 장소는 대화정 부청 부근이 될지 장래 중앙공원 후보지인 관덕정이 될지 아직 미정이며 진렬품에 대하여는 벌써 三井會社에서 수집하여 방금 총독부 박물관에 보관 중인 고려시대의 각종 口口품 수백 점을 가져오기로 口口이 되었다 한다.

셋째로 상기한 바와 가티 개성을 장차 유람도시로 만들고저 하는 계획하에 먼저 遊覽道路를 완성시키고저 금년도에는 우선 등본정 고려청년회관 전으로부터 觀德亭에 올라 다시 善竹橋로 도라 내려오는 자동차 통행도로를 4천 2백 5십원으로 신설하는 것과 또 元町 成均館으로부터 彩霞洞을 돌아나오려는 자동차도로를 2천원으로 신설하는 것 등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 이외로도 電氣府營, 市區改正 등 중대한 문제가 있스나 이는 현재 원대한 계획으로 서서히 조사를 진행 중임으로 개성을 신면목으로 형성시킬 날이 멀지 않을 것 갓다한다.

이처럼 김병태 초대 부윤은 개성부의 도시 시설이 다른 부에 비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장차 개성을 현대적인 도시로 만드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유람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과 유람도로의 건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더해 개성 유지들의 역사의식과 애郷심을 자극하는 것 또한 박물관 사업에 대한 지역 유지들의 동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기부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김병태 부윤은 1931년 2월 초 지역 유지들에게 박물관 건립 비용의 기부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 開城府는 아시는 바와 가티 往昔 467年間이라는 오래동안 高麗의 帝都로서 燦然한 高麗文化 發祥地임은 다언할 것도 업습니다. 이에 往昔文化의 跡을 차저서 朝鮮文化에 貢獻이 多大한 高麗의 遺業을 追想研究코자하는 考古學者 其他 多數 人事의 從來는 逐日遞增하는 趨勢인즉 지금 開城을 널리 紹介하는 데도 便할 뿐만이라 當地 發展上의 一因임이 確言無疑하고 此等 來訪者의 가장 熱望하는 바는 府內에 散在한 古蹟과 當時 製作使用하던 古器物 及 美術工藝品 等이다. 그러나 考古學者의 熱望하는 古器物 等은 大部分이 個人的 所有로 自由로 愛好家의 研究에 供할 物件이 업는 것은 遺憾으로 생각한다. 이 缺陷을 補充하라면 前記 古器物中 代表的의 物件을 一堂에 蒐集하야써 古蹟을 探勝한 後 다시 往昔의 美術工藝品에 對하야 往昔을 追想하면 充分한 研究를 하계 함에는 博物館의 設置를 最緊要한 事라고 信한다. 또 此를 對內的으로 볼지라도 當地 諸學校 生徒의 教材가 되고 特히 高麗朝 廷臣의 子孫이 多한 府民으로 往昔을 追憶하며 文化를 다시 向上하야써 府勢 進展의 刺戟을 與하는 意味에서 府制 實施 記念으로 博物館의 設置는 가장 意義 있는 일이다.

그러나 博物館 設置에는 小하야도 3萬圓 以上の 經費를 要하는데 이 財源을 何에서 求할는지 또한 問題이다. 面이 府로 昇格되었다고 갑자기 歲入이 增加할 理도 없스니 經費의 大部分은 有志의 寄附를 기다릴 丈게 다른 道理가 없다. 開城에 가장 緣故가 깊은 三井物產株式會社에서 博物館 建設의 必要와 此에 伴하야 財源難의 苦衷를 披瀝한 바 잇서 目下 財政不況 時에도 不拘하고 本府의 苦痛을 諒察하고 1萬圓의 巨額을 好意로 寄附하는 것은 尙혀 篤志의 事로서 5萬 府民을 代表하야 深謝不已하는 바이다. <sup>46</sup>

김병태 부윤은 개성을 ‘帝都’라 치켜 올리고, 개성 유지들은 고려왕조 관료들의 후예임을 강조하면서, 개성 유지들

46 『매일신보』 1931.2.9. 3면, “開城博物館 建設 機運 濃厚, 三井會社에서 1萬圓 寄附, 殘額은 府民에게 企待”

의 지역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업이 개성을 널리 소개하는 좋은 방안으로 개성 발전의 요인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여론이 매우 우호적임을 전제한 그는 이러한 문화 사업이 고적 탐승에 이어지는 미술공예품 연구에 이바지하고, 관내 학생들의 교육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府勢 진전'의 자극제가 될 것임을 설득하고 있다.

불황기에 접어든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개성부는 일반 부민의 소액 기부금은 모집하지 않고 소수 유력 유지들의 기부를 받기로 했다.<sup>47</sup> 그의 설득은 성공적이었다. 한 달만에 개성의 유지들로부터 1만 1천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3개월여 만인 1931년 5월 초까지 목표액 1만 8천원을 채울 수 있었다. 미쓰이물산(1만원)과 식산은행(1천원), 한성은행(5백원) 등 기업이 3곳이 1만 1천 5백원을, 각각 1천 5백원을 낸 김원배와 김정호 등 개성의 유지 19명이 총 1만 6천 5백원을 기부했다.<sup>48</sup>

흥미로운 점은 기업을 제외한 개인 기부자 19명이 모두 개성 상권과 자본을 대표하는 한국인이었다는 점이다.<sup>49</sup> 김원배, 김정호, 공성학은 당시 개성 자본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개성영신사, 인삼제조업체인 고려삼업사, 개성전기주식회사의 설립에 함께 관여했다.<sup>50</sup> 특히 김정호는 개성전기회사의 사장이자 개성부회 의원, 개성상공회의소 특별의원이었고,<sup>51</sup> 서화 수집에도 취미가 있었다.<sup>52</sup> 또한 공성학은 삼포와 양조장, 상사를 소유한 개성 자본의 대표인물로, 1933년 개성의 지역 언론 『高麗時報』의 창간을 주도한 孔鏌恒의 아버지였다.<sup>53</sup>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 하에서 개성이라는 지역 사회가 갖는 독특한 지역성을 반영한다. 개성의 첫 부윤으로 한국인인 김병태가 부임했고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개성부윤은 한국인이었다는 점부터, 식산은행 등 중앙 기관의 개성 지점 기관장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sup>54</sup> 이는 한국인들이 인삼의 경작과 그 가공업을 기반으로 개성의 실업계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5</sup>

일본기업인 미쓰이물산회사가 개성부립박물관 건립에 거금을 기부한 것도 결국은 사업 상대인 개성 실업계와 개성부 당국에 대한 로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31년부터 미쓰이물산회사가 조선식산은행 대신 삼업 자금의 차입 기관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sup>56</sup>

기업과 지역 유지의 기부금으로 박물관 건립 예산을 확보한 개성부는 건립 부지로 거론되던 大和町 府廳 부근과 중앙공원 후보지였던 觀德亭의 두 곳 중 부청 인근의 東本町 5번지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곳은 개성 시내 한복판의

47 위의 글.

48 『매일신보』 1931.5.7. 7면, “開城博物館 建設基金 滿額, 總 2萬 8千圓을 府內 篤志가 寄附”. 이 기사에 따르면, 金元培·金正浩 등 2명이 각각 1천 5백원, 孫鳳祥·韓明錫·孔聖學·俞漢模·安承億·李熙英·林漢瑄·林漢祖·崔善益·朴尙愚 등 10명이 각각 1천원, 李祖一·朴東珪·秦柄建·馬玄圭·崔益模·高漢承·朴尙裕 등 7명이 각각 5백원을 기부했다.

49 정종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東方學志』 151, 2010, p.315.

50 이승렬, 『제국과 상인—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7, p.309.

51 최석영, 『한국박물관 역사 100년: 진단 & 대안』, 민속원, 2008, p.141.

52 광복 후 1946년 10월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은 김정호가 소장한 한국 및 중국 회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국립박물관, 『관보』 제5집, 1947, p.13).

53 정종현, 위의 글, 2010, pp.302-303.

54 秦弘燮, 「開城博物館의 回顧」, 『開城』, 藝術春秋社, 1970, p.167.

55 金性燦, 「八·一五와 開城」, 『開城』, 藝術春秋社, 1970, p.264.

56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206.

子男山 남쪽 기슭으로 선죽교나 송양서원에 가까워서, 관광 권역의 구축에 유리한 입지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지는 개성부 향교의 재산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sup>57</sup> 광복 후 이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의 개성 분관이 되고 난 뒤 1947년 4월부터 이 박물관의 관장으로 근무했던 진홍섭은 “박물관 앞뜰에 서면 개성 시가의 동반부를 굽어볼 수 있으니 가위 개성의 명물의 하나였다”고 회고했다.<sup>58</sup>

개성부 당국은 총독부에 개성부립박물관의 설계를 총독부에 의뢰했지만,<sup>59</sup> 개성 유지들의 영향력은 박물관 건물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드러났다. 김병태 부윤은 개성이 고려의 옛 도읍지이므로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純朝鮮式’ 건물을 짓는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sup>60</sup> 이는 박물관 건립 사업에 거액을 기부한 개성 유지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고, 고도 개성을 ‘유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sup>61</sup>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성부립박물관은 실제로는 건평 약 87평의 煉瓦造 耐火 건물로 건립되었지만, 그 외관은 한국 전통 건축 방식의 기와집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sup>62</sup> 이러한 건립 사업의 총경비는 총 3만 4천원이었는데, 박물관 건물 건축에 2만 2천원, “본관의 내부 修飾과 진열장 기타에 대한 총설비, 사무실과 관장 관사의 내부 수식에 대한 총설비”에 1만 2천원이 들었다.<sup>63</sup>

부제 실시 1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부립박물관의 개관식은 마침내 1931년 11월 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sup>64</sup> 개성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경기도 당국에서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오다 시마(小田島)學務局長이, 총독부에서 하야시(林茂樹)學務局長과 李昌根 宗教課長<sup>65</sup>, 개성 유지 등 이른바 ‘官民有志’ 다수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내빈 중 이모리(伊森) 전매국 출장소장, 오카모토(岡本豊喜) 京畿道評議員, 손봉상 蔘業組合長, 박봉진 府會議員이 대표로 祝辭를 했으며, 이어서 미쓰이물산이 보낸 祝電의 낭독이 있었다.<sup>66</sup> 이어서 고려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새 박물관의 전시를 안내한 것은 식민지 고고학 연구의 선봉에 서 있던, 조선총독부박물관 주임이자 경성제국대학의 조교수를 겸임하던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였다.<sup>67</sup> 참석 인사의 면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개관식은 당시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는 개성을 둘러싼 총독부와 지방정부, 개성의 한국인 유지, 일본 굴지의 기업, 식민지 고고학이 맺은 관계망의 단면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는 행사였다.

57 ‘개성부 차입재산표’에 따르면 박물관 용지 임야 1,000평은 開城府 郷校財産으로 無料 借受土地이며 借受期間은 ‘영구’라고 되어 있다(開城府, 『昭和十年開城府稅入出豫算』, 1936, p.9).

58 秦弘燮, 앞의 글, p.167.

59 日本博物館協會, 『開城博物館工事入札』, 『博物館研究』 제4권 제7호, 1931, p.15 및 『朝鮮新聞』 1931.11.3. 7면, “博物館開館に際し, 金開城府尹語る”

60 日本博物館協會, 『開城博物館工事入札』, 『博物館研究』 제4권 제5호, 1931, p.5.

61 일본인 고고학자 고이즈미 아키오도 개성박물관의 건물이 개성에 어울리는 순조선풍 양식을 취했으며 색채도 매우 청초해서 느낌이 좋다고 기록했다(小泉顯夫,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 제2권 4호, 1933, p.40).

62 이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신축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서양 고전식 건물이었던 점이나, 1932년에 건립된 평양부립박물관이 현대식 건물이었던 점과 큰 차이가 있다.

63 『매일신보』 1931.10.31. 7면, “開城博物館開館式, 11월 1일에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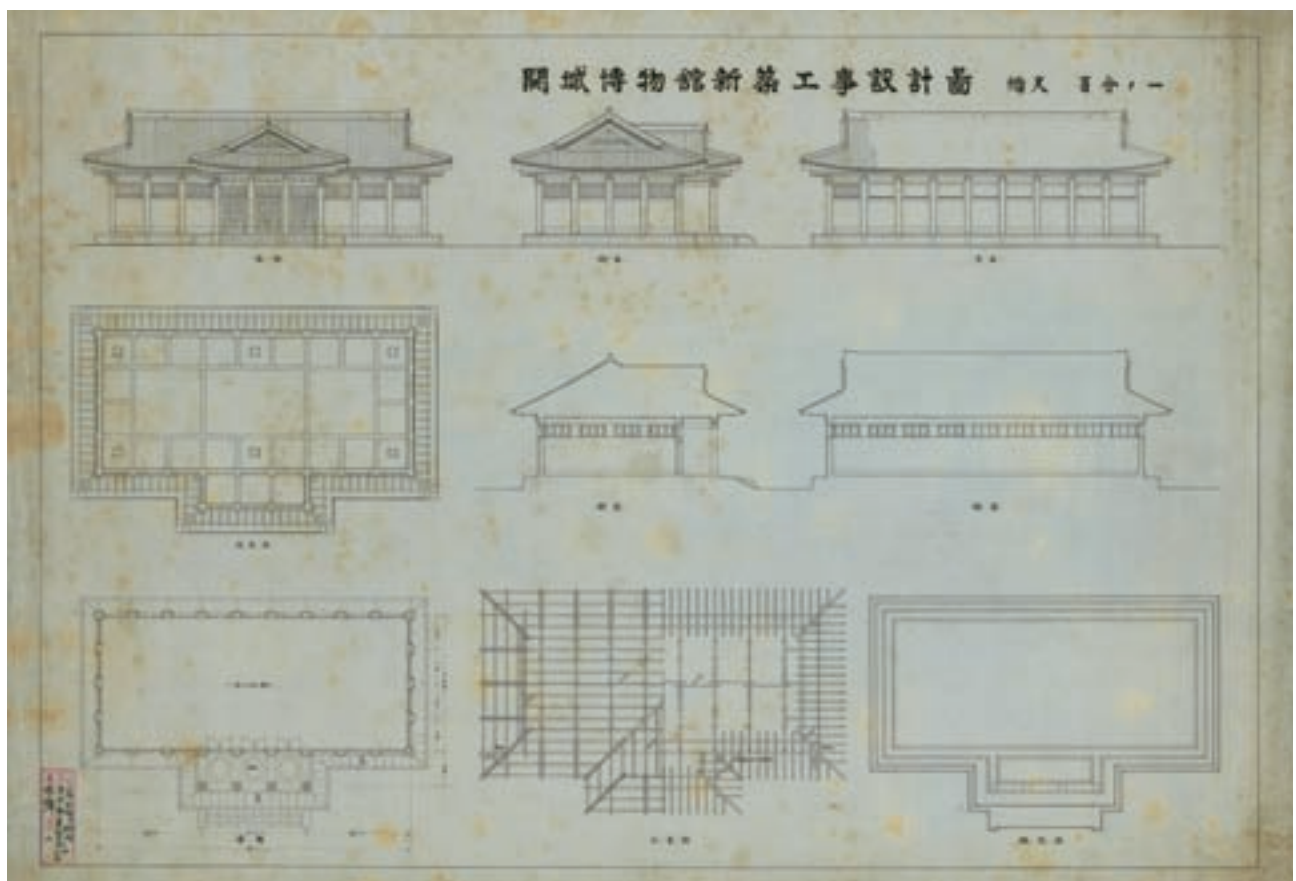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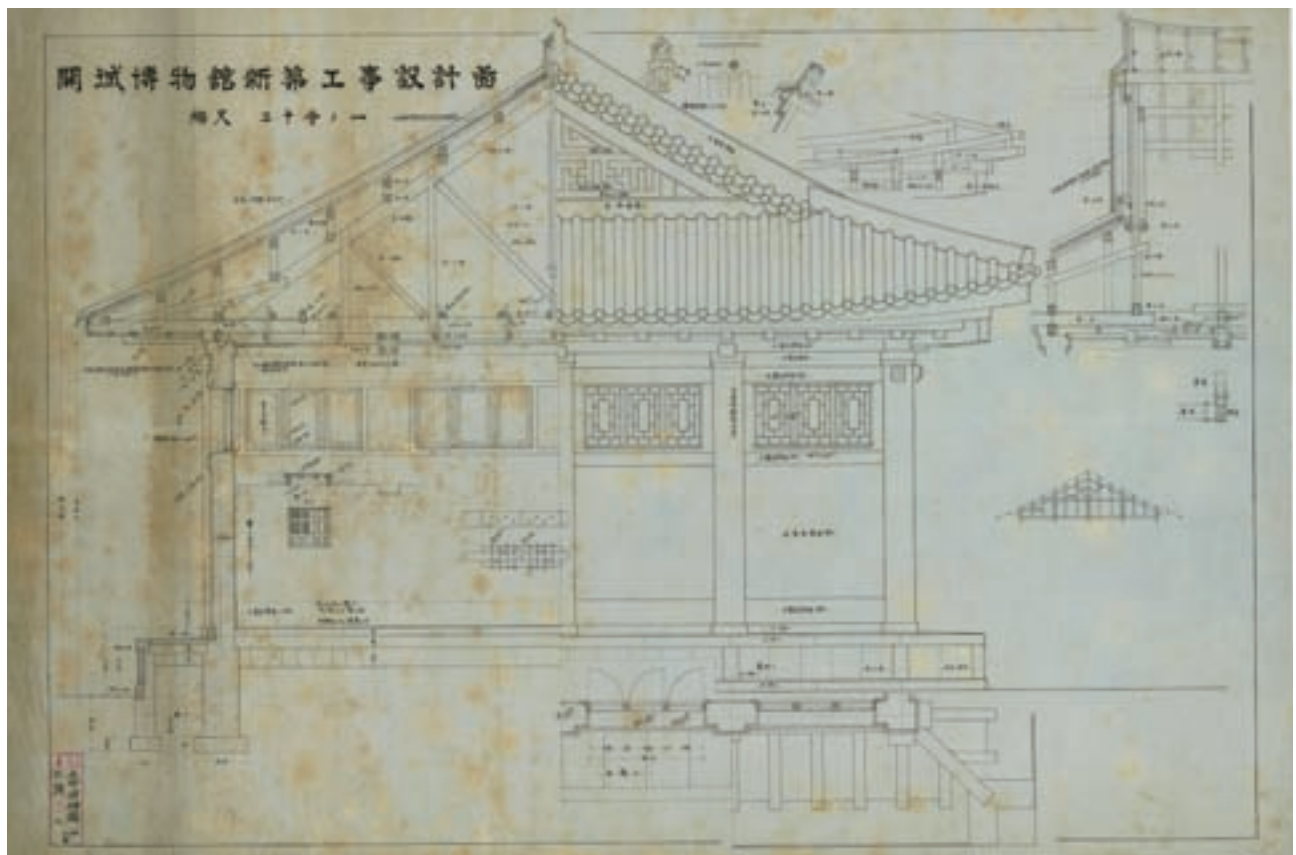
64 『매일신보』 1931.11.3. 9면, “盛況裡 舉行한 開城博物館 開館式, 관민 다수가 참석, 閉式後에 祝賀宴”

65 1931년 개성부립박물관의 개관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등 전국의 박물관과 고적 관계 사무를 총괄하는 조선총독부 담당 부서는 학무국 종교과였다.

66 위의 글; 『朝鮮新聞』 1931.11.3. 7면, “開城博物館 開館式 舉行, 松本知事以下多數參列, 11日 1日盛大に”

67 『매일신보』 1931.10.31. 7면 기사(“開城博物館開館式, 11월 1일에 거행”)에는 ‘藤田 총독부박물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총독부박물관에는 ‘관장’ 직위가 없었다. 『매일신보』에서 총독부박물관 주임인 그를 총독부박물관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식민지 역사문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총독부박물관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1·2 〈개성박물관 신축공사 설계도〉, 국가기록원 소장



도판 3 신축된 개성부립박물관과 김병태 개성부윤을 소개한 신문기사  
(『朝鮮新聞』 1931.11.3. 게재 사진)



도판 4 개성부립박물관 출입구 앞의 고유섭(가운데)

개성부 당국이 박물관 개관 축하 행사로 일반 부민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 연희인 山臺都監劇 공연을 마련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sup>68</sup> 연희자들은 박물관에서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시내 중심부를 한 번 돌면서 부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어서 공연 장소인 만월대로 이동해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보도한 『매일신보』에 따르면 “조선 고유의 야외극이 오래간만에 공연되매 다시 한 번 보기 위하여 백사를 전폐하고 만월대로 향하며, … 만월대 너른 벌판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얏섯다”고 전한다. 박물관 개막식과 축하연을 마친 뒤 김병태 부윤은 마쓰모토 지사, 총독부의 하야시 학무국장을 안내해 만월대를 찾아 산대도감극을 관람하도록 했다.

한편 개성부 당국과 개성 유지들이 협력해 설립한 개성부립박물관을 이끌 관장이 10월 15일 박물관 건물의 준공 이전에 내정되었다. 그는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李英淳이었다.<sup>69</sup> 당시 이 소식을 알린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개성박물관장에 조선인을 채용하는 것은 또한 의미 깊은 일이요 부 당국의 당연한 조처라고 일반은 생각한다”고 전했다.<sup>70</sup> 이영순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교육받은 제국의 엘리트이기도 했다.

식민당국이 제국대학 출신의 그를 관장으로 삼은 이유는 일본제국의 학문 체계 속에 식민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68 『매일신보』 1931.11.3. 9면, “祝賀氣分에 넘친 市民과 各種餘興, 넷 궁터 만월대에서, 山臺都監劇도 公開”. 개성부는 개성 지역의 연희자가 몇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국에서 가장 산대극을 잘하는 양주 지역의 연희자 13명을 초청해서 개성의 연희자들과 함께 공연하도록 했다.

69 교토대학 졸업생 명부에 따르면 이영순은 1928년에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해서 1931년 3월에 졸업했으며 전공은 동양사였다(정종현, 앞의 글, 2010, p.316, 주71 참조).

70 『매일신보』 1931.10.6. 7면, “開城博物館 館長에 李英淳 氏, 공사 준공은 예정보다 느저, 來15일에 開館式”

를 큰 충돌 없이 편입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sup>71</sup> 이는 식민당국이 삼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성의 유력한 한국인 상인들의 영역과 실력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식민 통치의 틀 안에 효율적으로 포섭하는 유효적인 조치였다. 또한 박물관 전면 중앙의 출입구 상단에 걸리게 된 대형 현판에 한자로 새겨진 ‘博物館’이라는 글씨가 개성 삼업계의 대표자인 孔聖學의 작품이었던 점도 식민권력과 개성 유력자들이 타협하고 이해를 조정해 가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up>72</sup>

#### Ⅳ 개성부립박물관의 운영과 고유성

1930년 1월 개성군 송도면 협의회에서 개성부립박물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미쓰이물산회사에서 전시품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미쓰이물산의 최초 제안은 건축비보다는 전시품의 확보 쪽에 많은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최종 조정 결과 건축비로 당초 1천원의 10배인 1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미쓰이물산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한 전시품도 일단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이것을 개성부립박물관이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sup>73</sup> 이에 따라 미쓰이물산회사는 경성의 문화재 수집가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소장품을 구입해서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했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이 기증품의 대부분과 자체 소장품 일부를 개성부립박물관에 기탁의 형식으로 대어했다.<sup>74</sup>

개성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전시품을 조달하고 실제 진열 작업을 담당한 것은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들이었다. 총독부박물관의 주임 후지다는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技手, 노모리 겐(野守健)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의 소장품과 미쓰이물산이 기부한 고려자기, 부민들이 출품한 고려자기 등을 신축 준공된 박물관에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열했다.<sup>75</sup> 이들은 부민들의 출품 희망 유물 중 진열품을 고르기 위해 소장가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sup>76</sup>

개관 당시의 전시 상황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1933년 2월 8일 개성부립박물관을 찾은 일 본인 고고학자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의 기록과<sup>77</sup> 이후 1936년 4월 개성부립박물관이 펴낸 『開城府立博物館案内』의 내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개성부립박물관안내』에는 박물관 본관 건물 내부의 진열장 배치도가 첨부되어 있고, 각 진열장별 전시의 주제와 전시품 내역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고이즈미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는 80평이나 될 것으로 생각되는 넓은 공간인데, 벽의 상부에는 전부 유리창이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진열실의 조명 상태는 지극히 양호하다. 진열(품)은 돌레의 벽에 붙여서 놓은 진열장과 중앙의 視棚(조감장?) 8개에 배치되어 있는데, 먼

71 개성부립박물관에 한국인 관장을 임명한 데 대한 논의로 정중현(2010)의 글이 참고가 된다.

72 공성학은 삼포를 운영한 사업가인 동시에 시문을 쓰고 여러 간행사업에도 참여했다(이은주,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孔聖學의 간행사업 연구, 『어문학』 118, 2012, pp.186-187.

73 『개성보승회 사업비 보조 신청 문서철』, 1939.3.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74 開城府立博物館, 『開城府立博物館案内』, 1936, pp.9-10.

75 『매일신보』 1931.10.31. 7면, “開城博物館開館式, 11월 1일에 거행”

76 개관 이후 1933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성부립박물관의 상설 전시품 통계〉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품이 244점, 개성부민의 기탁품이 56점, 개성부립박물관 소장품이 47점으로, 총독부박물관 등 외부 유물이 86.5%에 달했다.

77 小泉顯夫,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 제2권 4호, 1933, pp.40-41.



저 입구의 왼편으로부터 순서대로 보게 되면 최초의 장소에는 고려 최후의 충신 정몽주의 초상과 그 筆跡이 진열되어 있어서, 특히 관람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이것에 이어 각 진열장에는 고려시대의 청동기를 비롯해서, 靑磁, 白磁, 繪高麗, 天目 등의 도자가 주를 이루고, 이것에 교대해서 佛像, 佛具부터 일상용의 雜具 등이 진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유물은 경성의 박물관을 보고 온 눈으로서는 결코 감동을 줄 만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인연이 깊은 곳에서 그것을 감상하는 기분이 전해져서 다른 박물관에서 볼 때의 느낌과는 다른 일종의 감흥이 용솟음쳐 왔다. 전시실의 중앙부에 있는 진열장에는 주로 개성 부근의 왕궁지에서 나온 瓦塼類가 진열되어 있다.<sup>78</sup>

고이즈미가 방문했던 1933년 2월의 전시 내용은 1931년 11월 개관 당시의 전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1936년 4월 『개성부립박물관안내』에 소개된 전시 내용은 고이즈미가 보았던 전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박물관 건물의 벽을 따라 진열장을 배치하고 중앙부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설정한 기본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고이즈미의 방문 이후 도자기 컬렉션과 대형 불상이 개성부립박물관에 입수되면서 전시 구성과 내용에 일정한 조정이 필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이즈미가 다녀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초대 관장이었던 이영순을 대신하여 경성제국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의 미학연구실에서 근무하던 高裕燮(1905~1944)이 1933년 4월 1일 개성부립박물관의 두 번째 관장으로 부임했다.<sup>79</sup> 그가 남긴 일기에 따르면 이미 1931년 12월에 그는 지도교수인 우에노(上野) 교수로부터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직을 제안 받은 바 있었다.<sup>80</sup> 우에노 교수가 그에게 “개성으로 가면 공부도 하고 좋으니 가라”며 권유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개성부립박물관장으로 좀 더 일찍 부임할 수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개인 신변 상의 일로 이영순 초대 관장이 사직한 뒤 그를 이어 관장직을 맡을 사실상 제1위의 후보였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고유섭이 부임한 1933년을 전후로 하여, 開城府會에서는 人蔘浴湯을 개설하는 사업과 함께 개성보승회의 부활이나 개성부립박물관의 내실화와 같은 사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부로 승격한 개성부의 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부립박물관의 경우, 앞서 살핀 대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일반 府民의 소장품을 차용해서 전시할 뿐, 자체 소장품을 거의 갖지 못한 점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sup>81</sup>

개성의 유지였던 高漢鴻은 개성보승회를 부활시켜 재단법인화할 수 있도록 5천원을 기부했는데, 개성부회에서는 이를 박물관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비용으로 전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의 기부액이 재단법인화에 필요한 금액 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인삼육탕의 추진이 보류되면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3천원을 박물관으로 전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8천원에 개성 유지 4, 5명의 은행 대출금을 더해, 개성부회는 개성부 내의 문화재 수장가로 유명한 나카다 이치고로(中田市五郎)로부터 27점의 고려자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대출금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상환하기로 했다.<sup>82</sup>

78 위의 글, p.40.

79 고유섭, 『朝鮮金石學 草稿』 又玄 高裕燮 全集 제10권, 열화당, 2013, p.204.

80 고유섭, 『隨想·紀行·日記·詩』 又玄 高裕燮 全集 제9권, 열화당, 2013, p.279.

81 “순전한 開城府 소유물로는 겨우 시가 45원의 물품이 진열되어 있을 뿐이다(『매일신보』 1933.10.19, 4면, “博物館 內容 充實, 異議없이 通過, 開城府會에서”).”

82 위의 글.



도판 5 개성부의 구입 대상 도자기(『동아일보』 1933.11.13. 3면)

마침내 1933년 11월 10일 개성부는 나카다로부터 그의 소장품 백여 점 중 30여 점을 2만원에 구입해서 박물관에 보내기로 했다.<sup>83</sup> 당시의 한 언론은 이러한 조치가 1933년 4월 7일 2대 개성부윤으로 부임한 李基枋이 “개성박물관을 확장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는 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磁器 전부가 고려시대의 重寶인 관계로 박물관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는 개성부 측의 평가를 전하고 있다.<sup>84</sup>

이처럼 개성부의 큰 기대 속에 새로 확보된 고려자기를 기존 전시 구성 안에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부임 첫 해의 고유섭 관장에게 중요한 과제이자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개성부립박물관에 대한 개성부의 관심은 1934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개성보승회를 부활시켜 보승회에서 박물관을 경영하게 하고 독지가의 기부 또는 보조를 얻어 내용을 충실케 하는 것이 좋겠다는 林漢瑄 개성부위원의 질의에 대해 府議長은 보승회의 부활과 박물관 내용의 충실을 약속했다.<sup>85</sup> 이러한 사실은 개성부 내에서 박물관의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이 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듬해인 1935년에는 고려자기와 공예품 등 소품 위주의 전시 구성에 일정한 변화를 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 먼저 이 해 8월에는 개성보승회로부터 4천원 상당의 고려자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다.<sup>86</sup> 또한 고유섭 관장은 이 해의 古蹟 愛護日을 계기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교섭을 진행하여,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개성 寂照寺址 철제 좌불과 고려 석관을 개성부립박물관으로 빌려 오는 데 성공했다.<sup>87</sup>

이는 전시품을 차용해서 전시를 풍성하게 한다는 차원에 더해, 원래 개성에 있다가 서울로 옮겨진 문화재들을 원소재지인 개성으로 되찾아 온다는 데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개성부립박물관은 이 일에 대해 “옛 고향이던 고려 송도를 다시 찾아와서 개성박물관의 위관을 이루게 되었다”는 동아일보의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개성부립박물관은 또한 이들 문화재의 전시를 마친 뒤, 1935년 10월 1일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불상 공양식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반향을 얻고자 했다.<sup>88</sup>

83 1936년 개성부립박물관이 발간한 『개성부립박물관안내』에는 개성보승회가 개성의 유지 高漢鴻의 기부금을 받아 개성의 문화재 수집가 나카다 이치고로(中田市五郎)의 수집품을 사서 개성박물관에 출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개성부립박물관안내』, p.9).

84 『동아일보』 1933.11.13. 3면, “七八百年 前의 高麗磁器 羅列, 총수 30여 점에 2만원어치, 開城博物館 內容 充實”; 『조선중앙일보』 1933.11.12. “세계 학계 자랑인 고려자기 진열, 구하지 못할 27점을 사서”; 매일신보 1933.4.9. 1면, “黃海道知事를 비롯하여 本府의 異動發表, 7日附로써 發令”

85 『매일신보』 1934.3.23. 5면, “戰跡을 流水로, 原案을 可決, 博物館 內容 充實을 約束, 開城府會 閉幕”, 동아일보 1934.3.26. 4면, “개성부회 종막”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다. … 박물관 내용 충실”

86 『조선중앙일보』 1935.8.5. 3면, “개성박물관에 고려자기 기부”

87 『동아일보』, 1935.9.17. 5면, “千年前의 佛像과 石棺 故郷 찾아 다시 松都에, 공진회 때 만인의 찬양 받든 것, 開城博物館에 奉安” 및 『매일신보』, 1935.9.18. 5면, “高麗遺物 寂照寺佛像 開城博物館에서 保存”

88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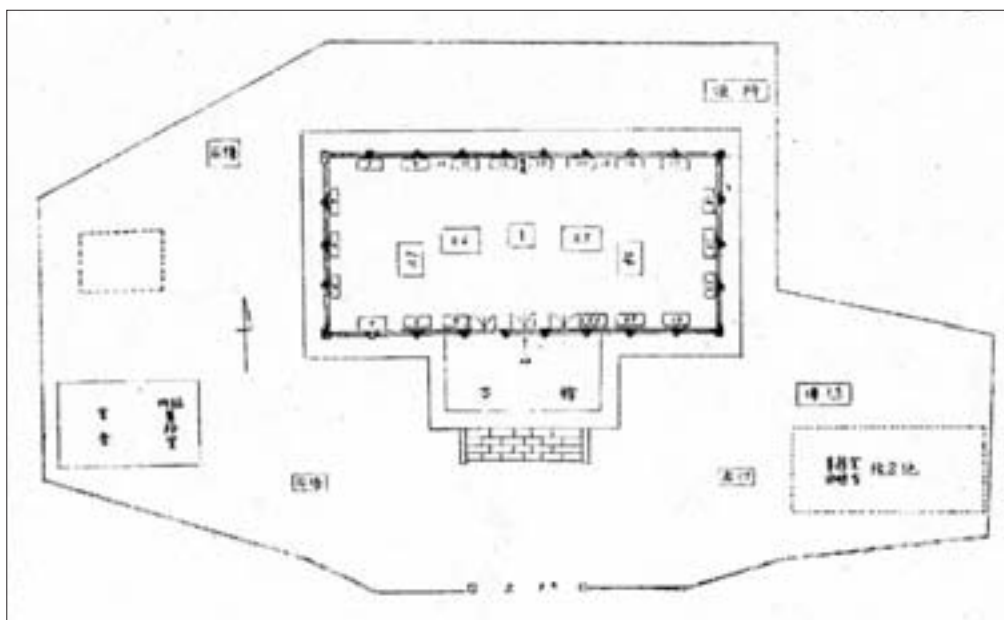
도판 6 불상 공양식 모습(1935년 10월 1일)



도판 7 『개성부립박물관안내』 표지와 수록 사진(박물관 내·외)







도판 8 博物館縱覽順序見取略圖(개성부립박물관, 『개성부립박물관안내』, 1936 수록)

고유섭 관장은 박물관의 중앙 전시 공간을 개편해서 이 철불과 석관을 배치했다. 이로써 소형 공예품 위주로 단조로웠던 기존의 전시 구성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유섭 관장은 1933년 4월 부임한 이래 1935년 10월까지 2년 반 동안 전시 내용을 개편한 데 이어, 곧 바로 박물관 안내서의 발간을 준비했다. 이듬해인 1936년 4월에 발간된 『개성부립박물관안내』는 고유섭 관장의 부임 이후 전시 개편 결과를 수록한 본격적인 박물관 안내서였다.

이 안내서에는 ‘博物館觀覽心得’, 박물관의 외부와 내부를 담은 사진, ‘博物館縱覽順序見取略圖’, 8건의 대표 전시품 사진에 이어서, 안내서 발간을 축하하는 개성부윤 이기방의 題贊(丙子年), 박물관 건립 당시의 부윤 김병태의 博物館記(1931년), 건립기금 기부자 손봉상과 공성학의 박물관기(1931년)가 나오고, 그 뒤로 50쪽 분량의 안내문이 이어진다. 안내서의 말미에는 박물관 건립에 기부한 三井物産, 殖産銀行, 漢城銀行 등의 3개 기업과 金元培 등 19명의 기부자 명단이 붙어 있다.

이 중 안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품 설명 문안은 전시품의 분야에 따라, 불상, 금속기, 도자, 서화, 瓦塼, 鏡鑑, 石棺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시실 내의 관람 동선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전시품의 수량 면에서는 몇 점에 불과한 불상류를 설명문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고려시대 미술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영향력을 감안한 것이며, 실제 전시실에 들어선 관객이 처음 마주치는 유물이 적조사지 철불이 되도록 한 전시 구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유섭이 “고려석불로서 능히 대표적 지위”에 있을 만하다고 평가한 석조미륵불상이 박물관 바깥 오른쪽 정원에 있음에도 불상 설명 중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도 전시 구성에서 불상류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고려로 보인다.<sup>89</sup>

89 高裕燮, 『開城博物館의 珍品解説』, 『朝光』 1940.6월, p.92.

표1. 개성부립박물관 전시 내역\*

구분	전시품	위치 또는 진열장 번호
佛像類	石造彌勒立像	庭前
	鐵製釋迦如來坐像	陳列場 第1號
	靑銅鍍金阿彌陀如來坐像	陳列棚 第2號
	靑銅阿彌陀如來坐像	陳列棚 第24號
金屬器類	靑銅製銀象嵌蒲柳水禽文淨瓶	陳列棚 第2號
	靑銅小鐘	陳列棚 第2號
	靑銅製小塔	陳列棚 第2號
	鐵製兜(1933년 발견되어 기증됨)	陳列棚 第3號
陶磁類	素燒	陳列棚 第4號
	靑瓷	陳列棚 第5號부터 第13號
	繪高麗	陳列棚 第14號
	白磁	陳列棚 第16號부터 第18號
	天目	陳列棚 第19號부터 第20號
	三島手	陳列棚 第21號
	染付	陳列棚 第22號
書畫	鄭夢周 肖像 및 吉再 成三問 筆蹟	陳列棚 第23號
瓦磚類		陳列棚 第25號
鏡鑑類		陳列棚 第26號
石棺		陳列棚 第27號
興國寺 石塔		庭前

\* 개성부립박물관, 『개성부립박물관안내』, 1936, pp.10-45에 따름. ‘관람순서도’에 박물관 건물 오른쪽의 ‘石燈’ 표시는 장차 開國寺址 석등이 설치될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에 안내서 본문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 또한 관람순서도에 흥국사 석탑 뒤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石幢은 1935년 9월에 발견되어 박물관에 입수된 것이다.<sup>90</sup>

하지만,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성박물관의 전시품 중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고려자기를 비롯한 도자류였다. 전체 27개의 진열장 가운데 19개가 도자 전시에 할애되었고, 이 중 10개에 고려자기가 전시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대여품이나 민간 유지의 기탁품, 개성부의 구입품 중에서 도자기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1945년의 광복 이후 국립박물관의 분관으로 편입된 개성박물관의 소장 유물 통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즉 총 315점의 소장품 중 약 73%에 달하는 229점이 도자류였던 것이다.<sup>91</sup>

고유섭 관장이 1940년 월간지 『朝光』에 기고한 글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의 고민과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당시 개성박물관에 대해 “서화는 없고 도자기뿐이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고유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고려시대의 서화는 구하기 어렵고 조선시대 서화도 개성에 관련된 것이 많지 않음을 토로하면서, 고려나 개성과 관련 없는 것을 전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성이 高麗朝의 故鄕의 地였던 만큼 개성박물관은 고려의 역사관계, 미술공예 방면을 주로 하며, 대개 개성의 유물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개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지방의 것도 무관하며, 고려시대의 특색을 알기 쉽게 해줄 수 있다면 다른 시대의 참고유물도 전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90 『고려시보』 1935.9.1. “팔백년전 석당 발굴, 개성박물관에 보관, 고고학 연구에 신자료”

91 국립박물관, 『관보』 5, 1947, p.15.



도판 9 개성부립박물관 전시실 내부(건판13810 및 건판13811)

바로 개성박물관에서 분청사기나 청화백자 등의 조선시대 유물이나 중국 도자기를 전시하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였다.<sup>92</sup>

그럼에도 그는 개성박물관의 대표 작품 10점을 소개하는 이 글에 도자류로는 청자기와와 화금상감청자 두 점만을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로 소개했다. 대신 그는 개성박물관의 ‘珍品’으로 10점을 꼽고 이 중 정원에 전시된 석조미륵불상을 첫째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개국사지 석등, 홍국사지 석탑, 석당, 적조사지 철불, 청동여래상을 차례로 소개한 뒤 도자류를 설명했다. 이는 개성박물관이 도자에만 편중된 박물관이 아니라 고려시대 미술문화 전반의 이해를 지향하는 박물관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93</sup>

그는 1933년 부임한 이래, 첫 해에 개성부와 개성보승회의 협조로 고려자기를 중심으로 자체 소장품을 확충했고, 1935년 홍국사지 석탑과 개국사지 석등 등의 대형 석조 문화재를 박물관에 입수했으며,<sup>94</sup> 마침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부터 고려시대 대형 철불과 석관을 차용해서 전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결국 개성부립박물관을 고려시대의 미술문화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고려시대 미술 전문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한 개성박물관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방향을 고민하기도 했다. 즉 개성박물관은 “지방의 박물관인 만치 향토애의 뜻으로 그 지방에 관계있는 것이라면 신라나 李朝나 할 것 없이 개성의 관계 된 것이면 모두 모으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sup>95</sup> 이는 그가 지역 박물관으로서 개성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임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이 박물관의 담당해야 할 콘텐츠를 지역사 분야로 확장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92 고유섭, 『開城博物館의 珍品解説』, p.91.

93 조선총독부가 연속 간행물로 펴낸 『박물관진열품도감』 제16집(1941)은 개성박물관 진열품 특집호로 마련되었는데, 총 12건의 게재 유물 중 7건이 도자류여서 고유섭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94 『동아일보』 1934.12.5, “개인정원 고려조 미술탑, 총독부에 교섭하여 내년 봄에 개성박물관에 이관”

95 고유섭, 『開城博物館의 珍品解説』, p.91.





도판 10 흥국사지 석탑(건판13804)



도판 11 개국사지 석등(건판13807)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판단했듯이, 그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데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力不及”).<sup>96</sup>

앞서 살핀 대로, 개성부립박물관은 개성이 부로 승격하고 이로써 근대 산업도시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지역 유지들의 기대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고려왕조의 수도가 자리했던 개성 지역에 뿌리내려 살아온 유지들의 역사의식과 자부심도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동기가 일정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박물관 사업의 주된 동력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근대 산업도시로서 개성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사업과의 연관성이 개성박물관에 대한 개성부 당국과 개성 유지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33년 1월 『동아일보』가 개성박물관의 관객 통계 기사를 실어 개성박물관의 ‘실적’을 소개한 것은 개성부 당국의 홍보 의지와 개성 유지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31년 11월 1일의 개관 이래 1932년 말까지 “찬란하든 려조 문명의 정수를 진열한” 개성박물관을 찾은 관객은 총 15,000명이며, 이 중 무료는 10,629명, 유료는 4,371명이었다. 기자는 이러한 수치가 “다수”라고 평가하며, 구미 각국의 유수한 고고학자가 17명이나 박물관을 관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97</sup>

이러한 ‘실적 홍보’는 개성부회 내에 존재하는 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이 개관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열린 1932년의 개성부회에서 임한선 의원은 김병태 부윤이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경상 운영비를 당국의 보조로 충당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부담을 府民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개성부에

96 위의 글.

97 『동아일보』 1933.1.18., 3면, “개성박물관 작년 관람자수”



도판 12 개성부립박물관의 외관

박물관보다 더 시급한 시설과 긴절(緊切)한 사업이 많음을 주장하면서 박물관 비용은 다른 곳에서 구할 것을 요구했다.<sup>98</sup>

운영비를 둘러싼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개성부 당국은 고도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관광사업에 기대를 걸었다. 관람객 통계가 발표된 이튿날 『동아일보』는 개성부 관내의 관덕정, 선죽교, 박물관, 철도공원, 만월대 등의 명승고적에 전부 전등이 설치되어 탐승객에게 편의를 주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놓고 있다고 보도했다.<sup>99</sup> 이처럼 개성부립박물관을 관광 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본 개성부 당국은 1935년 8월에는 개성부 중심부에 대유원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sup>100</sup>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선죽교로부터 정몽주의 집터, 송양서원, 박물관, 관덕정에 이르는 일대에 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고려의 문화를 손색 없이 소개할 수 있고 이로써 관광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일반 부민들이 기대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부 당국은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이들의 일정으로 개성의 명승지인 박연폭포와 천마산을 홍보하기 위해 개성부내 관공서장, 부회의원, 신문기자를 초청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sup>101</sup> 이때의 여정은 첫날 부청을 출발해서 선죽교, 약초 재배지, 동대문지, 원통사, 북성지, 개성암, 박연폭포를 돌아보고, 둘째 날에는 만경대, 관음사, 대흥사, 산성 남문, 서사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틀간 개성 일대의 명승고적을 일별하는 것이었다.<sup>102</sup> 이처럼 관광 사업의 진흥을 추진하던 개성부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며칠 뒤인 10월 1일 개성박물관에서 열린 적조사지 철불 봉안 행사는 박물관을 한 축으로 하는 개성 관광 사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박물관이 유치할 수 있는 관객의 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1935년의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1934년에 비해 단 5엔이 늘어난 119엔이었고, 유료 관람객 총수는 3,220명에 불과했다. 1936년의 입장료 수입도 전년에 비해 18엔이 늘어난 137엔이었고, 유료 관람객 총수는 3,790명이었다. 1935년에 비해 약 17% 정도의 관객이 늘기

98 『동아일보』 1932.3.18, 7면, “맹렬한 논전 후 개성부의 폐막”

99 『동아일보』 1933.1.19, 3면, “名勝古蹟마다 高燭電燈 架設, 탐승객에 대편리”

100 『朝鮮中央日報』 1935.8.6, 3면, “관광단 유치 공작, 개성에 대유원지 신설, 여조문화의 총본영”

101 『조선중앙일보』 1935.9.27, 3면, “고도 개성의 절승, 박연천마 탐승 조사”

102 『고려시보』 1935.10.16, “관광객 유치책으로 구도명승을 탐사, 개성부”



도판 13 개성부립박물관의 본관(좌측)과 籌筆軒(우측) (국립박물관 개성분관, 『국립개성박물관안내』, 1948 수록 사진)

는 했지만, 하루 평균 관람객 10명 정도로 수치 자체가 크지 않았다.<sup>103</sup> 이처럼 관람객 유치 효과가 높지 않았고 따라서 수입도 미미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에 지나지 않았던 박물관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2. 개성부립박물관 연도별 세출예산 (단위: 円)<sup>104</sup>

1932년	1933년	1934년	1935	1936	1937	1938	...	1943
2,593	?	4,721	4,618	7,151	4,836	4,261	...	6,650

하지만 고유섭 관장은 박물관 예산 편성에 비판적인 유지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고려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박물관은 “사회 민중의 교화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으로 학교 경영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개성의 유지들이 박물관 건립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건축물에 대한 기부일 뿐, 박물관의 내실을 채우는 데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당시의 기부도 그 공을 잃고 말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sup>105</sup> 또한 그는 개성보승회의 부활을 계기로 쓴 신문 기고에서도 “경영 유지의 필요상 다소의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일이라 하겠으나 수입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빠지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개성은 고적 명승을 잘 보존한다면 유람도시로서 번영을 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遊蕩의 浮浪性”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sup>106</sup>

한편 개성부립박물관의 자체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한 교섭이 한창이던 1933년 10월 23일, 개성부윤 이기방이 조선 총독에게 문서를 보내 개성박물관을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삼아주기를 요청한 것은 그가 개성 유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서 그는 “(개성이) 부로 승격한 이래 많은 긴요한 도시적 시설을 했으며, 이

103 開城府, “사용료 급 수수료 중 제5항 박물관 사용료”, 『開城府稅入出豫算』, 1936·1937.

104 開城府, 『開城府勢一般』, 1931~1944. 및 開城府, 『昭和13年開城府稅入出豫算』, 1938. (임나래, 앞의 논문, 2015, p.34 참조).

105 高裕燮, 「開城府民의 失功」, 『고려시보』 3;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제7권, 열화당, 2007에 재수록.

106 高裕燮, 「高麗 舊都 開城의 古蹟－開城保勝會 復活에 즈음하여」, 『朝鮮日報』 1936.9.29. 및 9.30.;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제7권, 열화당, 2007에 재수록.



에 박물관의 유지비조차 매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개성박물관을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삼으면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양자의 진열품을 시의적절하게 교환하여 진열함으로써 개성박물관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고 있다.<sup>107</sup>

그러나 이러한 건의는 개성부의 일방적인 것이었고, 조선총독부는 개성부의 건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개성부에서는 개성박물관을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이어갔다. 1939년의 개성부회에서는 부여고적보존회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총독부박물관의 분관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의원이 개성박물관을 총독부박물관 분관화하는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sup>108</sup>



도판 14 연구 중인 고유섭 관장의 모습

하지만 개성에 집중된 고려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 계획이 일제강점기 초기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이 보여주듯이,<sup>109</sup> 식민사관의 관철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박물관 정책 추진에서 개성박물관의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즉 한국의 문화가 중국문명으로부터 이식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된 낙랑문화 조사의 중심지였던 평양이나, 이른바 일선동조론을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 대규모 신공의 조성이 계획되던 부여와 비교해 볼 때, 고려 문화를 표상하는 개성이나 개성부립박물관의 위치가 그와 같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유섭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는 개성 일대의 고려 유적을 답사하면서 조사한 기록들을 1935년 6월부터 1937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개성의 지역 언론이었던 『고려시보』에 연재하면서, 고려 유적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렸다.<sup>110</sup> 그가 조사한 유적은 성곽, 궁궐, 왕릉, 관아, 절터, 탑과 석등 등 개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한국의 탑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932년 “조선탑과의 개설”(『신흥』, 1932)라는 글을 쓴 뒤로,<sup>111</sup> 그는 한글 학술지인 『진단학보』에 1936년 11월, 1939년 4월, 1941년 6월, 모두 세 차례 기고하여 “조선탑과의 연구” 3부작을 완성했다.

그가 1944년 별세할 때까지 남긴 글과 논문은 모두 백 수십 편에 이르는데, 조선탑과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개가 신문이나 문예지에 실린 시론적 성격의 글들이 대부분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개성부립박물관에 근무하는 12년간 근대적 학문으로서 한국미술사를 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한국인의 미의식을 실제 유물을 근거로 실증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기에 한국미술사의 태두(泰斗)로 여겨지고 있다.<sup>112</sup> 그러나 1941년 병에 걸린 그는 1942년부터는 별다른 연구를 하지 못했고, 1944년 6월에 4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의 이러한 운명은 같은 시기 개성부립박물관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일제의 군국주의 정책이 확대되고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총독부박물관의 활동과 고적

107 “開城保勝會事業費補助申請”, 『古蹟關係事務雜件(1933~193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08 『매일신보』 1939.3.24. 3면, “開城府會 第1日, 豫算 過少타 痛論, 본부 박물관 분관 설치를 촉진, 고적의 보호를 역설”

109 이기성,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초기 고적조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79, 2016, p.25.

110 1939년 황수영의 권유로 이 글들을 묶어 단행본으로 내기로 했지만, 실제 “松都의 古蹟”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것은 고유섭의 사후인 1946년이었다.

111 김영나, 「한국미술사의 태두: 그의 역할과 위치」, 『미술사연구』 16, 2002, pp.503-504.

112 김영나, 위의 글, 2002, pp.508-515.



도판 15-17 고류섭 관장의 고적 조사 모습(15: 개성 현화사 비, 16: 경주 석굴암, 17: 개성 현화사 터 7층석탑)

조사사업조차 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 또한 지방의 부립박물관으로서 개성박물관의 활동 폭을 크게 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구적인 업적은 지역 인재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이들이 한국미술 연구의 길로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복 후 국립박물관에 입사한 黃壽永, 秦弘燮, 崔淳雨가 바로 그들이며, 황수영은 동국대학교에서, 진홍섭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미술사를 연구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최순우는 국립박물관에서 평생 근무하며 한국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 Ⅴ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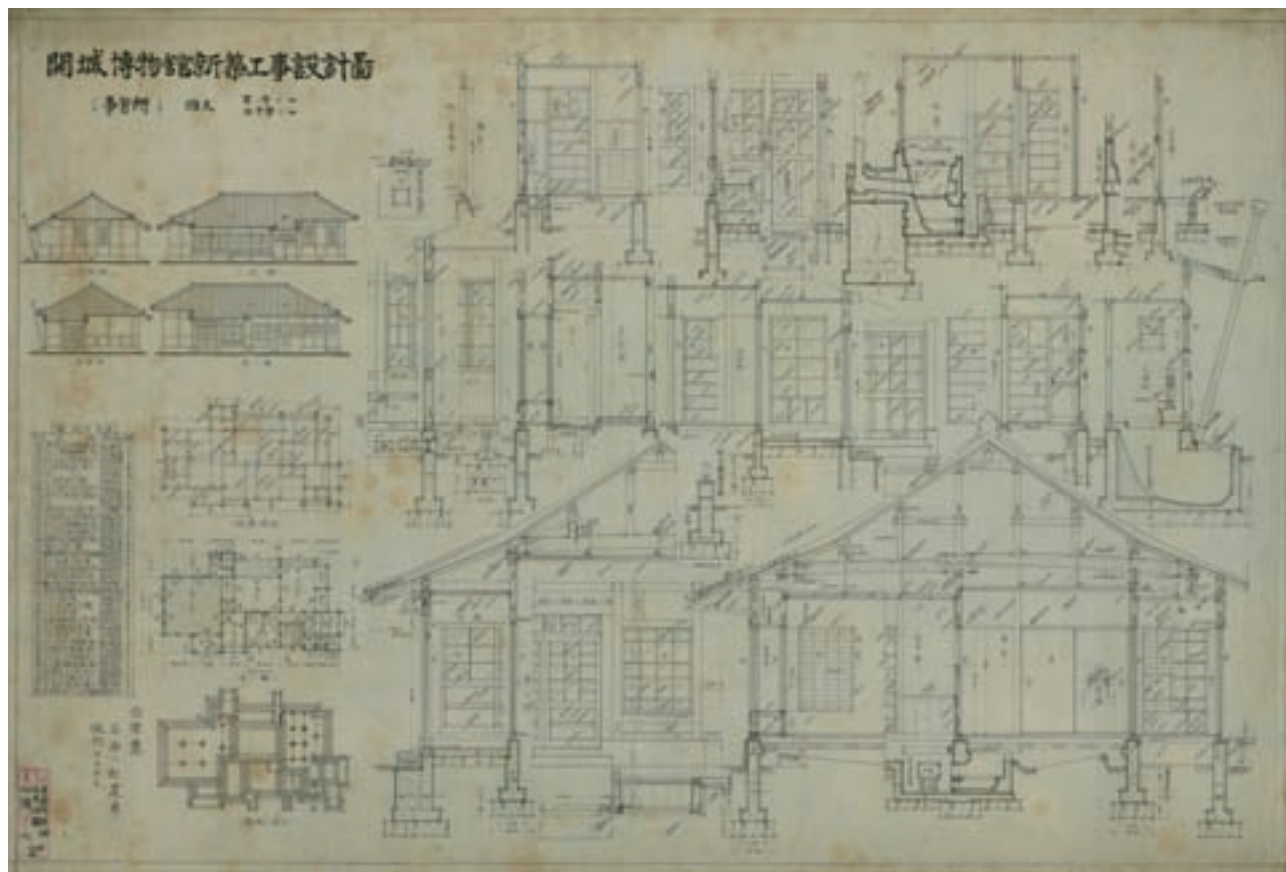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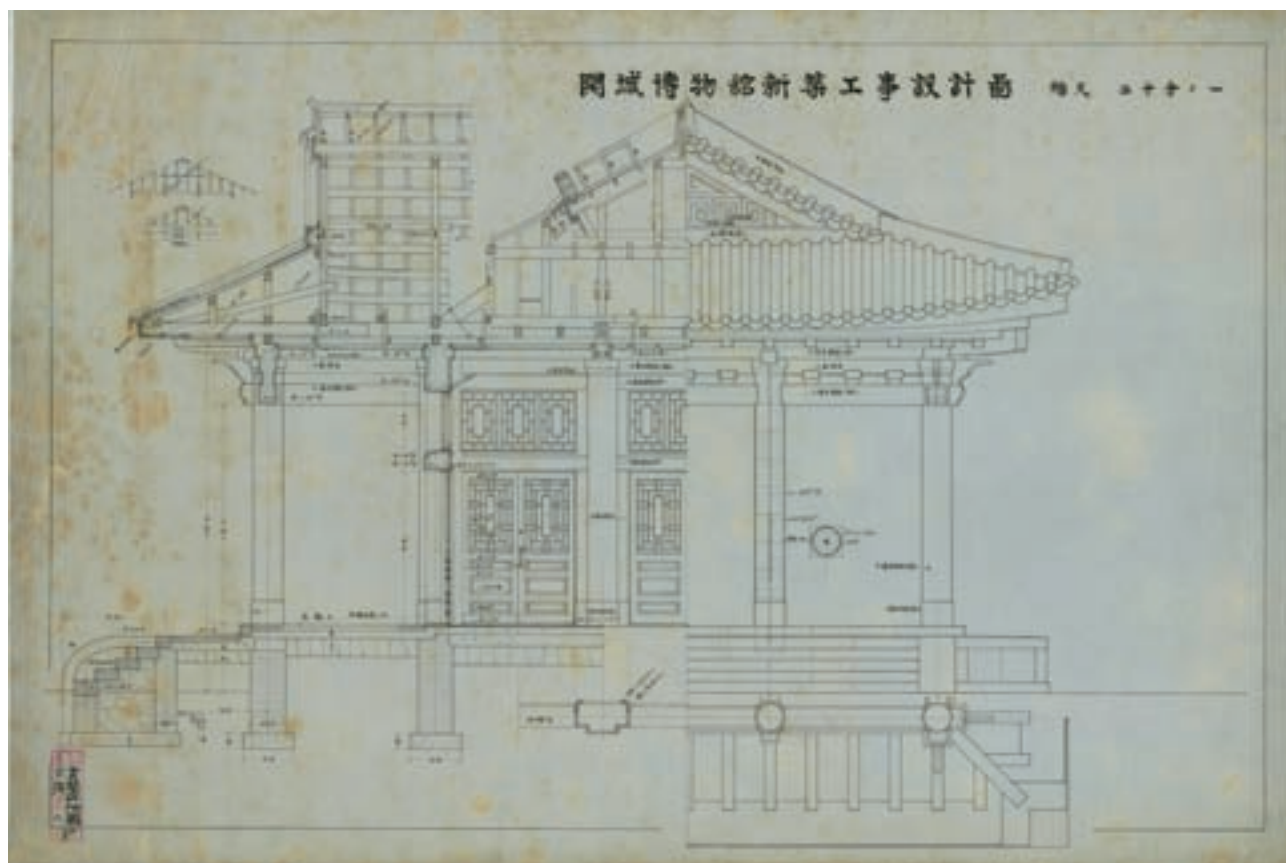
개성 지역에는 일제의 강점 직후인 1912년 지역 단위의 명승고적 보존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開城保勝會가 발족되었으며, 1931년에는 府制가 실시되는 도시 중 가장 처음 開城府立博物館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견 고려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이 지역의 문화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박물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근대 도시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던 개성의 지역성이 부여하는 여러 맥락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군의 주도 하에 개성 유지들이 협력하는 반관반민의 형식으로 설립된 개성보승회는 최초의 참여 당사자들로부터 차츰 외면받았다. 이는 선조에 대한 추모 의식이나 역사 의식만으로 명승고적을 보호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의 계기가 생긴 것은 근대적인 산업도시로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개성 유지들과 개성부 당국의 기대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백삼의 생산과 유통으로 삼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개성의 유지들은 점차 현대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설정했고, 이 속에 박물관 건립을 중심으로 한 ‘유람도시’ 건설의 비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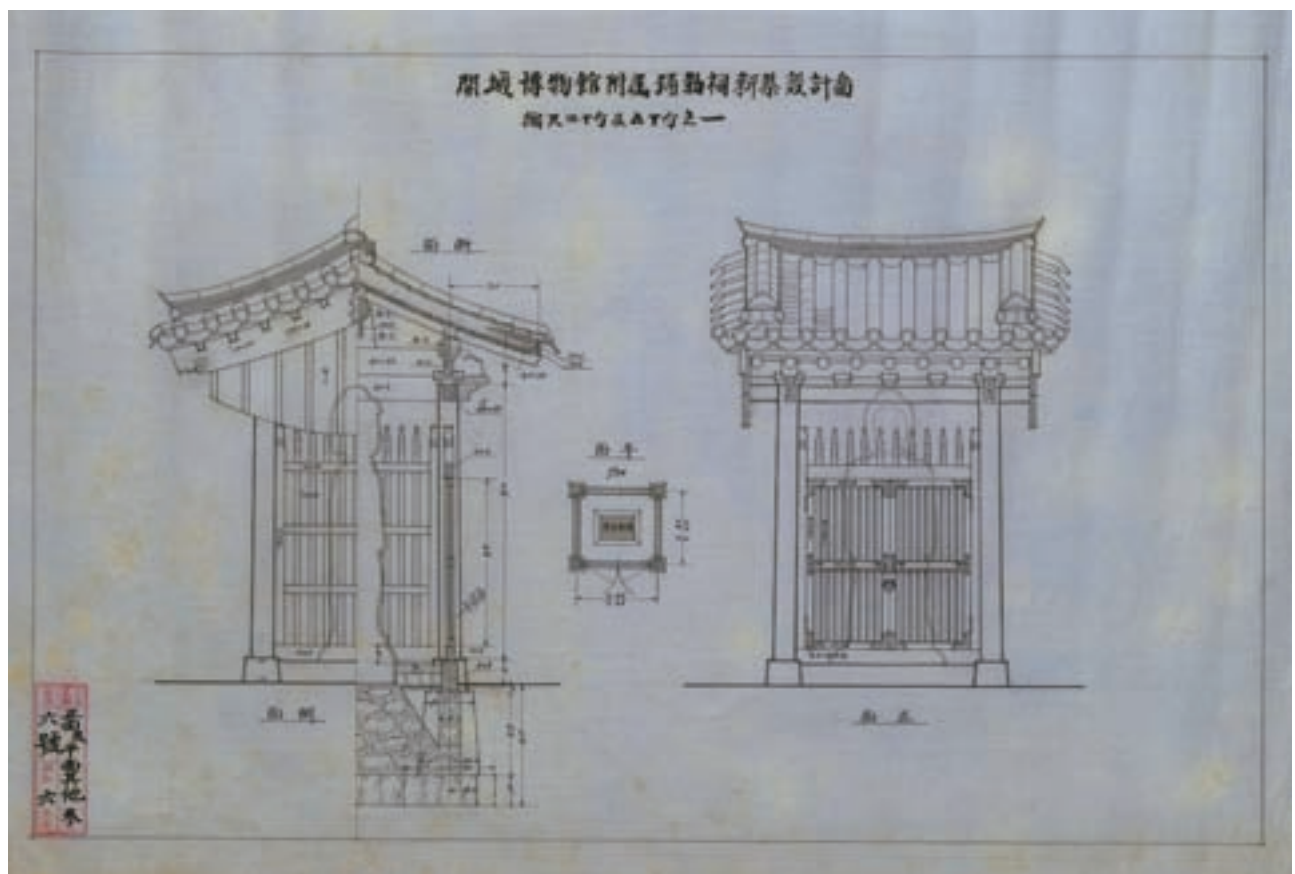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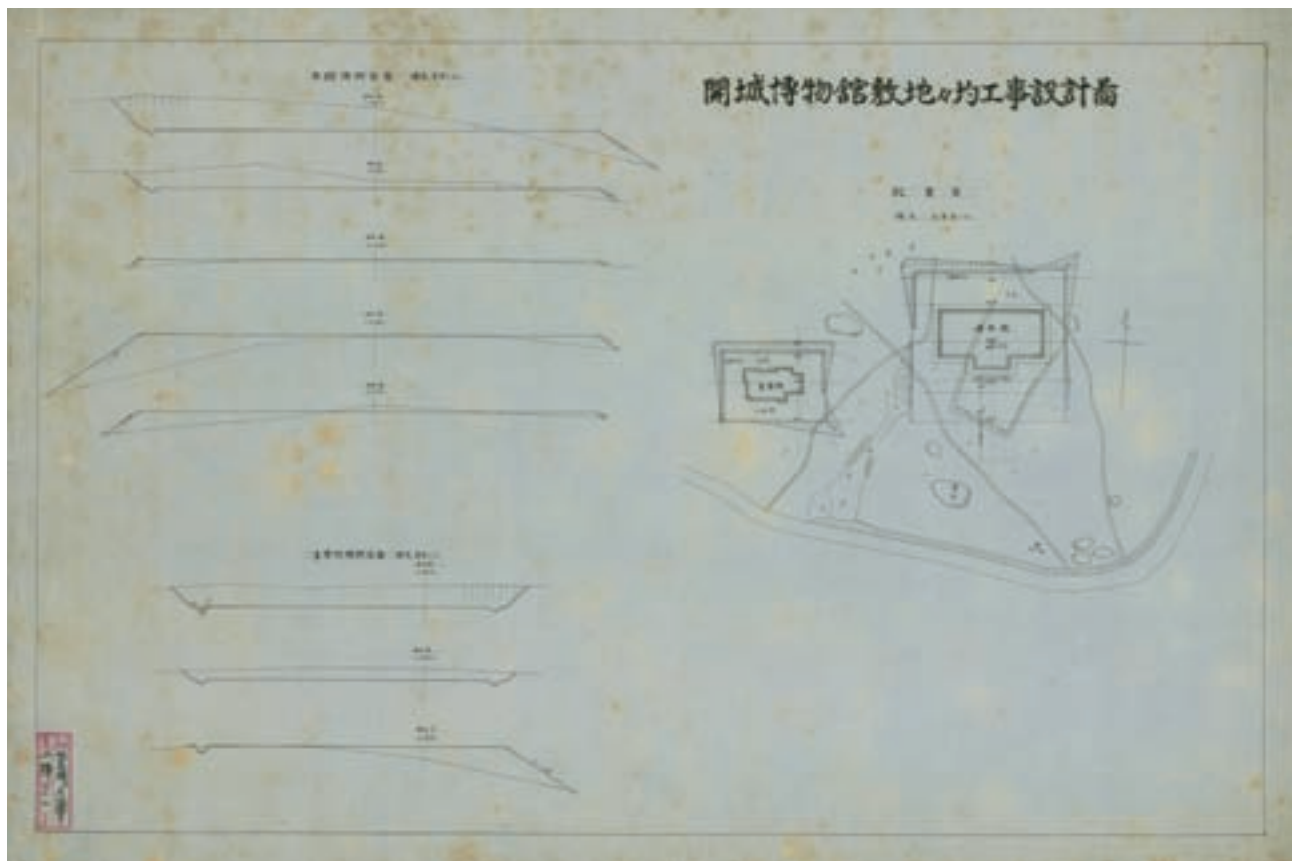
개성의 삼업에 참여하려는 일본 기업 미쓰이물산의 제안으로 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생겼고, 김병태 초대 부윤과 개성 유지들의 참여로 1931년 11월 1일 개성부립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날의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의 면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개관식은 당시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산업도시로 도약하려는 개성을 둘러싼 총독부와 지방정부, 개성의 한국인 유지, 일본 굴지의 기업, 식민지 고고학이 맺은 관계망의 단면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였다.

이처럼 고려의 옛 수도였던 역사 도시로서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개성의 지역 유지들은 인삼 사업을 기반으로 식민지 근대 산업도시로의 성장을 모색하면서, 그 한 방법으로 관광 도시로의 성장을 모색했다. 개성보승회와 개성부립 박물관의 설립과 활동은 식민지 권력과 개성 지역 유지, 그리고 개성의 산업에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 간의 상호 관계, 또한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제국의 학문 체계 속에 편입하려는 일제의 의도와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특색을 모색하려는 한국인 미술사학자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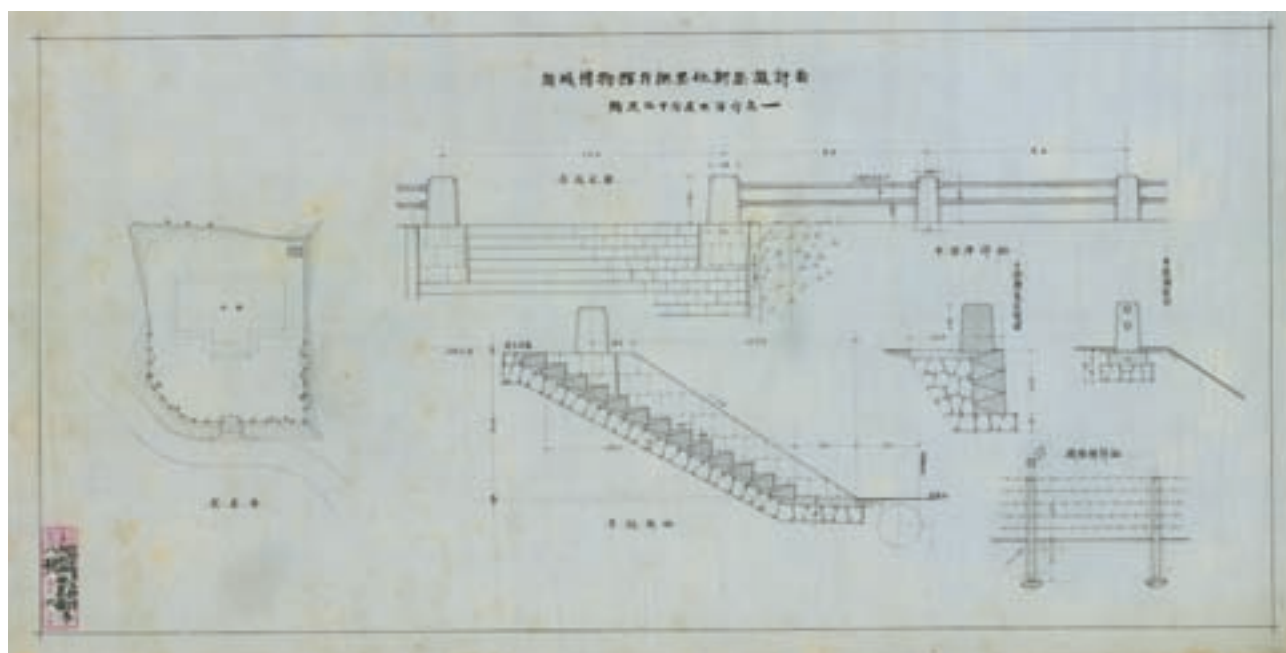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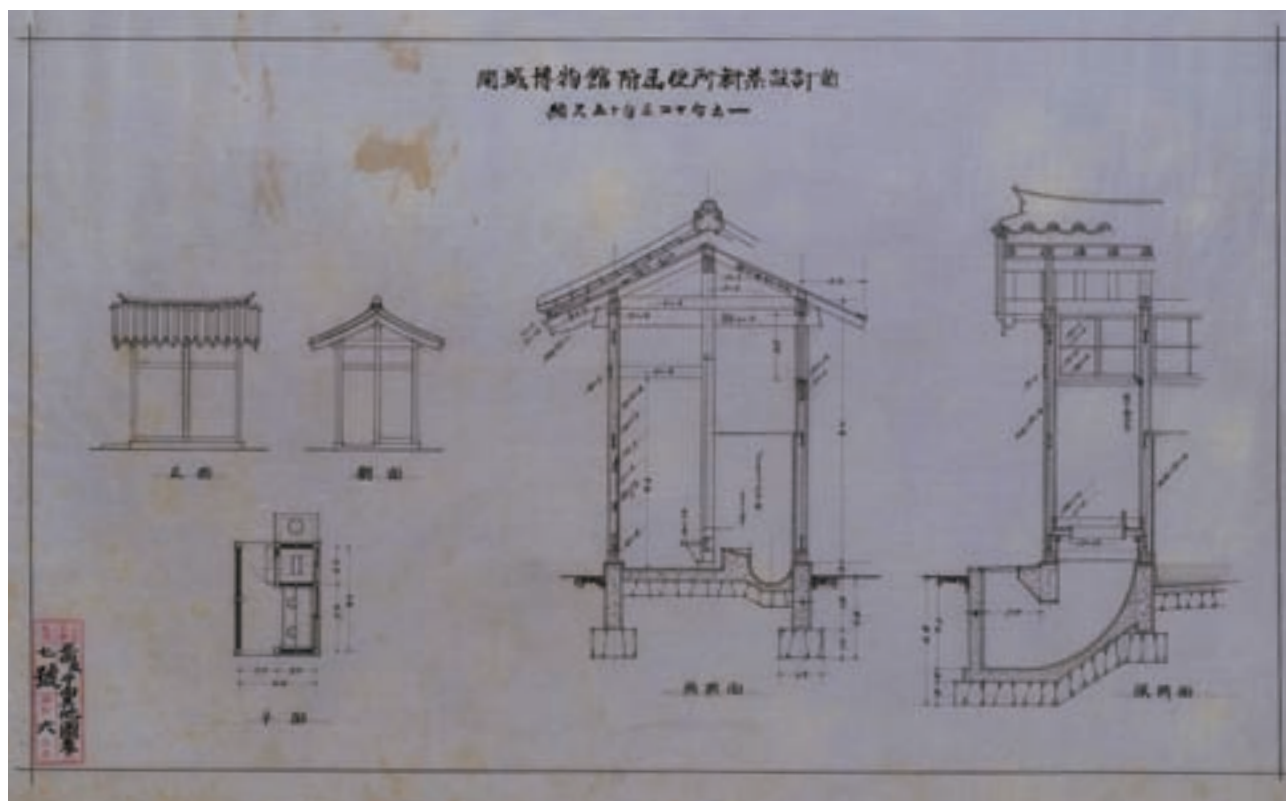




도판 18·19 <개성박물관 신축공사 설계도>, 국가기록원 소장



도판 20·21 <개성박물관 신축공사 설계도>, 국가기록원 소장



도판 22·23 <개성박물관 신축공사 설계도>, 국가기록원 소장



---

## 참고문헌

『高麗時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半島時論』  
『朝鮮新聞』  
『朝鮮中央日報』

好古者, 「開城保勝會規則을 讀호고」, 『半島時論』 제2권 제12호, 1918.

今西龍,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6.

필자 미상, 「開城の博物館計劃」, 『博物館研究』 第4卷 5號, 日本博物館協會, 1931.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 1931.

小泉顯夫,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 제2권 제4호, 1933.

필자 미상, 「開城府立博物館」, 『博物館研究』 第8卷 4號, 1935.4.

開城府立博物館, 『開城府立博物館案内』, 1936.

高裕燮, 「高麗 舊都 開城의 古蹟－開城保勝會 復活에 즈음하여」, 『朝鮮日報』 1936.9.29. 및 9.30.; 「松都의 古蹟」 又玄  
高裕燮 全集 제7권, 열화당, 2007에 재수록.

필자 미상, 『朝鮮都邑大觀』, 1937.

朝鮮總督府, 「朝鮮の博物館と陳列館」, 『朝鮮』 276호, 1938.

高裕燮, 「開城博物館의 珍品解説」, 『朝光』 1940.6.

中吉功, 「高裕燮氏の思い出」, 『考古美術』 第5권 제6·7호 합집, 통권 제47·48호, 1964.

秦弘燮, 「開城博物館 回顧」, 『開城』, 藝術春秋, 1970.

黃壽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考古美術』 제22집, 1973.

李熙昇, 「又玄兄의 追憶」, 『考古美術』 통권 제123·124호 합집, 1974.

최석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호서사학』 27, 1999.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경문화사, 2001.

최석영,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전시 성격－개성·평양부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3, 2001.

차순철, 「일제강점기 경주지역의 고적조사와 관광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13, 2008.

이순자, 「일제강점기 지방 고적보존회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개성보승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09.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김울림, 「개성부립박물관」, 『한국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2009.

정중현, 「일본제국기 개성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 2010.

장지연, 「조선시기 고려 법궁에 대한 지식의 변천」, 『규장각』 39, 2011.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임나래, 「일제강점기 개성·평양부립박물관의 설립과 의의」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5.

이기성,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초기 고적조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79, 2016.

최석영, 「일제하 경주 고적조사·발굴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초적 연구」, 『역사와 역사교육』, 2017.

**제1조** 本會는 開城保勝會라 稱하고, 事務所를 開城郡廳內에 設置함

**제2조** 本會는 開城郡內에 有한 名勝事蹟을 保存할 目的으로 左記事業을 執行함

1. 名勝古蹟 及 建造物을 保護修理할 事
2. 名勝事蹟地의 植樹, 道路修築 其他 遊覽者를 爲하야 便宜한 設備을 爲할 事
3. 名勝事蹟에 關한 冊子圖書을 刊行할 事
4. 前 各項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金品の 寄附를 勸募하고 及其利殖을 圖할 事

**제3조** 本會는 名勝地 及 事蹟地 保存에 對하야 意見을 官廳에 具申할 事가 有함

**제4조** 何人이든지 本會에 金品을 寄附한 者는 左의 區分에 依하야 會員으로 姓名을 簿冊에 登錄하야 此를 永久히 保存함

1. 特別會員: 一時에 10圓 以上 又は 2年間 毎年 金4圓式의 金品을 寄附한 者
2. 通常會員: 一時에 5圓 以上の 또는 3年間 毎年 金2圓式의 金品을 寄附한 者
3. 贊助會員: 一時에 5圓 未滿의 金品을 寄附한 者

**제5조** 本會에 左記 任員을 置함

1. 會長: 開城郡守에게 委囑함
2. 副會長: 2名 開城郡內 居住 會員의 選舉에 依하야 就任함
3. 幹事: 5名內 1名은 會長이 開城郡 書記中에서 이를 委囑하고 4名은 開城郡內 居住會員의 選舉에 依하야 就任함
4. 評議員: 若干名 開城郡內 居住會員의 選舉에 依하야 就任함

會長이 必要로 認定한 時는 評議員會 決議를 經하야 書記를 置함을 得함

**제6조** 本會 事業은 評議員會 決議를 經하야 此를 執行함. 但 重要한 者는 官廳에 具申하야 其指揮를 受함이 可할 者로 함  
評議員會는 會長이 이를 招集함

**제7조** 評議員은 事業執行과 會計를 監督함

**제8조** 會員은 何時든지 事務所에 就하야 事業執行狀況과 會計事務에 對하야 質問하거나 或은 帳簿의 開示를 要求함을 得함

**제9조** 事業經過 及 會計는 毎年 1回 適宜한 方法으로 此를 公示함이 可함

**제10조** 本會 事業 執行에 對하야 意見을 諮問하기 爲하야 顧問을 委囑할 事가 有함

[출전: 『每日申報』 1913.8.21. 1면, “開城保勝會 規則”]

## 제1장 總則

제1조 本會는 開城郡內에 現在한 名勝史蹟地를 整理保存함으로써 目的으로 함

제2조 本會는 開城保勝會라 稱함

제3조 本會 事務所를 開城郡 松都面에 置함

제4조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獻出金에 依하여 支辨함

## 제2장 事業

제5조 本會의 事業은 如함

1. 名勝史蹟地에 存在한 新舊建造物을 保護한 事
2. 名勝史蹟地에 樹木을 栽培하고 道路를 修築하여 其他 觀覽의 便이 有한 場所를 修理한 事
3. 名勝史蹟 及 地理人物에 關한 書籍圖畫를 刊行한 事

## 제3장 會員

제6조 本會 會員은 合하여 左의 2種으로 함

1. 特別會員
2. 通常會員

제7조 特別會員은 左에 事例에 該當한 者로 함

1. 名譽會員  
本會에 對하여 群의 功勞 잇다고 認定한 者 及 金五百圓 以上の 寄附를 한 者
2. 有功會員  
本會에 對하여 特別의 功勞 잇다고 認定한 者 及 金百圓 以上 五百圓 以內의 寄附를 한 者
3. 贊助會員  
金百圓 以內의 寄附를 한 者

제8조 通常會員은 當地 在住者로서 每年 左記 各項中の 會費를 負擔한 者로 함

1. 金 3圓
2. 金 2圓
3. 金 1圓

제9조 特別會員에 對하여 左記의 表彰을 할 것으로 함

1. 特別會員 名簿에 登錄함
2. 氏名을 要地에 掲表함
3. 感謝狀을 奉呈함



제10조 會員 總會는 通商會員으로써 組織함

제11조 會員 總會는 本會議 計劃에 參與하고 及 事業執行的 監督을 하기 爲하야 評議員 30名の 選舉할지라. 任期는 4個年으로 함

제12조 會費는 每年 4月中에 그 全額을 釀出하는 것으로 함

## 제4장 任員

제13조 本會에 左의 任員을 置함. 無給으로 함

1. 會長 1人 副會長 2人
2. 總務 1人 幹事 6人
3. 地方委員 若干名
4. 會計 1人

任員은 評議員會에서 選舉하고 其任期를 2個年으로 함

제14조 會長은 一切의 事務를 總管하고 各種 總會의 議長이 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야 會長이 事故가 有할 時는 其職務를 代理함

제15조 總務는 全般事業의 處理 及 起案 并 豫算의 起案을 爲함. 幹事는 總務를 補佐하야 事務의 執行을 爲함

제16조 地方任員은 擔任 地方에 係한 一切의 事務를 處理함

제17조 會計는 本會의 會計事務 一切를 掌理함

제18조 本會에 書記 及 看守 若干名을 置함. 有給으로 함

제19조 書記는 一切의 記錄에 從事함. 看守는 營造物의 保護에 從事함

제20조 書記 及 看守는 任員會議 意見을 酌量하야 會長이 此를 任命함

제21조 本會는 事業 顧問 若干名을 囑託함을 得함

제22조 囑託給을 要하는 時는 特히 此를 定함

## 제5장 總會 及 決算

제23조 總會는 分하야 定期 及 臨時의 2種으로 함

제24조 定期總會는 每年 3月中에 開會하야 左記 事項을 處理함

1. 當期의 事業成績 及 收支現計 并 前年度 決算의 當否 審査
2. 翌年度의 起案 及 豫算의 議決
3. 評議員의 選舉

제25조 臨時總會는 定期總會를 待키 不能한 緊急事項을 議決하기 爲하야 臨時에 開會함

제26조 任員會는 隨時에 開會하야 總會의 提案을 審査하고 總會決意 事項의 執行方法을 決議함

제27조 評議員會는 開會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時 隨時 開會함을 得함

제28조 會計는 左記의 書類를 調製하야 總會의 開會前 之를 任員會에 報告할 事

1. 前年度の 決算報告書

2. 二月末의 收支現計書

## 제6장 雜則

**제29조** 本規則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總히 任員會의 處理에 委任함. 但 任員會는 評議員會에 諮問決行함을 要함

**제30조** 會員의 募集方法 及 營造物의 管理方法은 別로 定함에 處에 依함

[출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 『各道古蹟保存會文書綴』]

## 제1장 總則

제1조 本會는 開城保勝會라 稱하며, 開城府內 및 開豐郡內에 現存하는 名勝古蹟地를 整理保存함과 아울러 널리 이를 社會에 紹介함을 目的으로 함

제2조 本會의 事務所는 開城府廳에 둠

제3조 本會의 經費는 會費·寄附金·補助金 및 其他 本會에 속한 收入으로 이를 支辨함

## 제2장 事業

제4조 本會는 제1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左의 事業을 行함

1. 名勝古蹟地에 現存하는 建造物의 保護 修理
2. 遺物의 保存 및 蒐集
3. 名勝古蹟地에 關한 調查研究 및 그 發表
4. 觀覽者의 便宜를 圖謀하며 諸般의 計劃 및 設備
5.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必要한 事項

제5조 每年度의 事業은 그 年度 4月中에 評議員會에서 決定함

## 제3장 會員

제6조 本會員을 나눔에 左의 3種으로 함

1. 名譽會員: 學識·名望 있는 者, 本會를 위해 特別히 功勞가 있는 자 또는 多額의 金品을 寄附한 者로서 評議員會 決意에 따라 會長이 推薦하는 者
2. 特別會員: 年 5圓의 會費를 負擔하는 者
3. 通常會員: 年 2圓의 會費를 負擔하는 者

제7조 會員 總會는 年 1回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 左의 事項을 行함

1. 會務 報告
2. 會長으로부터 附議된 事項의 議決

## 제4장 役員

제8조 本會에 左의 役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2名, 評議員 20名, 地方委員 若干名

제9조 會長 및 副會長은 評議員會에서, 評議員은 總會에서 이를 選舉하고 地方委員 및 幹事는 評議員會議 意見을 參酌하여 會長이 이를 指名함

제10조 役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但 補闕에 依해 就任한 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함. 役員은 任期 滿了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그 職務를 行하는 것으로 함



**제11조**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一切의 事務를 總理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事故가 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함

**제12조** 評議員은 本會의 事務에 關한 意見을 갖추어 申告 또는 評議團會에 參席하여 意思를 審議함

**제13조** 地方委員은 會長의 命을 받아 擔任 地方에 關聯된 一切의 事務를 處理함

**제14조** 幹事는 會長의 뜻을 받아 會務를 處理함

**제15조** 本會에 書記 1名을 두고 그 任免은 會長이 이를 行함. 書記는 幹事의 事務를 補助 執行함

**제16조** 本會의 評議員會는 決意에 의해 顧問을 推薦하도록 함

## 제5장 評議員會

**제17조** 評議員會는 會長의 必要에 따라 隨時로 이를 招集하며 評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으로 함

**제18조** 評議員會에서 議論할 사항은 좌와 같다.

1. 歲入·出 豫算을 定하는 것
2. 決算 報告에 關한 것
3. 規則을 改廢하는 것
4. 名勝古蹟의 整理·保存 方法 및 이에 關聯한 것
5.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제19조** 評議員會의 議事は 出席者의 過半數로 이를 決定하고 可否 同數가 되는 것은 議長의 決定하는 바에 依함

## 제6장 會計

**제20조** 本會의 經費는 每年 事業年度로부터 이를 行함

**제21조** 本會의 事業年度는 每年 4月 1日을 始作으로 翌年 3月 31日에 마침

**제22조** 本會의 收支는 每年 事業年度의 末日로써 이를 決算함

附則

本規則은 년 월 일부터 이를 施行함

[출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 『各道古蹟保存會文書綴』]

\* 일본어 원문을 필자가 번역하여 소개함

1. 관람료: 1인당 金 5錢

단 10인 이상의 단체, 학생, 군인 및 연령 15세 미만자: 1인당 金 2錢

연령 6세 미만자 및 우대권 소지자: 無料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음

2. 관람자는 접수처에 규정의 요금을 납부하고 觀覽票를 받아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숙하게 관람해야 함

3. 관람자는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또는 직원의 승인 없이 촬영, 모사 등을 해서는 안 됨

4. 관람자는 退館할 때는 관람표를 직원에게 반환해야 함

5. 본관의 관람 시간은 아래와 같고, 단 필요에 따라 이를 伸縮할 수 있어야 함

4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 정기 휴관일은 아래와 같고, 단 임시 휴관은 그때마다 정함

紀元節 2월 21일, 天長節 4월 29일, 始政記念日 10월 1일, 明治節 11월 3일

연말연시 12월 26일부터 翌年 1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출전: 開城府立博物館, 『開城府立博物館案内』, 1936]

\* 일본어 원문을 필자가 번역하여 소개함

## 개성부립박물관 1935년도 세출 예산

科目		豫算額	內譯		說明			
款	項		種目	豫算額	前年度 豫算額	比較		附記
						增	減	
17博物館費		4,618円			4,721円		103円	
	1.雜給	1,834			1755	79		
			1.囑託給	1,020	1,020			1人 1人 月額 85圓
			2.雇員給	342	324	18		1人 1人 月額 28圓 50錢
			3.傭人料	191	183	8		• 小使給 190圓 32錢 1人 1人 額 52錢
			4.旅費	100	50	50		職員出張旅費
			5.慰勞金	181	178	3		囑託,雇員,傭人給料月額 129圓10錢 / 14割
	2.需用費	850			597	253		
			1.備品費	300	70	230		普通備品
			2.消耗品費	132	92	40		• 筆紙墨文具類 • 薪炭 • 電力水道 • 雜品
			3.圖書印刷費	282	300		18	• 圖書費 • 印刷費
			4.通信運搬費	102	130		28	• 通信費 • 運搬費
			5.被服費	34	5	29		• 小使被服費
	3.修繕費	300			200	100		
			1.諸修繕費	300	200	100		• 小破修繕
	4.設備費	1,534			2,159	625		
			1.博物館設備費	1,534	2,159	625		博物館內容設備費
	5.雜費	100			10	90		
			1.諸雜費	100	10	90		

[출전: 開城府, 『昭和十年開城府稅入出豫算』, 1935, pp.34-35]



개성부립박물관 1936년도 세출 예산

科目		豫算額	內譯		說明			
款	項		種目	豫算額	前年度 豫算額	比較		附記
						增	減	
17博物館費		7,151円			4,618円		103円	
	1.雜給	2,022			1,834	188		
			1.囑託給	1,110	1,020	90		1人 1人 月額 92圓50錢
			2.雇員給	357	342	15		1人 1人 月額 29圓 75錢
			3.傭人料	209	191	18		• 小使給 208圓 05錢 1人 1人額57錢
			4.旅費	150	100	50		職員出張旅費
			5.慰勞金	196	181	15		囑託,雇員,傭人給料月額 139圓35錢 / 14割
	2.需用費	829			597	253		
			1.備品費	120	300	180		普通備品20圓 陳列費100圓
			2.消耗品費	139	132	7		• 筆紙墨文具類 25圓 • 薪炭56圓 • 電力水道 38圓 • 雜品20圓
			3.圖書印刷費	310	282	28		• 圖書費150圓 • 印刷費160圓
			4.通信運搬費	246	102	144		• 通信費96圓 • 運搬費150圓
			5.被服費	14	34	20		• 小使被服費
	3.修繕費	200			300		100	
			1.諸修繕費	200	300		100	• 小破修繕
	4.設備費	4,000			1,534	2,466		
			1.博物館設備費	4,000	1,534	2,466		博物館內容設備費
	5.雜費	100			100			
			1.諸雜費	100	100			

[출전: 開城府, 『昭和十一年開城府稅入出豫算』, 1936, pp.36-37]

개성부립박물관 1937년도 세출 예산

科目		豫算額	内譯		説明			
款	項		種目	豫算額	前年度 豫算額	比較		附記
						増	減	
17博物館費		4,836円			7,151円		2,315円	
	1.雑給	2,434			2,022	412		
			1.囑託給	1,140	1,110	30		1人 1人 月額 95圓
			2.雇員給	411	357	54		1人 1人 月額 34圓 25錢
			3.傭人料	495	209	286		● 監守給 1人 日額70 ● 小使給 1人 日額 65錢強
			4.旅費	150	150			職員出張旅費
			5.慰勞金	238	196	42		囑託,雇員,傭人料月額 169圓75錢ノ14割
	2.需用費	1,103			829	273		
			1.備品費	300	120	180		普通備品20圓
			2.消耗品費	213	139	74		● 筆紙墨文具類 ● 薪炭 ● 電力水道 ● 雜品
			3.圖書印刷費	310	310			● 圖書費 ● 印刷費
			4.通信運搬費	212	246		34	● 通信費 ● 運搬費
			5.被服費	67	14	53		
	3.修繕費	200			200			
			1.諸修繕費	200	200			● 建物其他修繕費
	4.設備費	1,000			4,000		3,000	
			1.博物館設備費	1,000	4,000		3,000	博物館内容充實費
	5.雜費	100			100			

[출전: 開城府, 『昭和十二年開城府稅入出豫算』, 1937, pp.36-37]





A sepia-toned photograph of a forest with tall, thin trees and a stone structure in the background. The text "IV. 부록"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 IV. 부록

# 1. 제3장 제왕<sup>諸王</sup> 및 족릉<sup>族陵</sup>의 구조<sup>構造</sup>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sup>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sup>』 수록

『고려제능묘조사보고서<sup>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sup>』, 제1편 제능묘개설<sup>諸陵墓概說</sup> 중

번역: 아라키 준<sup>荒木潤</sup>  
교열: 강민경

일제강점기 초,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의 고적<sup>古蹟</sup>을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그 중 1916년(일본 대정 5)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가 제출한 「고려제능묘조사보고서」 중 고려 능묘의 구조를 개괄한 제1편 제3장을 번역해 실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이조<sup>李朝</sup>(조선), 지나<sup>支那</sup>(중국)처럼 타국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여릉<sup>麗陵</sup>(고려의 능), 석제<sup>石堤</sup>(돌로 쌓은 둑) 같이 한문투의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 이를 되도록 현대 한국어에 맞게 수정하였으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일부 표현은 그대로 두었다.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역주를 붙인다.

## 제 1 절 지세<sup>地勢</sup>

능은 산 언덕 아래쪽에 있으며 남쪽을 향하고 좌<sup>左</sup> 동쪽에 청룡<sup>靑龍</sup>, 우측에 백호<sup>白虎</sup>를 이룬 언덕이 있다. 후방에 주산<sup>主山</sup>이 있으며 백호는 능의 전방을 우회하고 주수<sup>主水</sup>는 능 우측의 골<sup>谿</sup>에서 나와 능 앞을 좌측으로 흘러가는, 다음 그림<sup>1</sup>과 같은 지세에 입지하는 것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지형의 땅은 신라 말로부터 이조<sup>李朝</sup>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지리설<sup>地理說</sup>에 따라 도성<sup>都城</sup>, 저택, 특히 묘지가 입지하는 데 길상지<sup>吉祥地</sup>로 여겨졌다. 예를 들면 고려의 수도 개성의 땅은 이 지형의 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궁전이 있었던 만월대는 이 지형 속에 입지했다(이에 관해서 보고지<sup>2</sup>는 1907년(일본 명치<sup>明治</sup> 40)에 조사하여 도쿄에서 강연한 적이 있음). 고려의 남경<sup>南京</sup>이며 이조의 수도였던 지금의 경성<sup>京城</sup>(서울)도 이러한 지세에 입지한다.

보고자가 조사한 고려 각 능묘 중에서 이런 형세<sup>形勢</sup>의 땅에 입지한 것은 현릉<sup>顯陵</sup>, 정릉<sup>貞陵</sup>, 안릉<sup>安陵</sup>, 태릉<sup>泰陵</sup>, 선릉<sup>宣陵</sup>, 성릉<sup>成陵</sup>, 영릉<sup>英陵</sup>, 지릉<sup>智陵</sup>, 홍릉<sup>洪陵</sup>, 고릉<sup>高陵</sup>, 현정양릉<sup>玄正兩陵</sup>, 월로동 제2릉<sup>月老洞第2陵</sup>, 화곡릉<sup>花谷陵</sup> 등이며 이 중에도 형세가 약간 불완전한 것이 없지 않다. 온혜릉<sup>溫鞋陵</sup>, 서구릉<sup>西龜陵</sup> 등은 지세가 완비되지 않았고, 월로동 제1릉<sup>月老洞第1陵</sup>은 이 지세에 부족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석제<sup>石堤</sup>를 만들어 보완했다. 이런 형세의 땅에 입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창릉<sup>昌陵</sup>, 순릉<sup>順陵</sup>, 헌릉<sup>憲陵</sup>, 소릉<sup>昭陵</sup>, 동구릉<sup>東龜陵</sup>이 있다. 기타 칠릉군<sup>七陵群</sup>, 소릉군<sup>昭陵群</sup>, 냉정

1 이 책의 231쪽에 수록된 원문의 第二〇圖를 가리킨다.  
2 이 보고서를 쓴 이마니시 류를 가리킨다. 그러나 1907년 당시 이마니시 류는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경주를 다니며 신라 유적을 연구하고 있었다(今西春秋, 1972, 『今西龍小傳』, 国書刊行會, 3쪽). 혹 1909년 서울 광통관(현 우리은행 종로지점 건물)에서 구리야마 순이치(栗山俊一, 1882~?)가 「평양 개성의 고분」이란 주제로 강연했던 것과 헷갈린 게 아닐까 싶다(차순철, 『韓紅葉』과 일본인들의 한국문화 인식 과정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1, 2012, pp.48-50 참조).

邦主七陵ノ國號ニ關連シテ見ヘタリ。本頁ハ五十七陵ノ名稱及稱義ノ説ヲハ未ダ記録セシモノゾ見  
ト雖本頁ニ失ヒテ五十三陵ハ此五十七陵中ノモノナリ（但シ新羅敬順王陵ハ英面王二十四年經王陵例ニ依  
モノト定メテナリ）五十七陵中五十三陵外ノ四陵ノ所在ハ本頁未ダ調査セキコト能ハス。中樞院調査書ハ本  
府西三十里光城山城ノ區王陵ト稱セモノアリトセリ。是處ハ四陵中ノ一ナランコト  
現今四陵中ニハ紫雲陵附屬ノ禁區地ナリ若シ老砂間茂セモノナデハ前記保護ノ結果ナラシ。然リテ應テ聯テ去  
リコト數ヘ五十年前々々石物割ヲ起驗シキモノアリ其性質ノ必要アル併合以テ應ニ陵ヲ奉束テ建ル及ハナキ  
知リテ雖宜道ヲ保護ノ方法ハ能ク行キ固キ舊韓國政府時代ト比スアラストス

### 第一節 地 勢

陵ノ野山ノ間ノ下方に在リテ南向シ、左翼の青巖、右の白虎ヲ成ス。國アリ、東方ノ主山アリ、白虎ノ陵ノ前方ニ延ビ、主山ノ陵ノ右方ノ巖ヨリ出テ、陵前ヲ左ニ渡ル、上同ノ如キ地勢ニアリテ理想トスルモノ如シ、無

10

本員ノ調査セシ諸國建築及中世形勢ノ地志ヲ參考ス

工ヲ以テ石垣ヲ作リテ垣ヘリ、此郡勢ノ地ニウツラサレモノハ昌陵、縣陵、襄陵、頤陵、東龍陵ナリトス、其他七  
陵群ノ諸陵群冷井洞群ノ所在地ハ大體ニ於テ理想的な地形ニ近キ其各陵ハ此龍城ノ内ノ成ルヘテ理想的な地形ニ近キ位  
置ヲ得テテ構成セリ、要陵ハ東北ニ陵ヲ所ノモエシテ一向ノ群ヲナセバ前記ノ七陵群諸陵群冷井洞群ナリト、  
是レ地形ハ高麗末期ニ屬シ元朝ノ風習ノヨリモノニアラザル、陵ノ位置並ニ高キハ冷井洞第一ナクヘテ最も景  
色ハ縣陵ナリトス

## 第二節 陵城ノ構造

陸城及陸師ノ交戦セバ、固城及宜正陸ヲレモ、而陸ハ幾度カノ改修ヲ經テ、陸城ノ構造ノ如キハ、今モ余ト事類同シ。其石物モ、近代ノ耕作物少ナキヲサテ、如シ、高麗時代主陸ノ比較的完全ニ陸シテモ、トシテハ、宜正陸ヲ



동군冷井洞群의 소재지는 대체로 이상적 지형에 가깝고 각 능도 그 지형 가운데 되도록 이상적 지형에 가까운 위치를 선택하여 구성했다. 쌍릉雙陵은 현정이릉玄正二陵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산에 무리를 이룬 것은 앞서 언급한 칠릉군七陵群, 소릉군韶陵群, 냉정동군冷井洞群인데, 이것은 아마도 고려 말기의 것으로 원조元朝의 풍습에 의한 것이 아닐까. 능의 위치가 가장 높은 것은 냉정동 제1릉冷井洞第1陵이며 가장 낮은 것은 강릉康陵이다.

## 제 2 절 능역 구조

능역 및 의물儀物이 완비된 것은 현릉顯陵 및 현정릉玄正陵이지만 현릉顯陵은 몇 차례의 개수를 거쳐 능역 구조는 이제 전적으로 이조식으로 바뀌었으며, 그 석조물도 후대의 보작물補作物이 적지 않아 보인다. 고려시대 왕릉 중에서 비교적 완전히 남은 것으로는 현정릉玄正陵을 먼저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능은 각 능 중에서 유례없이 장려壯麗한 것이고 또한 고려 말기의 것이기에 고려 왕릉의 일반적 표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상당히 일반적이고 능역의 구조물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으로는 현릉憲陵, 소릉韶陵 및 칠릉군七陵群 각 능이 있다. 현재 각릉의 능역 구조는 이조가 되면서부터 자주 수축修築되었음을 제1절에서 언급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 원래의 형태를 추측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교적 원형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추측해보면 능역은 폭 10칸 내외, 길이 20칸 내외의 장방형 땅을 구획하여 좌우와 뒤 세 방향에 돌담[石牆]을 에워쌌다. 그 구역 내를 네 단면壇面으로 꾸미고 각 단면 전방에 석벽石壁을 구축하여 흙을 막았고[土留] 돌계단으로 연결하였으며, 가장 높고 가장 뒤에 있는 단에 능이 있다. 능은 높이 10척 내지 15척, 지름 20척 내지 30척, 봉토 형태는 반구형이며, 능은 석벽石屏으로 그 주위를 감싸고, 그 주위에 돌난간을 에워싸 석수石獸를 배치한다. 정면에 장방형의 석상石床를 놓고 좌우에 망주석을 세운다. 제2단 정면에는 장명등長明燈을 두고 좌우에 문석인文石人을 마주 세우며, 제3단에는 좌우에 무석인武石人을 마주 세우고 제4단은 가로로 약간 넓은데 여기에 정자각丁字閣이 있다. 이 제2단과 제3단을 같은 단으로 만든 간략화된 것도 있다. 정자각 앞에는 경사가 있어 언덕 밑의 평지로는 석단에 의해 연결된 것처럼 보이며, 정자각 밑의 좌측(마주하면 우측)에 능비陵碑가 있었던 것 같다.

## 제 3 절 현실玄室

묘광墓塋은 이번에 조사한 칠릉군七陵群 제7릉 및 지릉智陵, 기타 일부분 노출된 것과 이조 초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참고해 상상해보면 길이[奥行] 10척 내외, 폭 9척 내외, 높이 7, 8척의 석축방광石築方塋이며 『오례의五禮儀』에 따르면 그 특수한 능묘에는 석벽에 거리를 두고 문호를 따로 설치한 양광兩塋을 함께 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오례의』에는 광벽塋壁 및 뚜껑돌 내면에는 백악白堊을 바르고 하늘의 모양,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은하를 전차鹽次에 의하여 그리고, 4벽에는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를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리고 북쪽에 현무를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리며, 남쪽에는 문비석門扉石에 주작을 그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서군 우현리遇賢里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니 바로 『오례의』의 기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생각하건대 고려시대에도 꼭 이 묘제였을 것이다. 다만 때로는 예외도 있어 사신四神

第一トス、然レトモ此陵ハ諸陵中其制ナキ蘇以ノモノナリ且ツ末期ノモノナリ以テ之ヲ經王陵ノ普通ノ標準トスヘカラス、結構ノ普通ナルモノナリ其比較的ニ陵城ノ構造物ノ遺存セルハ東陵諸陵及七陵諸陵ヲナリ可レ、現今諸陵ノ陵城ハ構造ハ李朝ノ入リテ屢々修築サレタガコト既ル第一節ニ記スルヲ以テコレニヨリテ推測ヲ試ムルハ非宜ニ關心ノ注意ヲ要スルモノナリ其原結構ヲ遺存スト思ハル、モノニヨリテ推測セバ陵城ハ幅十間内外長二十間内外ノ長方形ノ地ヲ割リテ左右後ノ三方ニ石壇ヲ築ラシ、其區域内トシ各垣向ノ前方ハ石壇ヲ築キテ土間トナシ石階段ハ上段處邊ノ垣ニハ陵アリ、陵ハ高サ十尺乃至十五尺徑二十尺乃至三十尺封土ノ形半球形ヲナシ、陵ハ石垣ヲ以テ其相ヲ護リ、其垣向ニ石垣ヲ築固シ石垣ヲ修葺シ、正面ハ長方形ノ石床ヲ築キ、左右ハ壁柱石ヲ建ツ、其第二節ノ正面ニハ長方形ヲ築キ、左右ハ文石人ヲ對立セシメ、第三垣向ニハ左右ハ文石人ヲ對立セシメ、第四段ハ壁柱、與テシテヨ、丁字半圓アリ、此第二垣ト第三垣トハ同一階向ヲナス階向ナルモアリ、丁字階向ハ垣向ヲナシ階下ノ平地ニ石段ヲ以テ達シテ知シ、丁字階下ノ左方ハ四ハ陵神アリヲ知シ

### 第三節 玄 室

墓域ハ今回調査セシ七陵諸第七陵及智陵其他一部分露出セルモノト李朝初期ニ成リシ國朝五禮儀ニヨリテ想像スルニ應行ナリ内外幅九尺内外高七八尺ノ石築方壇ニシテ五禮儀ニシテハ其特殊ノ陵墓ニハ石壇ヲ隔テ、門戸ヲ開キタル兩端ノ侍也儀ニヨリコトアリトイフ、五禮儀ニハ兩端及左右ノ内面ニハ白雲ヲ塗リ蓋石ニハ天龍目月星長龍等ヲ繪スル所ナリ蓋石ニハ東ニ青龍ヲ西ニ白虎ヲ圖リ南同ニ蓋石ニハ玄武ヲ圖リ西向セシメテ蓋石南ハ門壁石ニ蓋石ヲ蓋テハキコトヲ記セテ、江西臨海寶景ハ於ナガ高野郡古墳ノ壁蓋ヲ見ルニ正シテ五禮

儀ニ記スルニ一致ス、コトヲ思ハル蓋臨時代必ニ此制ナリシナリ可キナリ、尤モ時ハ異朝アリテ或ハ四神ノ代ニ十二神等ヲ畫タカシコトモアリシナリシテ、爾シテ四壁ニハ輻輳ヲ垂レ四神ハ之ヲ壁ニ畫スルニシテ輻輳ヲシコトナリトス、墳墓ニハ壁ヲ數キ若クハ上ヲツキ壁ノ其上ニ龍鳳ヲ畫キシナリシ、中央ハ神宮ヲ安置シ其兩旁ハ明器瓶瓦ヲ陳レタリ、門壁石ハ兩端壁ノ外方ニ繪シテ瓦ナル如クシ更ニ之ニ門壁石ヲ加ヘ封土ヲ覆フテモトスルヲ知キテ以テ蓋蓋ナルモノナキヲ當トス、然リト雖舊ニ注意スヘキハ李朝五禮儀治墓ノ體ニ

其發石門前之外以石作壁易ヤ其最西長二尺二寸廣一尺二寸ト記シ諸禮儀ニ

神階階級以入玄宮各以次第儀檢之使有行列其不遵入者於門壁石外刻作經易藏之

ノ記事アリ、是等ニ就テハ  
石臺 玄室ノ石壇アリ一之由七尺許幅地深五尺用三物ニ築成一尺五寸以油灰整成蓋石内面四邊物使隆起字裏即以蓋石相合又堂前於兩石台縫之隙以銅鐵繩束之橫城各一貫於城地之中其四方及上面以三物律ニ整磨厚一尺五寸以本土填築埋之

トシ 諸禮儀ニ  
玄室石壇於陵前近地石床之北

### 第四節 棺 槨

トアリ、是レ李朝ノ禮制ナレトモ支那古禮ヲ採録セルモノナレハ悉クハ高麗朝ヨリ繼承セル禮制ナル可シ、本員ハ七陵諸第七陵及智陵ノ調査ニ際シ此部分ヲ略観調査セシレハ當時ノ制無キヲ知リシ一夫先禮ナリトス

대신에 십이신장+二神將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겠지 싶다. 혹은 4벽에 유장帷帳을 드리우며 시신은 벽에 그리지 않고 장帳에 그리는 수도 있었다고 한다. 광塋의 바닥에는 벽돌[甃]을 깔거나 혹은 윗부분을 다지고 그 위에 샛자리[簾席]를 깔았을 것이다. 중앙에 재궁梓宮을 안치하고 그 양측에 명기복완名器服玩을 늘어놓았다. 문비석門扉石은 남광벽南塋壁 바깥과 접하여 바로 덧붙여 세우고 나아가 그것에 문의석門倚石을 추가하여 봉토를 덮은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으며, 연도美道 같은 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조『오례의』 치장治葬의 조條에는 “그 의석(문의석)의 바깥에는 돌로 편방便房을 만들고 … 방 안은 길이 2척 2촌, 너비 1척 2촌이다.”<sup>3</sup>라 기술되고 천전의遷奠儀에는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을 받들어 현궁玄宮(무덤방)에 들이는데, 각각 순서대로 편외에 따라 늘어놓아 행렬을 갖추게 하고, 다 들여놓지 못한 것은 문비석 바깥에 따로 편방을 만들어 넣어둔다.”<sup>4</sup>라는 기사가 있다. 묘지에 관해서는 “석대石臺(아마 돌난간 밑에 있는 지대석일까)의 남쪽에 대략 7척 정도 되는 곳에 땅을 깊이 5척 정도로 파고, 삼물三物(석탄, 황토, 고운 모래)를 써서 깊이 1척 5촌이 되도록 쌓는다. 유회油灰로 지석의 안쪽 면 네 변을 바르되, 글자의 획에 너무 가까이 닿지 않게 한다. 곧 뚜껑돌을 덮고, 서로 합해지면 또 유회를 두 돌의 틈새에 바르고서 구리줄과 쇠줄을 각각 하나씩 써서 이리저리 엮어맨다. 파놓은 땅 한가운데에 <지석을> 두고, 그 사방과 윗면에 삼물을 천천히 빈틈없이 쌓는다. 두께 1척 5촌이 되면 쌓아놓은 것을 원래 흙으로 매꾸어 묻는다.”<sup>5</sup>라 하여 천전의遷奠儀에는 “지석을 내려 남쪽의 가까운 곳, 석상石床의 북쪽에 묻는다.”<sup>6</sup>라 되어 있다. 이것은 이조의 예제禮制이지만 중국 고례古禮를 채록한 것이니 아마도 고려조부터 계승된 예제였을 것이다. 보고자는 칠릉군 제7릉七陵群 第七陵 및 지릉智陵을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의 무식無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단한 실패失態라 할 수 있다.

#### 제 4 절 관곽 棺槨

고려 귀족의 분묘에는 석곽(혹은 석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많으며 벌써 많이 발굴되어 세상에 있는 것이 허다하고 사람들이 자주 볼 기회가 있다. 그 크기는 길이 3척 내외, 폭이 2척 내외, 높이 1척 5촌 내외로 된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지극히 조그만 것도 있다. 6장의 판석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그 4변석의 외면에는 앞쪽(남) 돌에 주작, 뒤쪽(북) 돌에 현무, 왼쪽(동) 돌에 청룡, 오른쪽(서) 돌에 백호를 새기고 그 내면에는 때로는 꽃가지 등의 그림을 새긴 경우도 있으나 무문無文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드물게 묘지석墓誌石을 겸용하여 그 지문誌文을 새긴 경우도 있다. 바닥돌[底石]의 남면에는 가로세로로 선을 새기고 부양敷樣을 이루는 것도 있으나 무문이 일반적이다. 뚜껑돌[蓋板石]은 내면에 성신星辰, 외면에 천상의 비선飛仙 혹은 불상을 새긴 것이

3 “其倚石(門倚石)之外 以石作便房 … 房內長二尺二寸 廣一尺二寸”

4 “捧明器服玩 入玄宮 各以次遂便房之 使有行列 其不盡入者 於門扉石外 別作便房 藏之”

5 “石臺(아마 돌난간 밑에 있는 지대석일까)之南 七尺許 掘地 深五尺 用三物(石炭黃土細沙)築 底一尺五寸 以油灰塗誌石內面四邊 勿使侵近字畫 卽以蓋石 相合又塗油灰 於兩石合縫之隙 以銅鐵繩束之 橫縱各一 置於掘地之中 其四方及上面 以三物徐々堅築 厚一尺五寸 以本土填築埋之”

6 “下誌石 埋於陵南近地石床之北”





일반적이다. 보고자가 본 한 가지 특별한 사례로는 4변석의 내면에 십이지신을 새긴 것이 있었다. 이것은 명확히 묘광의 4벽 및 뚜껑돌에 그려야 하는 물상<sup>7</sup>을 각기 그 석곽의 각 면에 그림 그리듯이 새긴 것으로, 이 석곽은 그 구성으로 보아 묘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석곽의 크기로 단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시체를 안치한 것이 아니었음은 명확한 사실이고 묘지 등이 기술한 바로 추정하면 화장<sup>8</sup>한 자의 유골과 유회<sup>9</sup>를 납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에 대해 엄밀하게 용어를 사용하려면 지금까지 임시로 석곽<sup>10</sup> 혹은 석관<sup>11</sup>으로 칭해온 이 물품은 관<sup>12</sup>이나 곽<sup>13</sup>이 아니라 오직 석곽<sup>14</sup>라 칭해야 한다.

보고자는 이 석곽이 엄중한 석실 내에 관곽<sup>15</sup>과 마찬가지로 안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자의 억측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석곽을 엄중한 석실 내에 안치한 특별한 경우는 있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간신히 토괴<sup>16</sup>의 침박<sup>17</sup>을 지탱할 만한, 대강 쌓아 만든 좁은 광<sup>18</sup> 안에 놓인 것으로 믿는 바이다. 혹은 별도로 광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토괴가 접촉하는 대로 놓아두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후의 조사결과는 꼭 보고자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왕자와 대세력을 가진 귀족은 생각컨대 이러한 석곽이 아니고 목관·목곽을 사용하여 견고한 석실(묘광)을 축조하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했다고 보인다. 먼 낙랑·대방으로부터 고구려·백제 및 통일시대 신라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석실 내에 목관곽을 안치하여 석관곽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근년 이 분묘들을 조사한 결과 명확해진 사실이다. 백제 개로왕<sup>19</sup>이 대석을 옥리하<sup>20</sup>에서 반출하여 곽을 만들고 아버지 뼈를 묻은 것은 예외 중의 예외이며 본인과 나라를 멸망시킨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 바가 있다(이 곽을 석실[광]으로 이해하는 것은 ‘곽’의 본뜻을 모르는 무식에서 비롯된 것임). 이조 선조<sup>21</sup> 때 이정형<sup>22</sup>이 기록한 『동각잡기<sup>23</sup>』에 국초<sup>24</sup>의 일을 “국초<sup>25</sup>에는 산릉<sup>26</sup>에 석곽을 썼는데, <태종<sup>27</sup>의 비> 원경왕<sup>28</sup> 민씨<sup>29</sup>께서 돌아가시자 태종께서 민력<sup>30</sup>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영을 내려 통돌을 쓰지 말고 네모나게 깎은 돌을 합쳐 만들도록 하였다. 세종<sup>31</sup>께서 통돌을 깨어 취하시니 태종께서 역사<sup>32</sup>하는 곳에 가서서 깨어버리셨다.”<sup>33</sup>라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이조 초기에는 석곽을 사용한 것 같으나 이 기사가 『국조보감<sup>34</sup>』에 보이는 것에 따르면 통돌[全石]은 석곽에 쓴 돌이 아니라 석보개석<sup>35</sup>에 쓴 돌이다. 생각해건대 이정형의 기사는 그가 사관<sup>36</sup>으로 실록을 읽었을 때의 기억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고, 보감은 실록에서 바로 기록한 것이다. 실록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아도 보감의 기사가 옳다고 판단된다. 이조에서도 석관곽을 사용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고려 왕조에서도 왕자·귀인에 대한 장례 예제에 따라 정식의 석보<sup>37</sup>(광)를 조영할 때는 목관목곽을 사용하여 석관석곽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석곽<sup>38</sup> 같은 것은 일종의 약식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믿는다. 고려 고종대의 권신 최이<sup>39</sup>는 『고려사<sup>40</sup>』에 따르면 아내를 매장했을 때

7 ‘무너지는 흙’, 또는 土塊(흙덩이)의 오식으로 보인다.

8 “國初山陵用石槨 元敬王后喪 太宗以勞民力 令勿用全石而以方石合成 世宗伐取全石 太宗自往役擊剖之”





금은금수金銀錦繡로 감보龕寶를 장식하여 석보의 기교奇巧가 극에 달했는데, 왕후가 사망했을 때 관곽을 헌납했더니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왕이 보고 감탄했다고 한다.<sup>9</sup> 이 관곽은 석제로 해 석할 수는 없고 목제였을 테지만, 이것은 가장 호사豪華가 극에 달한 것이다.

## 제 5 절

### 능의 봉토 및 병석屏石

능에는 반구형으로 봉토를 덮었다. 높이 10척 내외, 직경 20척 내지 30척이 있으며 그 아랫부분에는 병석(병풍석)을 둘러싸는 게 일반적이다. 능 위에는 사초莎草를 심었다.

병석은 현재 모두 산실된 능이 있고(혹은 처음부터 그 설비가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임), 간신히 일부가 남은 것이 많이 있으며 이것을 완비한 능은 현릉顯陵·정릉正陵·현릉玄陵 등 서너 개 능밖에 없다. 완비된 병석은 면석面石, 우석隅石, 정지대석正地臺石, 만석滿石, 인석引石 등으로 구성되어 12각면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면에 하나의 면석이 있고 그 구석에 하나의 우석이 있다. 하나의 우석은 좌우의 면석을 지탱하여 면석과 우석 아래에 정지대석이 있고 그 위에 만석이 있다. 각 위쪽 구석에 인석이 있으며 봉토 안에서 튀어나와 좌우의 만석 끝을 끌며 지탱한다. 일반적으로는 병석이 12각면을 이루는데, 이와 달리 명확히 원형을 이룬 것은 월광동月光洞 제2릉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조『오례의』에는 병석屏石의 각부에 관해 “우석은 12개로 운채雲彩를 새긴다. 면석은 12개인데 각 돌의 바깥면에는 그 방위의 신을 새기고, 사방에는 운채를 새긴다. 정지대석은 12개로 엮어놓은 연꽃 모양이며, 만석은 12개로 위를 보는 연꽃 모양이다. 인석은 12개인데 바깥쪽 끄트머리에 흑 모란이나 해바라기를 새긴다.”<sup>10</sup>라 기록했으나 여릉麗陵의 병석 중 이제 이렇게 기록된 각 부분을 남긴 것이 많지 않아 병석의 조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완전히 남아 있는 병석 중에서도 각 돌에 새긴 모양이 있는 것은 현릉玄陵과 정릉正陵에 불과하다.

면석에 십이방위신(소위 말하는 십이지신장, 십이신장)조각이 남은 것은 보고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온혜릉溫鞋陵, (2) 현릉顯陵, (3) 영릉榮陵, (4) 선릉宣陵, (5) 고릉高陵, (6) 정릉正陵, (7) 현릉玄陵, (8) 칠릉군 제2릉七陵群第2陵, (9) 칠릉군 제3릉, (10) 칠릉군 제5릉, (11) 선릉군 제3릉宣陵群第3陵, (12) 명릉군 제2릉明陵群第2陵, (13) 명릉군 제3릉의 13릉이다. 다만 이 13릉 외에도 이것을 조각한 능이 있었겠으나 여릉麗陵 중에는 벌써 원석을 상실하고 후대에 보수한 것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완전히 산일散逸된 것이 있어 조사하기 어렵다. 십이방위신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 제 6 절

### 십이방위신

십이방위신은 십이지에 배치시킨 신이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십이지신十二支神이라고도 칭한다. 약사여래의 권속眷屬으로 낮과 밤 12시를 관리하고 귀불자歸佛者를 수호하는 신장일 경우는 십이장신十二將神이라고 칭하고 혹은 단지 십이신이라 칭할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왕릉 중 그 병석屏石의 면석에 상응하는 방위신을 조각하여 십이면석에 쥐[子]로부

9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叛逆, 崔忠獻 附 崔怡에 따르면, 최이는 금은금수로 ‘龕室’을 꾸미고 ‘石室’의 기교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 글 속 龕寶, 石寶의 寶는 室을 잘못 읽은 결과이거나, 오식으로 보인다.

10 “隅石十二刻雲彩 面石十二 每石外面中刻其方位之神 四方刻雲彩 正地臺石十二爲覆蓮 滿石十二爲仰蓮 引石十二 外端或刻牡丹或葵花”



터 돼지[亥]에 이르기까지 십이신을 조각한 것 혹은 조각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13개 능이 있다.

능묘 봉토 주위에 병석을 둘러싸고 그 12면에 십이방위신을 조각하는 것은 벌써 신라시대부터 행해졌으며 김유신묘 혹은 패릉<sup>掛陵</sup>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남아있다. 기타 신라 능묘는 벌써 석물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수색 조사하지 않으면 명확히 말할 수 없으나, 통일시대 능묘의 대부분은 그 묘제가 김유신묘나 패릉 같았을 것이다. 조선반도의 예제의물<sup>禮制儀物</sup>은 지나支那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신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면 수당<sup>隋唐</sup>풍이었을 것이다. 당대의 능묘에 관해서는 아무런 전문이 없어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으나 당대 묘지<sup>墓誌</sup> 측면에 경우에 따라 십이지를 조각하는 것이 있음은 알려져 있는 바이며, 혹은 아마도 광내에서 발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sup>龍</sup>에 수수장수<sup>獸首長袖</sup>의 십이지신이 있음도 알려져 있다. 조선 고려시대의 납골석제 내면 4면에 십이방위신을 조각한 것이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니시혼간지<sup>西本願寺</sup>가 소장하고 있다고 함). 또한 근년 출처가 약간 의심스럽지만 활석제 십이신좌상 서너 개를 경성 골동상을 통해서 이왕가박물관이 구입한 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경<sup>高麗鏡</sup>에 십이방위신의 모양이 있는 것이 존재함은 벌써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나라<sup>奈良</sup> 시대 당풍<sup>唐風</sup>의 영향을 받아 십이방위신을 돌에 조각하여 능 옆에 세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유물로는 현재 나라현 소에카미군<sup>添上郡</sup> ○능 옆에 세워진 하야토이시<sup>隼人石</sup> 혹은 견석<sup>硯石</sup>이라 칭하여 옛날에는 ‘大奈閉之七匹狐’라 칭했던 것도 이것이다. 이 각석은 심한 조각<sup>粗刻</sup>이며 신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으나, 생각컨대 원래 12개 있었고 방위에 맞추어서 능 옆에 세웠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자는 아직 실물을 본 적이 없으나 제실어물<sup>帝室御物</sup><sup>11</sup>에 가마쿠라시대<sup>鎌倉時代</sup> 도가노오<sup>梅尾</sup>의 승려젠쇼<sup>玄證</sup>가 고보다이시<sup>弘法大師</sup><sup>12</sup>가 가지고 왔던 약사십이장신<sup>藥師十二將神</sup>을 모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관 위에 십이지를 하나씩 앉혔다고 한다. 조선에서 능묘 병석에 조각한 십이방위신으로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작품은 앞서 언급한 경상북도 경주군에 있는 김유신릉 및 패릉의 것인데, 수수신장<sup>獸首神將</sup>을 세우고 무기를 지닌 부조<sup>浮彫</sup>이다. 형식도 가장 완비되었다.

앞서 언급한 고려 13릉의 십이방위신의 형상 등은 다음과 같다.

능 명칭	형상	자세	지물	조각 방법	비고
온혜릉	수수의 <sup>獸首衣</sup>	입립	홀笏	부조	.
현릉 <sup>顯陵</sup>	수수의	입	홀	부조	십이신 모두 존재함. 후대 수리한 흔적이 있음.
영릉	수수의	입	홀	부조	수법이 현릉 <sup>顯陵</sup> 과 유사함.
선릉	수수 <sup>獸首</sup>	좌座?	홀	부조	
고릉	수수의	좌	홀	부조	졸렬拙劣한 작품임.

11 쇼소인<sup>正倉院</sup> 같은 곳에 보관되는 일본 황실의 소장품을 가리키며, 특히 이 글이 작성된 1910년대에는 도쿄, 교토, 나라에 있던 제실박물관<sup>帝室博物館</sup>(현재 일본의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의미한다.

12 일본 헤이안시대의 승려 구카이<sup>空海</sup>, 774~835)를 가리킨다.



突瓦ハ別石十二角點ノ外方ハ露ル地盤ニ立テコレハ十二本ノ竹石ヲ架シテ柱石ヲ節約セシメテ高宗御陵及顯慶郡第四陵ノ如キ是レナリ。正隆玄陵ノ如ク兩陵相並テ特別ノ陵ニハ兩陵ノ間ニ各陵ノ欄杆石ヲ立ツルハ是ハ兩陵ヲキリ以テ此間ノ欄杆石ノ共通トシ角數ヲ減シテ八角形ヲナセリ。

石柱ハ屯岡石ノ組織ナル方柱ハシテ竹石ハ圓柱形ナルヲ當トスレトモ石柱ハ時ニ八角形ヲナメテ或ハ圓形ノ圓形ノ存アルモノアリ然レトモ是レ皆其加工ニ精粗ノ別アル止マリ之ヲ時代ノ差異ハ隔スヘキナラバ如シ新羅時代ノ陵墓ニシテ欄杆石ヲ遺存スルモノ金甌縣ノ亞アサレトモ惣テハ此欄杆石ハ高麗朝若クハ本國ハ入りテ總造モシムルナラサルハ、歷代ハ於テハ李朝ノ修理ハ兩陵ノ如キ特別ノ陵ヲ除キテハ石物ノ新造補造ハマタハ到ラサシレハ明ナルヲ以テ歷代ハ遺存スル欄杆石ハ他ノ石物ト共ニ歷代ノ作品ナラ可シ。

## 第九節 石 獸

歷代ノ石獸ハ多キハ八軀ヲ遺存スルモノアラ、思ウニ四軀ヲ當例トスヘキモ、石欄杆外ノ四隅ハ外方ニ向テ之ヲ節約シテ守護スルノ用ヲナセリ、然レトモ現在ノ位置ハ陵墓修理補除ノ際ニ移轉復置セラルモノ多キハ明白ナルヲ以テコレヲ以テ原位置ノマシナラトスルコト能ハス。

石獸ノ樣式ハ大體二種ノ別アリ第一ハ肥大ハシテ高麗式高麗式兩方ノ方向ヲ睥睨スルモノ第二ハ第一ニ此シテ精刻ニシテ少シテ尙モ圓潤ノ形ヲサセラルモノナリ、第一ハ當例ニシテ第二ハ少ナク溫柱陵及顯慶郡第五陵及顯慶郡ノ於テ之ヲ見タルノミ、同一ノ陵ハ兩軀式ノモノヲ備有スルコト無シ、第二ハ顯武石獸ヲ有スル後ハ欄杆石ノ柱間ニモ亦加工アルヲ知シ。

石獸ハモト石狗ノ一軀ノミナトキ祖述ハ至テ兩頭ニ頸シ石龜ト石羊トノ二軀ニ分レシキ如シ、思ハニ元朝文化

ノ影響ハ現ナレナラシキ、七陵群第三陵、同第四陵、同第七陵及西華陵ノ石獸ノ如キ顯慶朝然ナラサレトモ虎羊ノ二軀ニ附テ舊體タルノ二軀ヲ有シ高麗王衣陵魯國公主正陵ノ石獸ニ至リテハ明白ハ虎羊ノ二軀ニ區別スルコトヲ知ヘシ、而シテ此等諸陵石獸ハ形式ハ於テ遺テ前記二軀式ノ内第一軀式ノ系統ハ屬スルモノナリ、顯慶ノ石物ハ石羊一個アレトモ李朝墳墓ノ作品ノ體裁ヲ混入セシモノナリ。

日本ニテハ天武天皇神代大内陵ノ時上ヨリ天武ヲ廢テ大和志料ハ見ユ。

李朝五禮儀ニハ石羊四石虎四ヲ置キ又外方ハ石馬二ヲ設テ兩陵中ニハ石馬ヲ設ケルモノヲ見ユ、正隆玄陵ノ如キ完備モラルモノモ亦存在セラルナリ、日本ニモ僅キ石馬ヲ惣アルモノアレトモ墳墓ハ關係アルモノハナラス。

## 第十節 石 望 柱

石望柱ノ一對若クハ一本ヲ遺存スル陵墓ハ顯慶、宣陵、龜陵、正隆玄陵、七陵群第三陵、顯慶郡第二陵、顯慶郡第三陵等ナリ、李朝五禮儀ハハコレニ種々ノ形ヲ用テ規定アレトモ歷代ノモノハ沿革ハシテ正隆玄陵ノモノ及モ李朝ノ存タルヘキ顯慶ノモノニ加工ナリ、龜陵ノモノ、柱間ニ珠形ヲ刻スルモノアルノミ、七陵群ノモノ、如キハ極メテ簡單ナルモノナリ。

石望柱ノ圓面ハハ不通孔ヲ穿テモノアラ、其例ノ用ナルヲ知ラス、若シ一見モシテノ威態ヲ違ヘンキ、支那ニ於テハ碑ノ裝飾的意義ノモノヲ更ニ形式的ニ表出顯立セシモノニ似タリ。

## 第十一節 床 石

능 명칭	형상	자세	지물	조각 방법	비고
정릉	신인神人	입	홀?	부조	
현릉玄陵	신인	입	홀?	부조	
칠릉군 제2릉	수수의	좌?	홀	선각	
칠릉군 제3릉	수두獸頭를 얹힌 신인	입	홀	부조	
칠릉군 제5릉	(마멸 불분명)				
고릉군 제3릉*	수수의	좌?	홀	부조	우수한 작품임.
명릉군 제2릉	수수의	입	홀	부조	졸렬한 작품임.
명릉군 제3릉	(두부 결여) 의차		홀	부조	

\* 원문 283쪽에는 “선릉군 제3릉”으로 되어 있고 바로 뒤에 “선릉군 제3릉 … 볼 만하다”는 기술이 있어 ‘선릉군’의 오식으로 여겨진다.

이상 13릉 가운데 온혜릉은 그 제작이 아마 고려 중세 이후일 것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수면獸面인 것과 수관인면獸冠人面의 것, 그리고 완전한 인면의 것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는 시기에 따라 변이變移했다고 해석하는 데 충분한 재료를 얻지 못했다. 면석에 십이방위신을 조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조 『오례의』에서 규정한 것인데 정작 이조의 각 능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은 신기한 일이다.

방위신 조각의 기교는 선릉군 제3릉과 같이 조금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나머지는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것뿐이다. 보고자는 고려조의 다른 석공품으로 기예가 우수한 것이 많은데 왕자 최종의 궁전이자 영구적인 어소御所인 능묘에 관계된 석조물이 현정玄正 2릉을 제외하고는<sup>13</sup> 졸악조악拙惡粗惡이 극에 이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릉顯陵의 조각물에 관해서는 후대의 보수가 있었고 또한 재궁梓宮을 옮긴 일이 있어 그 제작연대가 혹시나 후대後代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으나, 다른 능의 방립신方立神 조각은 원작으로 믿는다.

## 제 7 절 능묘의 정면

능묘는 병석의 제7면석(오午)를 전면(남)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릉正陵·현릉顯陵과 같은 경우는 우석을 정면에 배치시켰다. 이조에서는 제6면석(사巳)과 제7면석(오) 사이를 정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릉과 같은 경우는 원래 제7면석을 정면으로 했던 것 같은데 후대 돌난간 건립 때 당대, 즉 이조의 관습에 따라 제6면과 제7면 사이의 우석을 정면으로 삼아 돌난간을 건설했기 때문에 돌난간과 병석이 평행하지 않게 되었다. 능의 전면은 이조에 이르러 수축될 때마다 다소 변이變移가 있었는데, 서투른[粗漏] 수축에서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면석을 정면으로 하는가 우석을 전면으로 하는가에 따라 능의 연대를 고찰하려고 하는 건 현재 능의 구조가 원래 축조되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동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3 앞서 선릉군 제3릉이 우수하다는 기술과 앞뒤가 안 맞는다.

其明燈寺亦隨陵正陵而遷存之，七陵群墓七陵及七英陵亦其一部份亦遷存焉。

石人ハ今全ク散ラセテ陵アリ僅ニ其二ツ殘存スルアリ二對ヲ完全ニ遺存スルアリ、塚割シテ地上ニ山積ハルモノ  
國新シテ一邱ヲ失スルモノ少ナカラズ、例朝末ニ復立モレモ其後再び倒レタルナル可シ、二對アリテ完備ス  
ルモノトナスカ知シ、玄陵段陵アリテ明白ニ石人ヲ遺存スルモノ各對ニ區分スヘシト雖其概ノ陵ニアラテハ其定  
數ヲテ大小ノ差ハヨリテ各一對ヲ、二組ニ區別シラズルモ其ノアリテ成ハ全ク區別シ難ハナルモノアリト判  
斷スル長瀬ナリ

石人ハ今全ク散ラセテ陵アリ僅ニ其二ツ殘存スルアリ二對ヲ完全ニ遺存スルアリ、塚割シテ地上ニ山積ハルモノ  
國新シテ一邱ヲ失スルモノ少ナカラズ、例朝末ニ復立モレモ其後再び倒レタルナル可シ、二對アリテ完備ス  
ルモノトナスカ知シ、玄陵段陵アリテ明白ニ石人ヲ遺存スルモノ各對ニ區分スヘシト雖其概ノ陵ニアラテハ其定  
數ヲテ大小ノ差ハヨリテ各一對ヲ、二組ニ區別シラズルモ其ノアリテ成ハ全ク區別シ難ハナルモノアリト判  
斷スル長瀬ナリ

丁字閣陵墓ハ陸城ノ前方ニ在リテ今尙ホ其礎石ヲ遺存スル所ノ多シ、實則同ノ陵ヲ見ル可シ

一、方柱形ノ石四面圓柱形等ヲ別認スルニユキモ、諸國記述ノ條ニ就テ見ル可シ、李朝ノ作品ト裁断スル様式上ノ別アリ、其縁部ヲ論ケンニハ向キ資料ノ足ラサルヲ以テ之ヲ他日ニ譲ラントス

陸奥ノ道存スルニ、無ビテ、關神處ニ王后自後松宮ニ遷シタルハ其職跡ヲ遺存ス。東都陸奥縣陸奥郡赤井ノ陸奥近邊ニ  
臥ク道存セリト云名稱アリ存スモノハアラサカ也。  
陸奥ノ碑ヲ建ツルコトハ支那風習ノ傳來ニシテ有基ナク、舊同上ニ謂德ノ陸奥ノ如キコレナリ。抑羅時代ニ在リ  
テハ文治ノ埃金葉集皇碑ノ如キモノアリ。關陵ノ多ク一碑ヲ建ツレシモノナリ可シト雖近世陸奥ノ如キ定例モ陸  
奥於テ陸奥ナルモノ無クシテ之ニ代ガレ陸奥ノ寺則チ尙通書佛經中ノ碑アルコトハ歷々觀ミ陸奥ヲ建ツルノ  
制趣ヘタリトノ證據ナラヘキムアラサカ也。  
新羅古蹟ノ兩朝ノ僧侶居唐時ノ多ク建立セラル道存スルコトハ人ノ知ル所ナリトモ士大夫ノ神道碑ノ存スル  
モノ僅ニ歷末一二三ニ止マレバ其奇事ナリ。李朝ノ地ヲ主權ニ神道碑ヲ建ツルコトハ文宣顯陵ノ下懸セラル  
人君行幸ニ修飾國風未必如土夫夫之文神道碑トイフニアリトイフ。  
關陵蓋蘇門作ベ之ヲ他ノ比ハルハ機巧ナリシカ如キモ浮屠碑ノ精巧壯大ハ此ニヘタモアラサリシカ如

ハ日蓮存ハ、眞經石物中、中論ニ、如キハ、俄然ノ轉作多ク、而シテ其轉作ノ際ニハ、漸次ヲ經テハ、見レリトナシ、轉作ヲテ、ミレシムルハ、其轉作ニ、見テスルニ、雖、經院ノ前代ノ作品ト認ムルヘキ、石物ノミナリト雖、轉作ノ間ニテハ、當代ノ轉作ノ作品ト比較シテハ、ミラザルキ點モ、ハ、其テ、奇テ、ナリトイフヘシ。



제 8 절  
난간석

여릉麗陵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거의 모두 난간석의 유물 혹은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난간석은 병석에서 3척 정도 거리를 두고 바깥 병석면에 평행하여 건설된다. 석주, 동자석주童子石柱, 죽석竹石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이것을 세우는 지면 밑 구조에는 우석隅石, 하지대석下地臺石, 박석搏石, 지석支石 등의 호칭을 가진 각각의 석재가 있었던 것 같다.

난간석은 석주 12개, 동자석주 12개, 죽석 12개(때로는 24개)가 있으며 석주는 병석의 우석 모 바깥에 해당되는 지점에 세우고 동자석주를 그 면석 중앙 바깥쪽에 해당하는 지점에 세우며, 석주 사이에 죽석을 가로놓고[橫架] 동자석주(짧다)로 죽석 중앙을 지탱하는 것이 일반적常則이다. 따라서 난간석은 12각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병석이 원형을 띤 월광동月光洞 제2릉과 같은 경우 난간석도 병석에 따라 원형을 띠게 되었다. 이것을 특별한 사례이다. 또한 조금 더 간단한 구조로 석주 6개, 동자석주 6개를 번갈아 병석 12각점 바깥쪽에 해당하는 지점에 세우고 12개의 죽석을 가로 놓아 석주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고종홍릉高宗洪陵 및 소릉군韶陵群 제4릉이 이런 사례이다. 정릉正陵과 현릉玄陵 같이 양릉이 나란히 서 있는 특별한 경우 양릉 사이에 각능의 난간석을 세울 간격이 없어 그 사이의 난간석을 공통으로 하고 각수角數를 줄였기 때문에 8각형을 띠게 되었다.

석주는 화강석의 조잡한 방주方柱이며 죽석은 원주형圓柱形이 일반적이지만 석주는 때로는 팔각형일 경우도 있다. 또한 머리 부분에 각형刻形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정교함과 조잡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시대적 차이로 환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신라시대 능묘 중 난간석을 남긴 것으로 김유신묘가 있지만 아마도 이 난간석은 고려조 혹은 본조本朝가 되면서부터 보충해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고려 이후 이조의 수리는 현릉顯陵과 같은 특별한 능을 제외하고는 석조물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충補添하기까지는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여릉에 남은 난간석은 다른 석조물과 함께 고려시대의 작품일 것이다.

제 9 절  
석수石獸

고려 이후의 석수는 많은 경우 8마리가 남아있지만, 생각컨대 4마리가 일반적이었을까. 석난간 밖의 네 구석에 바깥을 향해 이것을 두고 능을 수호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능역의 수리 혹은 청소시 이동시켜 다시 설치한 것이 많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위치를 원위치로 생각할 수는 없다.

석수의 양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비대하며 앞다리를 곧추세워 머리는 높이 들어 멀리 위쪽 방향을 비에睥睨하는 것, 둘째는 첫째에 비해 정교하게 조각하여 약간 날씬하고 포복匍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첫째가 일반적이고 둘째는 많지 않아 온혜릉, 영릉榮陵, 소릉군韶陵群 제5릉, 동구릉東龜陵에서 이것을 보았을 뿐이다. 같은 능에 두 형식이 섞여있는 일이 없다. 둘째에 속한 석수를 가진 능은 난간석주의 머리 부분도 가공된 것 같다.

석수는 원래 석구石狗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여말에 이르러 양반兩班을 나누어 석호石虎와 석양石羊 두 종류로 나누어진 것 같다. 생각컨대 원조元朝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칠릉군 제3릉, 칠릉군 제4릉, 칠릉군 제7릉 및 서구릉西龜陵의 석수 같은 경우는 유별類別이 분명

하지 않으나 호양虎羊 두 종류를 약간 방불케 하며 공민왕 현릉, 노국공주魯國公主 정릉의 석수에 이르러서는 명백하게 호양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각 능의 석수는 형식적으로는 모두 앞서 언급한 두 종류 중의 첫째 양식 계통에 속한다. 강릉康陵 석조물에 석양 하나가 있으나 이조 분묘에 서 있던 작품이 다른 데에서 섞여 들어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덴무천황天武天皇 히노쿠마노오우치노미사사키[檜隈大內陵]의 약간 높은 데[畔上]에서 와견瓦犬을 얻었던 일이 『야마토시료[大和志料]』에 보인다.

이조 『오례의』에는 석양 네 마리, 석호 네 마리를 배치하고 또한 바깥에 석마石馬 2마리를 놓는 제도가 있으나 여릉 가운데는 석마를 놓은 사례를 보지 못했다. 정릉正陵·현릉玄陵과 같이 완비된 것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자주 석마를 모신 경우가 있으나 분묘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 제 10 절

#### 석망주石望柱

석망주의 한 쌍 혹은 하나가 남은 능묘는 현릉顯陵, 선릉宣陵, 충릉聰陵, 정릉正陵과 현릉玄陵, 칠릉군 제3릉七陵群第三陵, 명릉군 제2릉明陵群第二陵, 소릉군 제3릉韶陵群第三陵 등이다. 이조 『오례의』에 따르면 다양한 조각으로 꾸미는 규정이 있으나 여릉의 석망주는 간단하여 정릉·현릉의 것과 이조 때 만들어졌을 현릉顯陵의 석망주에나 가공이 있다. 충릉의 석망주 머리 부분柱頭に 주형珠形을 조각한 것이 있을 뿐, 칠릉군의 석망주 같은 경우 지극히 간단하다.

석망주의 측면에는 통하지 않는 구멍을 뚫은 것이 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일견했을 때의 감상을 기술하면 지나支那의 원시原始 비석을 더 형식적으로 표시하고 세운 것만 같았다.

#### 제 11 절

#### 상석床石

현릉顯陵, 현릉玄陵, 정릉正陵 등 몇 개 능에 남아있다. 현릉과 정릉의 상석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볼 만한 가치가 없다.

#### 제 12 절

#### 장명등長明燈

장명등도 현릉顯陵, 현릉玄陵, 정릉正陵에 유존遺存하며 칠릉군 제7릉과 영릉英陵에는 그 일부만이 남아있다.

#### 제 13 절

#### 석인石人

석인은 지금 모두 흩어져 사라진 능이 있고, 간신히 한두 개가 남은 것이 있다. 두 짝을 완전히 남긴 것이 있으나 넘어져서 땅에 누워 있는 것, 두 개로 절단되어 일부를 잃은 것이 적지 않다. 이조 말에 다시 세웠다가 그 뒤에 다시 쓰러진 것도 있어 보인다. 두 짝이 있는 것이 완비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현릉玄陵·정릉正陵에서는 명확히 문석인文石人과 무석인武石人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다른 능은 관형冠形 혹은 크기로 한 짝씩 두 종류를 구별할 수 있거나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옷은 모두 긴소매[長袖]이다.

현릉과 정릉의 석인을 제외하고 다른 능묘의 석인은 매우 서투른粗拙 작품이며 그 가운데는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많은 것은 방주형方柱形의 석재에 머리카락頭面

胸衣褶] 등을 새겼을<sup>刻記</sup> 뿐이다. 제릉기술의 조[諸陵記述の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조 작품과는 명확한 양식적 차이가 있다. 그 변천을 논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므로 앞으로의 뒷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 제 14 절

### 정자각<sup>丁字閣</sup> 및 능실<sup>陵室</sup>

정자각과 능실은 능역 전방에 있으며 지금도 주춧돌이 남은 것이 많다. 실측도<sup>14</sup>를 참조하기 바란다.

#### 제 15 절

### 능비<sup>陵碑</sup>

능비를 남긴 것은 없으나 신성왕후<sup>神成王后</sup> 정릉<sup>貞陵</sup>, 경종왕<sup>景宗王</sup> 영릉<sup>榮陵</sup>에는 귀부<sup>龜趺</sup>가 있다. 동구릉<sup>東龜陵</sup>과 서구릉<sup>西龜陵</sup>도 예전 그 주변에 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능 앞에 비를 세우는 것은 지나 풍습에서 전래된 것으로 유명한 광개토왕 담덕<sup>談德</sup>의 능비가 이런 사례이다. 신라시대에도 문무왕릉이나 김유신묘의 비가 있다. 고려시대 능 중 많은 경우 비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릉·현릉과 같이 완비된 능에도 능비는 없으며 이것에 대신하여 능 주변에 있는 사찰인 광통보제전사<sup>廣通普濟禪寺</sup>의 비가 있다는 것은 고려 말에 벌써 능비 건립의 제도가 없어진 증거가 아닐까.

신라와 고려에서 승려부도탑비<sup>僧侶浮屠塔碑</sup>가 많이 건립되어 남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대부의 신도비<sup>神道碑</sup>가 있는 것이 간신히 고려 말의 두세 개에 지나지 않음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이조에 들어서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은 문종 현릉<sup>顯陵</sup>부터 폐지되었다. (근거는) “임금이 어떤 일을 행한 자취는 국사<sup>國史</sup>에 갖추어 실려 있으니 반드시 사대부가 신도비를 세우는 것처럼 하실 것은 없나이다.”<sup>15</sup>에 있다고 한다.

여릉 귀부는 다른 석조물에 비하면 정교하게 보이지만 부도비의 정교장대<sup>精巧壯大</sup>에는 비견할 수 없어 보인다.

#### 제 16 절

### 여릉 칠물<sup>七物</sup>의 기술에 관하여

오늘날 남은 여릉 석조물 가운데 현릉<sup>顯陵</sup> 같은 것은 후대의 보작<sup>補作</sup>이 많고 보작했을 때 형식만 갖추면 족하다고 생각하여 거친 작품이 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지만 여릉 중 당시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석조물임에도 거칠고 졸렬함이 지나쳐 이것을 당시의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매우 기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제 17 절

### 부장품

부장품 기타에 관한 내부조사는 이번에 아직 실시하지 못했으며 그 조사보고는 뒷날 조사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한다.

14 이 보고서의 제2편 제릉각기<sup>諸陵各記</sup>에는 이마니시 류가 답사하며 확인한 고려 왕릉의 설명과 실측도들이 실려 있다. 이 책에는 그 중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잘 나타나 있는 고려 광종 현릉의 실측도(이 책 227쪽 소재)를 예시로 실는다.

15 서거정<sup>徐居正</sup>(1420~1488), 『필원잡기<sup>筆苑雜記</sup>』 권2, “人君行事之跡 備載國史 不必如士大夫之立神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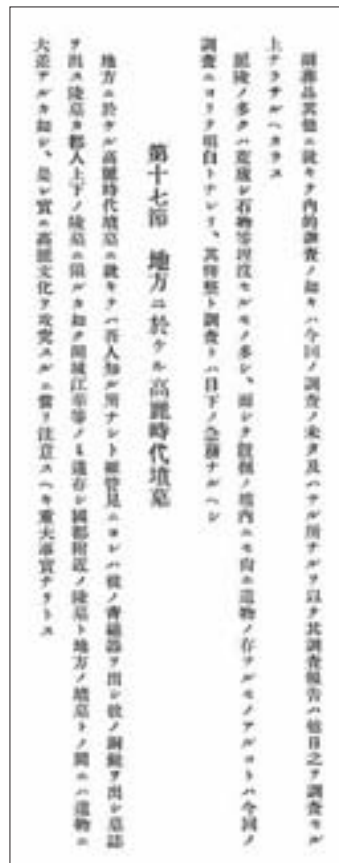


많은 경우 고려의 능은 황폐화되어 석조물 등이 매몰된 것도 많다. 그러나 벌써 도굴된 광내에도 여전히 유물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명확해졌다. 그 수리와 조사는 당장 해야 하는 급무急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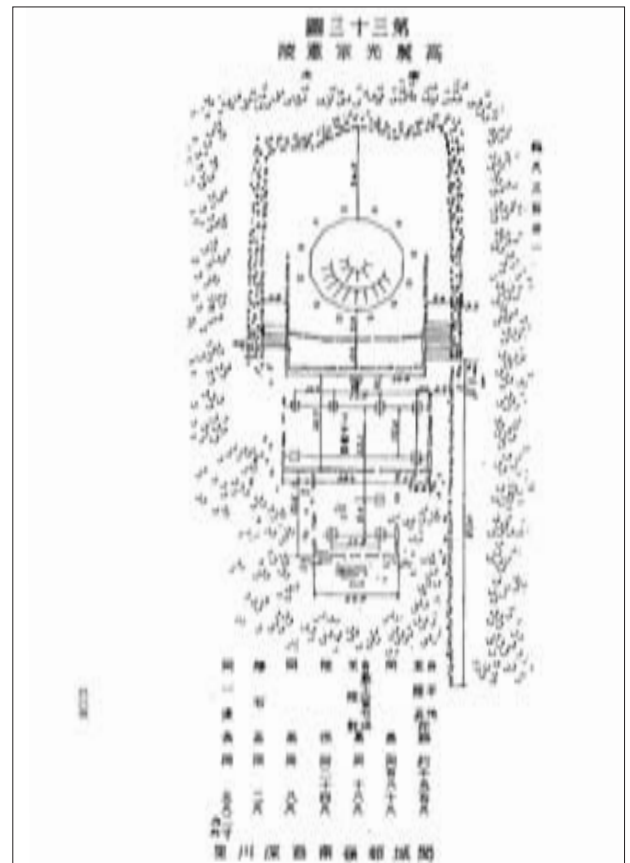
#### 제 18 절

### 지방의 고려시대 분묘

지방의 고려시대 분묘에 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으나 청자나 동경銅鏡, 묘지가 출토되는 능묘는 수도에 살던 사람들[都人上下]의 능묘에 한정된 것 같고, 개성·강화 등에만 유존하는 수도 부근의 능묘와 지방 분묘 사이에는 유물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실로 고려 문화를 연구하는 데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 진인진



고려 광종 현릉 실측도(1916년 西龍 實測) © 진인진

## 2. 유리건판 사진 목록

일련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1	23333	서북쪽에서 본 만월대滿月臺 전경	無516-13		
2	4332	경기 개성 만월대京畿 開城 滿月臺	160152		1916년
3	64	경기 개성 고려 왕궁 터王宮址 전경	90075		1909년
4	65	경기 개성 고려 왕궁 터 앞	90079		1909년
5	1098	만월대 뒤에서 본 서남쪽 토루土樓	110629		1909년
6	17497	서쪽에서 바라본 만월대 전경	D390010-1		1939년
7	31250	만월대	無180016		1918년
8	23221	만월대	無499-21		
9	23335	만월대 서남부	無516-15		
10	23334	만월대 회경전會慶殿 터 전면 석단石壇과 돌계단	無516-14		
11	35527	만월대 회경전 터 평면도	大72-6		1909년
12	35528	만월대 회경전 터 평면도	大72-7		
13	35529	만월대 회경문會慶門 터 평면도	大72-8		
14	27386	만월대 석등	無889-12	촬영 당시 개성보승회開城保勝會 소장	
15	36789	경기 개성 수창궁 용두龍頭	無400-5	현 개성 고려박물관 소장	
16	33828	만월대 발견 명문와편銘文瓦片	無450299		
17	23337	만월대 출토 연화문蓮華文 수막새편	無518-11		
18	24836	만월대 출토 수막새편	無671-3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공과대학工科大学 소장	
19	23263	만월대 출토 연화문 수막새	無503-13	좌: 촬영 당시 개성보승회 소장 우상, 우하: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 소장	
20	23325	만월대 출토 연화문 수막새	無516-4	좌: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우: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21	24837	만월대 출토 당초문唐草文 암막새편	無671-4		
22	30552	만월대 출토 당초문 암막새편	無1146-13		
23	37530	만월대 출토 당초문 암막새편	無541-3		
24	23256	만월대 출토 초화문草花文 암막새편	無503-6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25	23253	만월대 출토 기와편	無503-3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 소장	
26	25493	만월대 출토 초화문 기와편	無731-15		
27	24838	만월대 출토 귀목문鬼目文 암막새	無671-5		
28	24839	만월대 출토 귀목문 수막새	無671-6		
29	24840	만월대 출토 귀면문鬼面文 수막새	無671-77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30	37098	만월대 출토 기와편	無505-4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입력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31	24915	만월대 출토 치미鷗尾편	無679-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2	24909	만월대 출토 벽돌	無679-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3	24910	만월대 출토 벽돌	無679-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4	24912	만월대 출토 벽돌	無679-4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5	24913	만월대 출토 벽돌	無679-5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6	24911	만월대 출토 철창鐵槍·철정鐵釘	無679-3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7	24918	만월대 출토 철제 장식	無679-10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8	24919	만월대 출토 철제 장식	無679-1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39	24920	만월대 출토 철제 옥개屋蓋편	無679-1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40	37162	만월대 출토 청자상감 원숭이무늬 편호扁壺편	無574-5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開城府立博物館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106)	
41	23984	만월대 출토 청자상감 원숭이무늬 편호편	無600-1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106)	
42	24916	만월대 출토 항아리	無679-8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43	4670	고려 충렬왕비忠烈王妃 제국공주齊國公主 고릉高陵 전경	160493		1916년
44	4655	고려 명종明宗 지릉智陵 원경	160478		1916년
45	30330	고려 세조世祖 창릉昌陵 전경	無1130-1		1916년
46	37552	고려 태조太祖 현릉顯陵 전경	無1160-2		
47	4330	고려 태조 현릉의 장명등長明燈과 혼유석魂遊石	160150		
48	27245	고려 태조 현릉 전경	無880-16		
49	30332	고려 태조 현릉 호석護石 십이지상(말午)	無1130-3		1916년
50	30331	고려 태조 현릉 호석 십이지상(원숭이申)	無1130-2		1916년
51	4703	고려 신성왕후神聖王后 정릉貞陵 전경	160524		
52	4705	고려 신성왕후 정릉 귀부龜趺	160525-2		
53	27244	전傳 고려 혜종惠宗 순릉順陵	無880-15		
54	27312	고려 정종定宗 안릉安陵	無885-2		
55	34319	고려 대종戴宗 태릉泰陵	中38-5		
56	4681	고려 대종 태릉 십이지상(쥐子)	160503		
57	27314	고려 광종光宗 현릉惠陵	無885-4		
58	27315	고려 경종景宗 영릉榮陵	無885-5		
59	27316	고려 경종 영릉 호석과 석란石欄, 석수石獸	無885-6		
60	4708	고려 경종 영릉 석인石人	160528		



일련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61	27317	고려 현종顯宗 선릉宣陵	無885-7		
62	27319	고려 현종 선릉 석인	無885-9		
63	4693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七陵群 제1릉	160514		
64	37565	경기 개성 칠릉동七陵洞 고려 왕릉 제2릉 앞 석물	無1160-15		
65	37572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3릉 전경	無1160-22		
66	37559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4릉 후경	無1160-9		
67	4692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제5릉과 제6릉	160513		
68	4689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근경	160510		
69	30345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석인	無1131-4		1916년
70	30348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장명등	無1131-7		1916년
71	4659	고려 숙종肅宗 영릉英陵 전경	160482		
72	4660	고려 숙종 영릉 석수	160483		
73	4654	고려 명종明宗 지릉智陵 근경	160477		
74	4699	경기 개성 월로동月老洞 제1릉 전경	160520		
75	4700	경기 개성 월로동 제1릉 석인	160521		
76	4696	경기 개성 월로동 제2릉 전경	160517		
77	4697	경기 개성 월로동 제2릉 석인	160518		
78	30336	고려 원종元宗 소릉韶陵 전경	無1130-7		1916년
79	30337	고려 원종 소릉 석인	無1130-8		1916년
80	27258	고려 충렬왕비 忠烈王妃 제국공주 齊國公主 고릉高陵 좌측면	無881-13		
81	34322	고려 충렬왕비 제국공주 고릉 석인	中38-8		
82	4671	고려 충렬왕비 제국공주 고릉 십이지상(말午)	160494-1		
83	4710	전傳 고려 충혜왕忠惠王 영릉永陵 전경	160530		
84	34239	경기 개성 명릉洞明陵 고려 왕릉 제1릉 충목왕忠穆王 명릉明陵	中27-7		
85	27260	경기 개성 고려 충목왕 명릉군明陵群 제2릉	無881-15		
86	4673	경기 개성 고려 충목왕 명릉군 제3릉	160495		
87	4677	고려 공민왕비 恭愍王妃 노국공주 魯國公主 정릉正陵 · 공민왕恭愍王 현릉玄陵 전경	160499		
88	27246	고려 공민왕 현릉	無881-1		
89	27254	고려 공민왕 현릉 호석의 문양조각	無881-9		
90	27255	고려 공민왕 현릉 호석의 문양조각	無881-10		


일련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91	28273	고려 공민왕 현릉 장명등	無957-8		
92	28274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문석인(文石人)	無957-9		
93	28269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무석인(武石人)	無957-4		
94	30353	경기 개성 두문동(杜門洞) 고려 분묘 제1호분 전경	無1131-12		1916년
95	4684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3호분	160506		
96	34256	경기 개성 수락암동(水落岩洞) 제1호분	中29-8		
97	23099	경기 장단 법당방(法堂坊) 고분군 전경	無488-9		1947년
98	4685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3호분	160507		
99	4657	고려 명종 지릉 정면 도굴(盜掘)구덩이	160480		
100	4658	고려 명종 지릉 뒷면 도굴(盜掘)구덩이	160481		
101	4682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1호분	160504		
102	4683	경기 개성 두문동 고려 분묘 제2호분	160505		
103	4691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제7릉 내부	160512		
104	4711	경기 개성 전 고려 충혜왕 영릉 도굴(盜掘)구덩이	160531		
105	27436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玄室) 왼쪽 벽과 입구	無892-19		
106	27433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 정벽(正壁) 십이지상(쥐子)	無892-16		
107	27426	경기 개성 수락암동 제1호분 현실 정벽	無892-9		
108	30350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도굴(盜掘)구덩이 재발굴	無1131-9		1916년
109	30349	경기 개성 칠릉동 고려 왕릉 제7릉 도굴 후 복구상황	無1131-8		1916년
110	28067	경기 개성 송자청묘(宋子淸墓) 석관 실측도	無940-12		
111	36763	경기 개성 고려 공민왕비 노국공주 정릉 호석 봉괴상태	無287-19		
112	23095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남벽(南壁)	無488-5		1947년
113	23093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북벽(北壁)	無488-3		1947년
114	23098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소丑)	無488-8		1947년
115	23097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동벽 십이지상(용辰)	無488-7		1947년
116	23094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양未)	無488-4		1947년
117	23092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석실 서벽 십이지상(개戌)	無488-2		1947년
118	23123	경기 장단 법당방 벽화고분 뚜껑돌 천문도(天文圖) 모사도	無490-7		1947년
119	19677	경기 개풍 공녀동(宮女洞) 고분 승안삼년명(承安三年銘) 석관 출토 유물	無175-4		1916년
120	27434	고려 인종(仁宗) 장릉(長陵) 출토 청자과형병(靑磁瓜形瓶)	無892-1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4)	

일련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121	27435	전 인종 장릉 출토 동제인銅製印	無892-18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1)	
122	27424	전 인종 장릉 출토 은젓가락과 은손가락	無892-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2)	
123	35156	전 인종 장릉 출토 동관銅棺과 석함石函	大28-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253)	
124	36250	명종 지릉 출토 청자발靑磁鉢	無566-1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5)	
125	23552	명종 지릉 출토 청자상감여지녕쿨무늬대접靑磁象嵌荔枝唐草文大碟	無559-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8)	
126	23553		無559-8		
127	23710	명종 지릉 출토 청자타호靑磁唾壺	無571-5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4904)	
128	34800		中90-7		
129	27427	경기 개성 고려 칠릉군 중 제7릉과 명종 지릉 출토 동전	無892-10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130	29701	고려 공민왕 현릉 출토 철제 가위	無1077-7		
131	29699	고려 공민왕 현릉 출토 동전(앞·뒤)	無1077-5		
132	29697		無1077-3		
133	28180	공민왕릉 출토 자물쇠와 열쇠	無949-1		
134	13812	경기 개성 출토 청자어룡형주자靑磁魚龍形注子	390213	촬영 당시 개성부립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개성2)	
135	23466	경기 개풍 궁녀동 고분 출토 백자정병	無546-1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1916년
136	15033	전 개성 출토 청자상감모란문쌍이호靑磁象嵌牡丹文雙耳壺	中270078	촬영 당시 森辰男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8)	
137	8592	경기 개성 발견 청자철화모란문병靑磁鐵畫牡丹文瓶	280590	촬영 당시 森辰男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6239)	
138	8593		280591		
139	8505	경기 개성 발견 청자상감모란문과형주자靑磁象嵌牡丹文瓜形注子	280502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717)	
140	23542	경기 개성 출토 청자상감모란문합靑磁象嵌牡丹文盒	無558-7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099)	
141	8455	경기 개성 발견 청자 잉어모양 연적硯滴	280452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118)	
142	37181	경기 개성 출토 청자철채백화당초문병靑磁鐵彩白花唐草文瓶	無596-18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3934)	
143	24697	봉명산鳳鳴山 칠묘七墓(칠릉) 부근 출토 청자 상감 국화 모란무늬 모자합母子盒	無660-1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481)	
144	25486	도기호陶器壺·개성 출토 도기병陶器瓶	無731-7	병: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96))	
145	23615	중국도자 경기 개성 발견	無564-10	촬영 당시 이왕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978)	
146	23618	청자양각모란당초문접시靑瓷壓出陽刻牡丹唐草文花形	無564-13		
147	241	박물관진열품博物館陳列品 고려 금·금동 장식	90320	촬영 당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153, 덕수855 등)	1909년
148	27429	경기 개성 고려7릉 출토 금동장식과 불상	無892-12		
149	27428		無892-11		
150	17326	전 경기 개성 부근 고분 출토 채화비천문彩畫飛天文 동판銅版	D330092	촬영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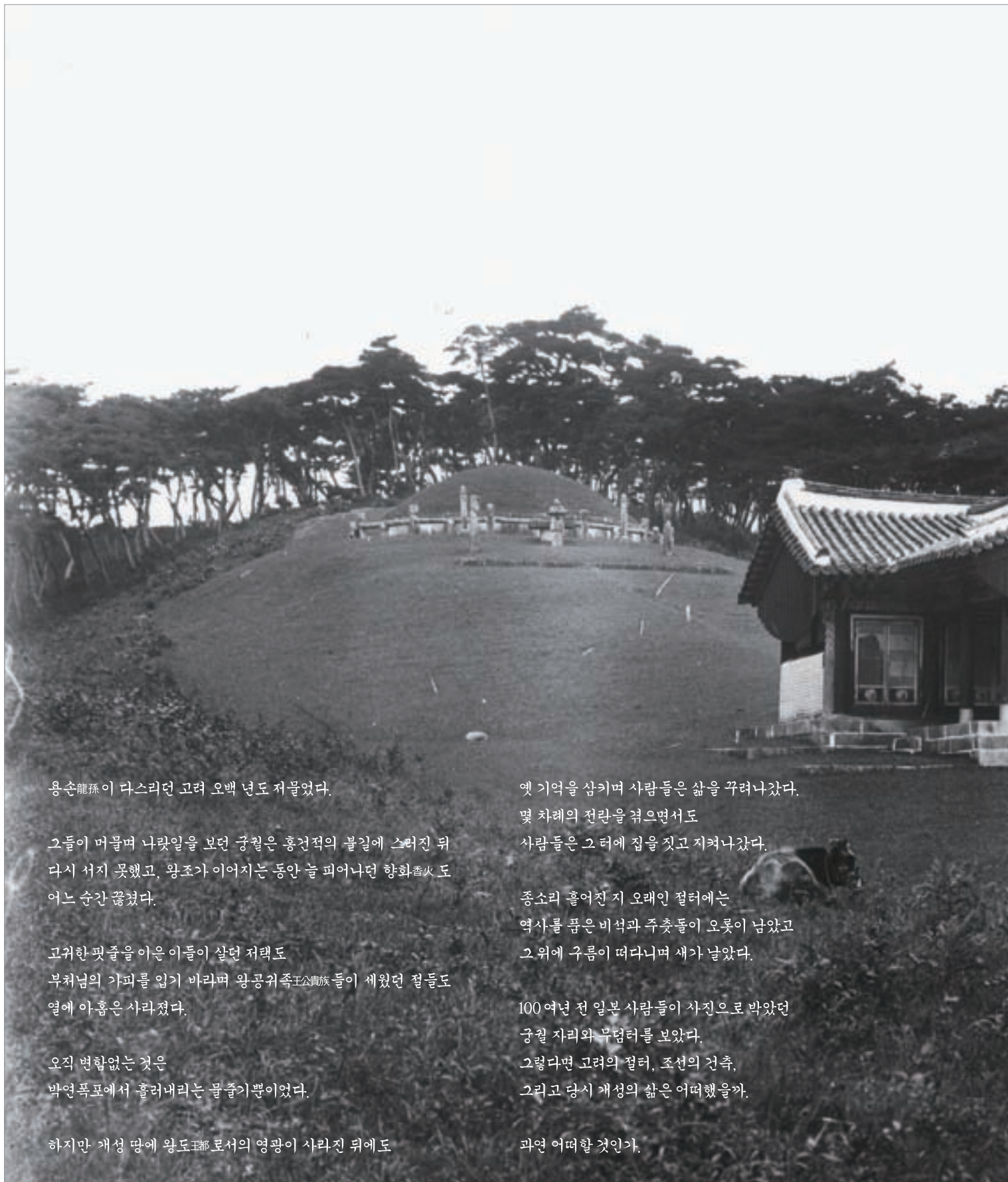
일련 번호	건판 번호	명칭	원판 번호	소장처	촬영 연도
151	25658	경기 개성 출토 도해대선문渡海大船文 팔릉경八棱鏡	無748-9	촬영 당시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덴리참고관天理參考館 소장	
152	24841	경기 개성 출토 사유서조경四紐瑞鳥鏡 · 서화원양문 팔릉경瑞花鴛鴦文八棱鏡	無671-8	촬영 당시 일본 교토국립박물관京都國立博物館 소장	
153	24827	경기 개성 출토 천추만세방형경千秋萬歲方形鏡	無670-5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09)	
154	25155	경기 개성 출토 쌍앵무경雙鸚鵡鏡	無698-4	촬영 당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소장	
155	25772	경기 개성 고분 출토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	無756-7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2426)	
156	35385	최보순崔甫淳 묘지명	大55-8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문과대학文科大學 소장	
157	34364	이공수李公壽 묘지명	中44-7	촬영 당시 일본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소장	
158	22466	유극해俞克諧 묘지명	無431-3		
159	24951	경기 개성 출토 유극해 석관石棺	無682-6		
160	24686	석관	無660-1		





## V. 맺음말





용손龍孫이 다스리던 고려 오백 년도 저물었다.

그들이 머물며 나랏일을 보던 궁궐은 흥건적의 불길에 스러진 뒤  
다시 서지 못했고,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늘 피어나던 향화香火도  
어느 순간 끊겼다.

고귀한 핏줄을 이은 이들이 살던 저택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 바라며 왕공귀족王公貴族들이 세웠던 절들도  
옆에 아홉은 사라졌다.

오직 변함없는 것은  
박연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줄기뿐이었다.

하지만 개성 땅에 왕도王都로서의 영광이 사라진 뒤에도

옛 기억을 삼키며 사람들은 삶을 꾸려나갔다.  
몇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터에 집을 짓고 지켜나갔다.

종소리 울려진 지 오래인 절터에는  
역사를 품은 비석과 주춧돌이 오롯이 남았고  
그 위에 구름이 떠다니며 새가 날았다.

100여년 전 일부 사람들이 사진으로 박았던  
궁궐 자리와 무덤터를 보았다.  
그렇다면 고려의 절터, 조선의 건축,  
그리고 당시 개성의 삶은 어떠했을까.

과연 어떠할 것인가.





---

## 초 록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개성 관련 유리건판 중, 고려의 궁궐과 능묘 관련 유리건판 160여건을 엄선해서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시기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부터 해방 직후인 1940년대에 걸쳐 있으며, 다루는 대상은 고려의 수도 개성의 고려 유적 중 궁궐과 능묘에 한정하였다. 이 유리건판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고려의 유적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어떻게 훼손되고 정비되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개성의 고려 궁궐 터를 흔히 '만월대'라고 부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만월대 유리건판은 대개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 촬영된 것으로, 만월대의 중심 건물인 회경전會慶殿 터를 비롯해 각종 건물터의 근경과 원경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만월대에서 출토 후 수습된 각종 유물을 찍은 유리건판도 많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일제에 의해 고적古蹟으로 지정되기 이전 만월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성에는 고려시대의 왕릉을 비롯하여 왕족, 관료계층의 능묘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개화기부터 고려청자의 명품을 노린 도굴범들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속에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고려 왕릉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성의 능묘가 입었던 도굴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 적지 않다. 무덤 한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무덤방을 들여다보았던 이들의 시선도 유리건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publishing a sourcebook consisting of 160 gelatin dry plate photographs of royal palaces, tombs, and mausoleums from the Goryeo Dynast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collection of gelatin dry plate photos related to Gaeseong held by the museum. These photographs date to the 1910s to the 1940s and depict royal palaces, tombs, and mausoleums from among the Goryeo Dynasty ruins in its capital of Gaeseong. They were taken by Japanese photograph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us serving as valuable materials to show how the remains of Goryeo were damaged and restored at the time.

The Goryeo Dynasty royal palace site in Gaeseong is commonly known as “Manwoldae.” Most of the gelatin dry plate photos of it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ere taken around the 1910s. They include close-up and distant views of various building sites, such as the site of Hoegyeongjeon Hall, the main building of the Manwoldae complex. Moreover, numerous photos presenting a wide range of artifacts excavated from Manwoldae remain. These photographic materials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its condition before it was designated as historic remains by Japan.

There are numerous tombs and mausoleums of kings, royal family member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Goryeo Dynasty in Gaeseong. However, since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ports in Korea, they have been severely damaged by grave robbers seeking splendid Goryeo celadon wares.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gelatin dry plate photographs hous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eature not only intact Goryeo royal tombs, but horrible scenes of tomb theft in Gaeseong. Some photos depict people gazing into a tomb chamber through a hole pierced into it.

---

---

## 참고문헌

『簡易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警修堂全藁』

『宣和奉使高麗圖經』

『筆苑雜記』

朝鮮總督府 編, 『朝鮮古蹟圖譜』 6·7, 朝鮮總督府, 1918·1919.

고유섭, 『又玄 高裕燮 全集7－松都의 古蹟』, 열화당, 2007.

김재준, 『金在俊全集15－외지에서 사는 조국』, 한신대학 출판부, 1992.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안중근, 『안중근의사자서전』, 안중근의사숭모회, 1979.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今西春秋, 『今西龍小傳』, 國書刊行會, 1972.

차순철, 『『韓紅葉』과 일본인들의 한국문화 인식과정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1, 2012.

---

